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2월 7일(음력 12월 20일) 수요일 (주간) 제 614 호

‘새싹불자…’ 캠페인
포교원 · 本社 공동 전개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신문사는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를 주제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한다.

2007년 1월부터 1년간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현대불교신문 2개 지면을 ‘어린이 · 청소년’ 페이지로 고정 운영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불교정보와 신행활동을 소개한다. 또 캠페인의 일환으로 △종립학교 각 학급 현대불교신문 보내기 △종립 중 · 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개최 등의 부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12 · 13면

‘종단 자정’ 더 미룰 수 없다

조계종 승 · 재가 9개 단체 연석회의 … 공청회 등 운동전개 방침

소쩍새 마을 후원금 횡령 사건(1995년), 불교방송 공금횡령 사건(1997년), 조계사 공금횡령 사건(1999년), 범어사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2001년), 화엄사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2002년), 신촌 봉원사 토지 불법 매매 사건(2005년).

1994년 조계종 종단 개혁 이후 발생한 대형 비리 사건들이다. 개별 사찰에서 발생한 사건을 포함하면 사실상 매년 단위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공주 마곡사가 검찰에 의해 야간압수수색 당했으며, 100억원 대에 달하는 서울 흥천사 토지를 불법 거래한 사건이 발생해 불교계 내외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사건의 관련자 대부분이 종단 주요 소임자 및 교구본사 주지 등 소위 고위층이어서, 종단 내 만연한 도덕 불감증과 비승가적 행태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종단 자정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총무원은 최근 각종 사건에 대해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안일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 자정 강화 대책 등 총무원 차원의 방안도 발표하지 않아 위기관리능력에도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중앙종회 또한 마곡사 사건에 대해 자숙과 참회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법난’ 등의 표현을 써가며 사법당국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뒀다. 종단의 사법적 기능을 담당하는 호계원도 서울 보광사 폭력 사건에 대해 문서견책 결정을 내리는 등 일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는 1월 14일 조계사 설법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교단체 및 기구가 참여하는 ‘불교자정 기구’ 설립을 제안했다.

이 3개 단체와 더불어 조계종 중앙신도회, 참여불교재가연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포럼, 사찰생태연구소 등 9개 단체는 2월 1일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회의실에서 불교계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었다.

단체들은 회의에서 종단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는 상시로 열고, 연석회의는 3개월에 한 번씩 열기로 했다. 또 2월 초 재가단체들을 중심으로 공동입장을 표명하고, 총무원장 · 중앙종회의장 · 호계원장 등 주요 종단 지도자를 방문해 종단 자정 기능 회복 및 강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2월 말 경에는 종단 자정 강화를 촉구하는 공청회(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박광서 前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는 “이번에는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공사 등 주로 승가단체에서 움직임을 선도해 이전과 분위기가 다르다”며 “재가단체도 이름만 걸기 보다는 3~4개 단체가 되더라도 끝까지 함께 할 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더 큰 수행의 길로 떠나요 전통 강원이 졸업 시즌을 맞은 가운데 지난 2월 2일 전국 유일의 통학 비구니승가대학인 서울 삼선승가대학을 비롯해 동학사, 운문사, 청암사의 승가대학이 졸업식을 가졌다. 사진은 삼선승가대학의 12명의 학인 스님이 졸업식이 끝난 후 후배 스님들의 축하 속에 활짝 웃고 있는 모습.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사고

예비수험생 · 학부모님
‘자비명상’으로 만점 도전!

본사는 예비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빚어질 수 있는 어려움과 갈등을 해소하는 지혜를 드리고자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한 마가 스님 자비명상’을 마련했습니다.

이 강좌는 부처님께서 장자 아들에게 설하신 〈육방예경〉에 근거한 것으로, 수험생과 학부모가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1년을 보내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마가 스님은 공주 마곡사에서 포교국장으로 재직하며 4년간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진행, 마곡사를 대표적인 템플스테이 사찰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2003년부터 중앙대 겸임교수로서 ‘내 마음 바로 보기’라는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강사 : 마가 스님
- 장소 : 대치3동 대치3문화센터
- 참가인원 : 100쌍(200명)
- 시간 : 매 회 오후 3시~5시(2시간)
- 연락처 : (02)2004-8279, 011-737-2658
- 참가비: 1인 2만원

회차	날짜	장소
1차	2월 10일	대치3문화센터
2차	2월 11일	대치3문화센터
3차	2월 24일	대치3문화센터
4차	2월 25일	대치3문화센터



I love Buddha / 마음 속 밝은 빛

용정운(www.zentoon.com)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인물經 세상鏡

‘좋은 하루 되세요’ …당신의 친절지수는?

그의 이름을 물어보는 사람은 없다. 그의 월수입이라든가 하루 일과 등 사생활을 묻는 사람은 더욱 없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사람들에게 인사를 한다. 직업적인 인사가 아니라 아주 친절하고 힘찬 인사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무료신문을 나눠주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인사는 세 가지다. 월요일 아침에는 “좋은 한 주 되세요”를 외치며 신문을 나눠준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좋은 하루 되세요”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는 “좋은 주말 되세요”를 외친다.

바쁜 출근길. 그의 인사에 화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함께 신문을 나눠주는 다른 ‘동업자’들도 그저 신문만 내밀 뿐이다. 그러다 보니 지하철역 입구엔 오직 그의 목소리만 싱싱한 생선처럼 펄떡거린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의 인사는 사람들에게 하루의 행복을 만드는 힘으로 작용하기에 충분하다.

자신의 일과 관련한 친절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자. ‘나는 나의 일과 관련해 얼마나 친절한가?’ ‘나는 나의 일과 상관없이 얼마나 친절한 생활을 하고 있는가?’ 친절해서 손해 볼 일은 천하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표현에 어색하다.

지난해 ‘리더스 다이제스트’지가 세계 35개 도시를 상대로 친절지수를 조사했는데 서울은 32위였다. 우리가 살고 있는 중생계, 그 인드라망이 ‘행복의 그물’이 되기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친절이다.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점검해 보자. 오늘 나의 친절 지수는?

임연태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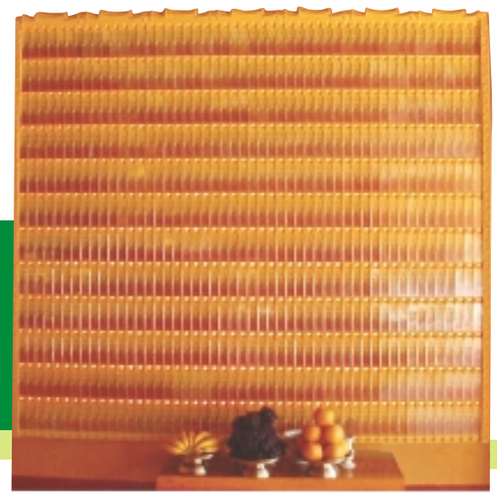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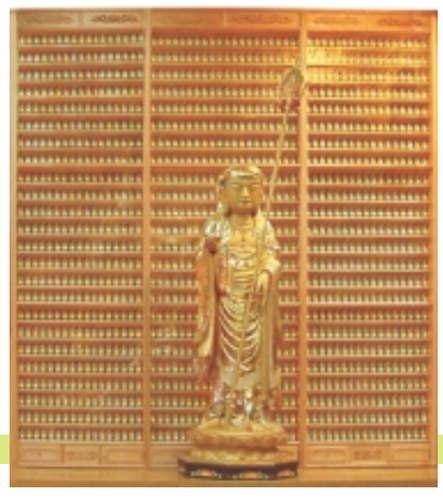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종등 · 팔각봉축접등 · 공단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 인쇄시 30일전에 미리 전화 신청 바랍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 상 품
영구위패
LED 인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법당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탐방객 많은 사찰 쓰레기 배출량 3배

조계종 '사찰 쓰레기 처리…' 조사서 드러나

발우공양할 때는 고춧가루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음식물에 대한 고마움과 소중함 때문이다.

쓰레기가 별로 배출되지 않을 것 같은 사찰. 그런데 일부 사찰의 쓰레기 발생량이 일반 가정보다 3배 정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사찰 쓰레기의 많은 부분을 탐방객들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계종이 사찰의 친환경적 생활과 생태사찰 만들기 일환으로 발간한 '사찰쓰레기 처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대책마련연구보고서'에서 드러났다.

총 25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사찰 상주인원에 의한 1인 1일 쓰레기 발생량은 일반 가정(1040g)의 55%정도였다. 25개 조사대상 사찰의 하루 평균 상주인원은 51명, 탐방객은 530명이다. 일반쓰레기발생량은 3만9385g, 음식물쓰레기발생량은 1만8039g, 재활용쓰레기발생량은 1만8419g 등으로 하루 평균 전체 쓰레기발생량은 7만5890g이다.

그러나 탐방객의 영향이 많은 6개 사찰의 쓰레 발생량은 3111g으로, 일반가정보다 3배 많았다.

양산 내원사의 경우 지난해 전체 쓰레기 발생량 4만7280kg 중 내원사 자체의 상주인원에 의한 쓰레기 발생량(6085kg)은 12.9%에 불과했다. 나머지 87.1%는 탐방객에 의한 쓰레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원사는 지난해 5210만원을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에 따라 종단에서는 사찰 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찰 쓰레기 관리 지침서 개발 및 보급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재의식 및 재문화 정립 △사찰 내 쓰레기 관련 시설 개선 · 정비 △사찰 경내 쓰레기통 개발 및 보급 △사찰 소임자 교육 △탐방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종단 외부적으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탐방객 쓰레기에 대한 지원 및 협조방안 강구 △탐방객에 대한 상시적인 홍보와 계몽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계종 사회부장 지원 스님은 "환경위원회를 통해 '사찰 쓰레기 관리 지침서' 발간하는 한편, 정부 등과 탐방객에 의한 사찰 쓰레기 발생 감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강원교육 학제개편 등 '변화' 모색

조계종 교육원 올 중점사업 발표…간화선 · 종단사 세미나도

조계종 승가교육에도 시대적인 변화를 수용한 프로그램이 포함될 전망이다.

조계종 교육원은 1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행정서비스 개선, 승가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포함한 올해 종무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원의 2007년 종무계획은 관리행정을 탈피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수교육의 질 향상, 수행승가 구현을 위한 불교학 연구 등을 골자로 16개 분야별 사업으로 짜여졌다. 여기에는 교육관계법령을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제 · 개정하고 기본교육기관 공통교과목 개발, 각 사찰 소임자들의 직능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교육원의 올해 계획안은 기본교육기관인 강원 교육에 대한 변화를 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관심을 끌었던 해인사 강원의 학제개편과 관련해, 교육원은 전통강원 전체 교과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발전방안을 도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승가교육 강화도 올해 계획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교육원은 본말사주지연수교육과 승랍 10, 20, 25년차를 각각 대상으로 한 불교지도자연수 등의 기간을 늘여 사회변화에 맞춘 프로그램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또 각 사찰 소임자 스님들을 대상으로 신도교육을 위한 '간화선 실참수행 향상과정' 연수를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16개 사업 가운데 간화선 세미나와 종단사 세미나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분류했고, 기본교육 공통교과목 개발, 선원청규 편찬, 금강경 · 반야심경 통일 한문 · 한글본 편찬, 본말사주지연수 등 5가지를 주요사업으로 추진해 나간다.

이 밖에도 청암사 비구니율원 설립, 동학사 비구니학림 설립, 불학연구소의 학술진흥재단 등록, 율원령 제정 등도 눈여겨 볼만하다.

교육원장 청화 스님은 "시대적인 변화를 승가교육에 수용하는 등 내적인 변화를 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선암사 사태 '원만 해결' 태고종 전국종무원장 합의

태고종은 1월 29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갖고 대화합 속에서 선암사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만장일치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총무원장 운산 스님, 선암사 전임주지 금용 스님, 후임주지 승조 스님, 선암사 수습대책위원장 원명 스님, 종회의장 인공 스님, 각 시 · 도교구 종무원장 및 총무국장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선암사 전임주지 금용 스님은 "방장 스님을 중심으로 선암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현 주지 승조 스님도 "최대한 협조해 선암사 문제를 조속히 끝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선암사 주지선출을 및 운영에 관한 문제는 선암사 수습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으며, 재적승들은 제3의 인물로 주지를 선출하기로 했다.

김원우 기자

포교사 조직정비 · 전문화 "직접 관리"

조계종 '전문포교사 선발…' 령 제정…신행 · 문화 등 분야별 선발

'전문포교사선발및관리에관한령'이 1월 30일 조계종 종무회의를 통해 제정됐다. 지난해 1월 입법예고를 한 뒤 1년만이다.

전문포교사령은 사문화돼왔던 전문포교사 제도 시행을 통해 포교사 조직을 재정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고시를 통해 8000여명의 포교사가 배출됐지만 현재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4500여명이며, 정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포교사는 2700여명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1500여명은 회비는 내고 있지만 활동은 미비한 상태다. 포교원은 영 제정으로 전문인력풀을 형성한 뒤 종단에서 직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영에 따르면, '전문포교사'란 일반포교사로서 3년 이상 전문 포교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인정된 자 중에서 소정의 선발 절차를 거쳐 자격을 획득한 자를 말한다. 전문포교사가 되기 위해선 포교원에서 설립한 포교사대학원을 졸업해야 한다.

전문포교사는 '신행지도전문포교사(어린이 · 청소년 · 청 · 장년, 직장 · 직능 및 군 · 경 · 교도소, 교육 및 수행 포교분야)' '문화예술전문포교사(불교문화해설, 출판 · 인터넷, 예능 · 스포츠 포교분야)' '사회 · 복지전문포교사(환경 · 평화 · 인권 및 통일, 자원봉사 · 복지, 법률 · 의료 및 상담 포교분야)'로 구분된다.

전문포교사 선발기준으로는 △팀장 이상(중앙, 지역단의 임원)의 경험이 있는 자 △단비 완납 자 △분야별 연수 80% 이상 참석자 △포교활동 보고서 80% 이상 제출자 △사정위원회 면접 평가 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자 등이다.

그러나 기존 포교사와의 특성화 및 차별화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 배정, 어린이 지도사 등 각 분야 지도사와의 변별력, 응시자격 폭 축소 및 확대 등 보완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포교원 한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규칙 제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총지종 원송 통리원장 취임

불교총지종은 1월 29일 서울 역삼동 총지사에서 제15대 통리원장 원송 종사 취임식을 개최했다(사진).

원송 종사는 "원칙을 반드시 지키고, 형평과 기준이 살아있는 종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승단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참고하여 종무행정에 반영할 것이며 상생과 화합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기겠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지관스님 재가종책특보에 김영국 씨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2월 2일 김영국 前 법보신문 기자(사진)를 종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총무원장 종책특보에 재가불자가 임명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김영국 종책특보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불교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영국 종책특보는 "불교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해 정부와 국회, 각 정당에 제시함으로써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봉영 기자

관람료 사찰 실태조사 벌이기로

조계종과 정부는 2월 1일 '국립공원 및 문화재관람료 제도개선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국립공원내 22개 사찰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조계종측 부 · 실장 4인, 각 부처 및 정부측 국 · 처장급 8인으로 제도개선협의회를 공식 가동시키고, 월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국립공원과 문화재에 대한 제도 전반을 논의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총지종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 '다양'

총지종이 종조 원정 성사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올해 학술세미나와 전국 찬불가대회를 열고, 명상용 CD를 배포한다. 또 창종 35주년을 기념해 사경대회, 독경 및 진언염송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총지종은 1월 29일 총지사 원정 대성사 기념관에서 제100주년 종조탄신기념 '종조탄신대재'를 봉행하고, 기념사업의 본격 추진을 다짐했다.

종조탄신 100주년 기념사업은 종조탄신기념대법회를 비롯 명상이나 요가 수행 등 여러 수행법 개발에 접목이 가능한 종조법설집 명상용 CD 및 테잎 제작 배포 등 다양하게 준비되고 있다.

기념사업의 대중성 제고를 위해 종조유품전 및 사진전, 종조탄신기념 예술제, 합창제 또는 전국찬불가 경연대회(독창, 중창, 합창부분) 등을 마련 한다.

이 밖에도 종조유고집 <유마경>과 역대 강공교재 <법향 가득한 도량>도 발간할 예정이다.

창종 35주년 기념사업은 전국 교구별로 종단 소의경전인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심경 등의 경전사경대회와 경전독송 및 진언염송 경연대회, <종조유품 화보집> 제작, 종조 육필원고 '총지교전'(가칭) 발간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2007년도 어린이법회 개설 사찰 접수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에서는 어린이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어린이법회 개설을 원하는 사찰 및 법회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찰을 위하여 어린이법회 개설 및 운영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어린이법회 개설 사찰과 법회를 활성하고자 하는 사찰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어린이법회 지원 사찰의 기본 요건
(1)조계종 등록 사찰(공찰 우선 지원)
(2)어린이 20인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매주 1회 어린이법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찰
(3)어린이법회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1인을 확보한 사찰

2.제출서류
(양식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www.buddhism.or.kr)
(1)신청서
(2)어린이법회 운영 기본계획서

3.신청 일시 및 방법
(1)접수기간 : 2007년 2월 5일(월) ~ 2007년 2월 20일(화)
(2)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이메일 송부 필수)
(3)주 소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2층 대한불교조계종포교원
(4)결과발표 : 개별연락 및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
(5)문 의 : 어린이청소년팀 (직통 02-2011-1904 / young3933@buddhism.or.kr)

◆ 신규 및 운영사찰의 혜택
1.신규 및 운영사찰에 대한 개설지원팀의 협조
2.신규 및 운영사찰에 포교원 및 산하단체에서 제작한 포교관련 자료 우선 제공
3.신규 및 운영사찰에 어린이지도자 연계 및 여름,겨울 불교학교 지원 혜택 우선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혜 총

中 중산대에 김성숙 기념관

기념사업회 · 중산대 '합의' …中 정부허가 완료

운암 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회장 최문성)와 중국 중산(中山)대학교는 1월 31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기념사업회 사무처에서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중국 광둥성(廣東省) 중산대학 교정에 김성숙 기념관을 건립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2006년 11월 열린 제1차 협의회에서 중산대학 교정 안에 있는 대학 본부 옆에 김성숙 기념관 건립을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번 제2차 협의회에서는 기념관 건립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허녕생 중산대 부총장은 "이번에 한국에 오기 전 정부에 설립허가를 이미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중산대학교는 스님 출신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항일독립운동가인 운암 김성숙이 정치 · 경제학을 공부하며 '유학한국혁명청년회'를 조직하고 기관지 <혁명운동>을 간행한 유서 깊은 곳이다.

총 30억원의 공사비용이 소요될 김성숙 기념관은 부지면적 1만6600㎡, 건물면적 5000㎡의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기념관 안에는 운암의 항일투쟁 및 독립운동단체 자료는 물론 한국과 중국의 항일연대 자료 등이 전시된다.

한편 3월경 양측 실무단은 중국 중산대에서 제3차 협의회를 갖고 기념관 설계와 시공사를 선정한다.

김주일 기자

별내 · 장현지구에 '포교거점'

봉선사 본 · 말사 택지개발지구내 토지 '종교부지' 활용 추진

봉선사, 불암사 등 조계종 제25교구 본 · 말사 일부 사찰이 개발택지내 종교부지 대토를 통한 포교거점 확보에 나섰다.

남양주별내택지개발사업(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424호)에 봉선사 불암사 등의 토지 총 1600여평 정도가 편입됨에 따라 2개 사찰은 현금보상을 포기하는 대신 개발 택지 내 종교부지 불하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택지개발사업단은 이 두 사찰이 종교 부지를 불하 받기 위해서는 개발지구 내에 종교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건축물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밝혀 어려움이 예상된다.

봉선사 교구 사찰들은 종교 부지를 불하받게 되면 대규모 포교당과 문화센터를 건립해 지역주민 포교 활성화 거점 기지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보상협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종교시설도 없기 때문에 종교부지 불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와관련 봉선사 주지 철안, 불암사 주지 일관 스님 등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대책위원회를 1월 31일 교구종회에서 구성해 종교 부지를 불하 받기 위한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 별내택지개발지구 내에는 14개의 종교부지가 지정돼 있으며 이중 불교의 구성비율은 0.5%로 미약한 실정이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남양주지역에는 제25교구 봉선사 소유 토지가 포함된 별내지구 외에도 장현지구 택지개발이 예정돼 있어 이곳에도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종교부지 불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별내 지구 인근에는 외곽순환도로가 있어 일산과 시흥, 인천 등에 있는 불자들도 1시간 이내에 올 수 있어 수도권 포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본 · 말사 100여 스님들이 종교부지 확보를 위해 시와 개발공사 관계자들과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새 연재로 더 알찹니다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 16면(격주)
옛 선사들이 남긴 깨침의 울림. 한 구절의 선시에는 우주의 진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前 백양사 방장 서옹 스님에게 7년간 일곱 차례 참문한 뒤 인가를 받은 선객이자 선시 연구에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한 송준영 시인이 한글세대의 정서에 맞춰 선시를 해설합니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읽기 · 16면(격주)
여러분은 몇 편의 시를 암송 하시나요? 시는 삶의 여유와 아름다운 감성을 찾아 드립니다. 한 권의 시집을 읽는 동안만큼은 누구나 행복합니다. '시집 읽어주기' 바람을 몰고 온 공광규 시인이 불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엮어진 시집을 소개하며 시 읽는 맛을 찾아 드립니다.

불교문화클러스터 사하촌을 가다 · 다음주부터 5면
큰 산에 큰 절이 있고 큰 절 아래에는 불교문화가 있습니다. 사하촌은 단순한 관광단지가 아니라 우리시대의 불교가 살아 숨쉬는 문화클러스터입니다. 큰 절을 배경으로 형성된 사하촌의 불교문화 현주소를 수필가 김상미씨와 시인 이대흠씨가 번갈아 탐방합니다.

생활 속 신행이야기-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 11면
우리의 삶은 늘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됩니다. 당당한 불자로서의 삶을 이끌어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다스리는데 서투른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동국대 선학과 강사 황수경 박사가 생활 속에서 마음 다스리는 길을 안내합니다.

한국 근 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 10면
언어의 길이 끊어진 곳에서 던지는 질문. 생각의 틈새조차 허락되지 않는 곳에서 터져 나오는 대답. 선문답은 깨달음의 길을 일러주는 자애로운 가르침이자 샛길을 허락지 않는 벼락같은 질책이기도 합니다. 수행전문 작가 김성우씨가 근현대 한국 고승들의 선문답의 세계로 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서 생생한 깨침의 육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산 스님의 '사찰 음식의 모든 것' · 16면(격주)
최근 건강식으로 크게 각광받는 '사찰음식'은 그 재료 하나하나와 만들고 먹는 과정 하나하나가 모두 수행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산사에서조차 전통 사찰음식이 사라지고 있어 그 보존과 계승방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산 스님(본명 김연식)이 사찰음식 본연의 정신과 유래, 특징, 만드는 법 등을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정산 스님은 40여 년 전부터 범어사를 비롯해 많은 전통사찰에서 전승된 비법을 전수받은 '사찰음식 연구 보급의 원조'입니다.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 15면
한국불교음악사를 인물, 합창단, 통사 등으로 나눠 각 분야별 전문가가 심도 있는 불교음악의 역사를 전해줍니다. 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안병길씨가 한국불교음악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숨은 이야기까지 들려 줄 것입니다.

캄에 '생명의 우물' 1천개 판다



'2007 생명의 우물 1000 오픈식'이 1월 26일 캄보디아 캄폿주에 위치한 생명의 우물 1000 프로젝트 총괄 본부 '생명의 우물 캄보디아 센터'에서 열렸다(사진).

지구촌공생회 대표이사 월주 스님, 타잇쿠언 캄폿주 주지사,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오픈식에서 월주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물로 고통 받는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내게 남은 모든 힘을 쓰겠다"며 "1000개의 우물이 완공돼 캄폿주 주민 전체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날까지 지구촌공생회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잇구언 주지사는 인사말에서 "지구촌공생회에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우물을 파줘 희망이 솟아오른다"고 답했다.

'생명의 우물 캄보디아 센터'에서는 수질 검사 및 관리, 우물 이용 현황 조사와 평가, 주민 보건 위생 교육 등이 이뤄진다.

남동우 기자

민주항쟁 20년 불교추진위 결성

1987년 6월 민주항쟁 2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잇기 위한 '6월 민주항쟁 20년 사업 불교추진위원회(상임공동대표 명진 · 여익구, 이하 불교추진위원회)'가 1월 31일 발족했다. 불교추진위원회는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故 박종철씨의 49재날인 3월 3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천도재와 추모제를 봉행할 예정이다. 근현대 불교민주화운동 관련 사료를 모아 자료집도 발간한다.

불교추진위원회는 서울 봉은사 선불당에서 개최한 출범식에서 "20년 전의 항쟁과 개혁 정신을 올곧게 세우고 참다운 민주주의 세상을 향한 진군을 새롭게 시작할 것"이라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이날 출범한 불교추진위원회에는 6월 민주항쟁에 참여했던 불교계 인사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다. 월운(봉선사 조실) 지선(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고문) 경우(대각사 회주) 대성(범어사 주지)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청화(조계종 교육원장) 스님을 비롯해 시인 고은 · 신경림, 고준환 · 한상범 교수 등이 고문을 맡았다. 공동대표로는 명진 · 학담 · 현응 · 효림 스님과 고광진 · 배영진 · 서동석 · 여익구 · 최연씨가 선임됐다.

여수령 기자



사찰음식 맛보세요!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회장 선재)가 1월 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사진은 출범식 후 열린 리셉션에서 선재 스님(왼쪽에서 세 번째)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연잎밥 등의 사찰음식을 맛보는 모습. 관련 인터뷰 6면

사진=박재완 기자

'회암사부도' →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문화재청 명칭 변경

그간 주인공이 밝혀지지 않아 '회암사지 부도'라고만 불렸던 보물 제388호가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이란 이름을 얻었다. 문화재청(청장 유홍준)은 경기도 양주시 회암사지의 '회암사지 부도'를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으로, '회암사지 쌍사자석등'을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앞 쌍사자석등'으로 변경한다고 1월 29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조선왕조실록>과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앞의 무학대사비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회암사지 부도는 무학 대사의 부도가 확실하며, 부도의 주인공이 밝혀짐에 따라 유물의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에 따르면 1397년 태조는 무학 대사의 부도를 회암사 북쪽에 만들도록 명했고, 1405년 무학 대사가 금강산 금장암에서 입적하자 태종은 영골을 회암사에 마련된 부도에 안치했다고 한다.

회암사무학대사홍융탑 앞에 있는 무학대사비에는 '무학의 비는 태종 10년(1410)에 임금께서 문신 변계량에게 명하여 글을 짓게 하고 공부(孔俯)가 써서 두 왕사의 탑 아래에 세웠는데…'라고 기록돼 있다.

여수령 기자

원로 서예가 여초 김응현 선생 별세



본지 제호를 쓴 원로 서예가인 여초(如初) 김응현(金應顯 · 사진)씨가 1일 저녁 7시 별세했다. 향년 80세.

여초 선생은 추사 김정희의 맥을 이은 소전 손재형(1903~1981), 검여 유희강(1911~1976) 이후 한국의 대표적 서예가로 불려왔다. 고인은 1956년 동방연서회 설립회원으로 참여했고 69년부터 이사장을 맡아 수천명의 제자들을 길러왔다.

그러나 당뇨와 파킨슨 병 등의 합병증으로 10여 년 전부터 투병해왔고 96년부터 인제 백담사 인근에 '구룡동천(九龍洞天)'이라는 통나무집을 짓고 지내왔다.

김원우 기자

아프리카에 한국불교를 전하러 갔던 동봉스님께서 2006년 11월 30일부터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101일 국토 대장정 고행정진"**의 장도에 올랐습니다. 경기도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하여 하루하루의 고행정진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7년 3월 10일 임진각에서 회향식이 봉행됩니다.

국토대장정 목적 과 방법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동봉스님의 고행정진의 목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한국불교 최초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진출을 위한 기금조성. 둘째,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달래는 동시 평화적 남북통일의 염원이며. 셋째, 가정경제를 비롯하여 사회경제 국가경제 살리기. 넷째는, 삼보님과 시주의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입니다.

고행정진의 방법에 대해서는 출발한 당일로부터 회향하는 날까지 매일 20킬로미터(약50리) 정도를 도보로 걷습니다. 걷는 동안 석가모니불을 염송하며,세간의 다양한 모습과 소리를 들으면서 상담하고 봉사도 합니다. 매일같이 소원들을 모아 아침에는 금강경을 읽고 저녁에는 아미타경과 초발심자경문을 읽으며 기도 축원을 드리며, 중생들의 소리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봉사와 법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1차적 방법이므로 도보대장정하는 그 지역에 따라 얼마든 가능합니다.

고행정진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직접 몸으로 정진할 분들은 승속 남녀노소 누구든 가능합니다. 동참기간도 단 하루에서부터 3일간, 5일간, 7일간, 21일간, 또는 전체 기간을 함께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참여하는 불자님들이 스스로 정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분들은 모두 부처님께 기도하고 축원을 합니다.

고행정진기간을 딱 떨어지는 100일로 하지 않고 101일로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절 회주 비구東峰正休 합장

010-4800-0882 / kipoo255@yahoo.co.kr / db4676@chol.com

후원입금계좌 : 우리은행 338-058787-13-001(예금주:대한불교조계종우리절)

● 정진기간 : 2006년11월30일부터 ~ 2007년3월10일까지 ● 출발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 회향장소 : 임진각

● 후 원 : 태광엠티씨(주) 태광실업주식회사 정산컨트리클럽 HUCHEMS 휴켐스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우리절 동선회 목련사랑

국토대장정 일정표 (기상상황에 따라 약간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토대장정 고행정진 출발시간 - 아침 08:00

제10주 2월 1일 - 2월 7일 [151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1일[목]	목포시	-	무안읍	25km
2월 2일[금]	무 안	-	신광	23km
2월 3일[토]	신 광	-	영광읍	17km
2월 4일[일]	영 광	-	고창읍	25km
2월 5일[월]	고 창	-	줄포	22km
2월 6일[화]	줄 포	-	부안읍	19km
2월 7일[수]	부 안	-	김제 자혜사	20km

제11주 2월 8일 - 2월 14일 [162km]

날 짜	출발지		도착지	거 리
2월 8일[목]	김 제	-	대 야	23km
2월 9일[금]	대 야	-	서 천	23km
2월10일[토]	서 천	-	웅 천	27km
2월11일[일]	서웅천	-	보령대천	18km
2월12일[월]	대 천	-	광 천	22km
2월13일[화]	광 천	-	갈 산	23km
2월14일[수]	갈 산	-	서산시	26km

※위 국토대장정 일정표는 현대불교신문에 2주차씩 연속해서 회향 일정까지 게재해 드립니다.

앞산에 오면 편안한 '음악도량'이…

2월 12일 대구불교음악예술원 개원

대구에 불교음악문화공간이 마련된다. 2월 12일 개원하는 대구불교음악예술원(원장 이달철)이 그것.

대구 앞산 자락 70여 평 공간에 마련된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35평 약 60석 규모의 강의실과 15평 정도의 휴게실, 사무실이 들어서 있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특히 모두가 화합하고 편안하라는 뜻에서 화안당(和安堂)이라 이름 지어진 강의실은 최신 디지털 음향시설은 물론 각종 세미나와 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청각 영상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이 공간은 저렴한 가격(2시간에 5만원)으로 모든 불교단체들이 회의 세미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합창 연습공간이 부족한 교계 합창단들의 연습공간으로 무료 대여할 계획이다. 또 강당 앞에는 작은 단을 마련해 두었는데 전문음악인 불자들이 소규모의 음악회를 수시로 개최해 음악을 통해 지역불자들과 소통하는 불교문화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산이 바로 보이는 휴게실 공간은 고품격 클래식 음악감상실의 분위기를 풍기는데, 아날로그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다.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불자들에게 잘 알려진 찬불가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작곡한 이달철 원장의 10년 넘는 발원에서 비롯됐다. 늘 개신교의 YWCA와 같은 음악문화공간이 불교계에도 마련되기를 발원해왔던 것.

이 원장은 "타종교에 비해 불교계의 음악문화 후원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며 개신교의 경우 교회 하나가 이런 문화공간을 2~3곳 가지고 있는 곳도 많은데 불교계는 종단차원에서조차 이런 공간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음악문화공간을 위한 재원 마련이 문제였다. 10년의 발원 끝에 사비를 털었고, 음악을 사랑하는 독지가 몇몇이 이 원장의 뜻을 적극 지지하며 나서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이 마련됐다.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지역전문음악인불자들과 불자들이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일반불자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노래교실과 색소폰, 대금, 해금, 피아노 반주법 등 다양한 악기레슨 강좌, 음악이론 강좌가 준비돼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음악인으로 성장하고자하는 불자 자녀들의 교육까지 담당할 수 있는 15명의 전문 교수진이 포진해 있다. 이미 각 분야에서 잘 알려진 교수진을 모두 물색해놓은 상태. 모두 불자음악인들로 구성돼 있으며, 열악한 환경조건으로 인해 불자음악인을 구하기 어려운 몇 개의 과목은 친 불교적인 교수진으로 구성해 차후 이 분야의 전문불자음악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는 2월 12일 개원할 대구불교음악예술원 강의실 모습.

작곡가 이달철씨 10년 발원의 결실
교계 합창단 연습공간 무료제공
일반인 위한 악기레슨·음악 강좌도

노래교실은 찬불가를 배우고 싶다는 불자들의 뜻을 반영해 매월 2주는 찬불가를, 1주는 가곡을 통한 성악발성법을 배우고, 1주는 가요를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해 놓았다. 50명 정원 3개월 과정 회원제로 운영되며, 기초와 심화과정으로 나눠 심화과정에서는 지역 교계 합창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달철 원장은 "전국 불교계에서 음악문화공간으로 첫 발자국을 내딛는 작업이기 때문에 걱정도 많다"면서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과 불교음악문화공간에 대한 불자들의 순수한 애정이 느껴져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게 된다"고 말했다.

대구불교음악예술원은 2월 12일 개원식을 가질 예정이며, 노래교실을 비롯한 각종 음악 강좌는 모집기간을 거쳐 3월중 개설될 예정이다. (053)657-2333

배지선 객원기자

"영어 배우러 사찰에 가요"

부산 홍법사 제1회 영어 템플스테이 개최

"I vow to save all beings.(가없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부산 홍법사(주지 심산) 법당에서 열린 스님의 법문 시간. 스님도 아이들도 영어로 법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홍서원을 영어로 말하는 아이들에게 스님은 스티커를 나눠준다. 스티커를 서로 차지하려는 아이들은 저마다 손을 들고 영어 사홍서원을 읽고 뜻을 풀이하고 있다.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홍법사가 처음으로 개최한 영어 템플스테이 현장에서 아이들의 영어 말하기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영어 템플스테이에는 경기도 대전, 대구, 포항, 마산 등에서 40명이 참석해 영어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아이들의 흥미를 끌어내면서도 사찰의 문화를 알뜰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진 프로그램도 눈길을 끌었다. 또한 원어민 강사 4명과 영어에 능통된 자원봉사자 10명이 교사로 아이들의 영어 템플스테이를 도왔다(사진).



발우공양, 예불은 폴란드 출신의 원통스님이 영어로 진행했고, 영어로 작성된 지시문을 읽고 길을 찾는 로드맵 게임, 조별로 나눠 스토리 텔링, 단어 맞추기, 뮤지컬, 영어 찬불 동요 배우기 등을 통해 영어를 자연스럽게 익혀나갔다.

발우공양·예불 등 영어로
놀토 프로그램에 상설화

홍법사는 3월부터 영어 템플스테이를 놀토 체험 학습 프로그램으로 상설화할 예정이다.

주지 심산 스님은 "영어 템플스테이는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사찰에 오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사하불교련 신년하례
4대 회장 보각 스님 취임

사하불교연합회(회장 보각)는 1월 30일 부산 사하구 당리동 사파이어 호텔 대연회장에서 신년하례 법회 및 회장 이·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미룡사 주지 정각, 표충사 주지 청운, 천은사 주지 금종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임채수 법화사상연구소장을 비롯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법회에서는 화엄정사 주지 보각 스님이 4대 회장에 취임했다.

보각 스님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서로 의지하며 사는 생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해처럼 빛나며 존재하는 사하불교연합회가 되겠다"며 "보현보살의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고 봉사하는 연합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각 스님은 법어를 통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불자들의 수행이요 정진"이라며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행하고 실천하는 불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996년 7월 창립된 사하불교연합회는 2004년 3월부터 불교자원봉사회에서 하는 독거노인 무료 공양을 실시해왔으며 2006년 4월부터는 매주 월, 화요일마다 무료 공양을 해오고 있다.

천미희 기자

지율 스님 1년 구형
천성산 공사 방해 이유

천성산 터널 공사 현장에서 공사 방해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지율 스님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1월 31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 김형천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천성산 터널 공사장에서 굴착기 앞을 가로막고 좌선하는 등 총 24회에 걸쳐 고속철도 공사업무를 방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스님은 "공사방해로 인해 사업과 경제적 손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사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율 스님 선고공판은 다음달 9일 오전 10시다.

천미희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경남남부지국 : (011)571-5316
울산지사 : (052)272-0909

지역 대소사 우리가 챙겨요

범어사 포교당 '반야원' 해운대 정화 봉사



겨울바다를 즐기는 사람들이 해운대 백사장을 거닐고 있을 때, 노란 조끼를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바닷가를 따라 늘어선 화단에서 휴지 줍기에 여념이 없다.

해운대 범어사 포교당 반야원(주지 목종) 신도들이다. 반야원 불교대학을 졸업한 신도들로 구성된 봉사 모임 사무량심회(회장 이유식) 회원 25명은 1월 25일 해운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다 깨끗한 부산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봉사에 나섰다(사진).

화단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담배꽁초와 휴지를 줍고 있던 봉사자 방연순(44)씨는 "봉사가 좋아 친구따라 절에 왔는데 불교 공부도 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어 좋다"며 활짝 웃어 보였다.

2006년 10월 창립된 사무량심회는 80여 명의 회원들이 부산진구사회복지기관협의회 봉사자 양성기관 교육을 수료한 후 지역은 물론 불교계 각종 행사에 봉사자로 활동해오다 이 날은 사찰이 있는 지역 내 봉사에 나선 것이다.

한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갖는 정기 봉사활동에서는 대천공원, 팔관회, 범어사 개산대제, 금정노인요양원 개원 전 대청소 등의 청소에 힘을 보탰고, 사무량심회 산하에 관음회라는 별도 봉사회도 만들어 군법당 포교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유식 회장은 "지역 내의 여러 가지 대소사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불교의 사상을 실천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스스로의 정진에도 도움이 되고 대사회적으로 불교의 역할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봉사의 의미를 밝혔다.

천미희 기자

부산불교방송 개국 12주년
박순곤 신임 사장 취임법회

부산불교방송(사장 박순곤)은 2월 1일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국 12주년 기념 및 박순곤 사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는 불교방송 재단이사장 종하,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영주암 회주 정관,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 홍승기 불교방송 사장, 허남식 부산시장 등 6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박순곤 신임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부산불교방송이 포교와 전법의 제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불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전기 신(편)입학 모집**

1969년 설립한 옥천범음회로부터 1987년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로 단체지정 되었습니다.
불교의식과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영산재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록을 향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승려 및 일반인을 모집합니다.
※ 종단을 초월하여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실기, 이론 강의

학 년	강 의 내 용	요 일	시 간	모집인원
1학년	상주권공과(일용의식)	월,수	오후 3시-5시	50명
2학년	각배과	목	오후 3시-5시	50명
3학년	영산과	금	오후 3시-5시	50명
불교무용(작 법)	바라/나비춤/법고춤	화	오후 3시-5시	50명
불교의식(실 기)	시련/대령/관욕 등	화,금	오후 5시-7시	20명
불교의식(이 론)	불교의식 이론	화	오후 1시-3시	재학생
불교음악&무용(이 론)	불교음악/불교무용이론	월	오후 1시-3시	재학생

● 교수진 : 김구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
마일운(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이기봉(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준보유자)
심만춘(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김효성(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 이수자)
김법현(동국대 한국음악과 교수,영산재 이수자)
한해사(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작법 이수자)

2. 응시자격 : 승려, 일반인

3.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제출서류 (1)입학원서
[옥천범음대 http://www.bongwonsa.or.kr/ 다운로드받기]
● 합격후서류 (1)주민등록등본 및 승적증명서 1부
(2)증명사진 3매(반명함)

4.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7년 2월 1일 ~ 3월 2일까지

5. 원서교부 및 인터넷 접수처
옥천 범음대학 교무처 및 인터넷 접수
tnfus0821@naver.com

6.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7. 입학 및 개강일
2007년 3월 5일 월요일 (봉원사 강의실)

8. 특전
●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 및 준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을 받을 수 있음
● 신입생, 재학생 성적 우수자 장학금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9. 문 의 처
120 - 15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동 1번지 봉원사내
옥천범음대 02)392-3234 / FAX 02)393-9450

이수자 및 전수생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이수자(12명) 장병호(청봉) 조광현(혜산) 김재운(선각) 조명환(효광) 오세균(보운) 박성호(처명) 변호근(춘광) 류지언(화산) 심 인(지허) 김혜숙(선혜) 한정미(해사) 신금자(주혜)

전수생(19명) 조보현(고담) 박현일(진현) 이주상(성진) 김광화(광호) 엄인용(인성) 김동찬(동인) 서준석(혜성) 이차복(혜명) 김태곤(만결) 김성욱(구수) 김근선(보덕화) 이영근(법일) 방한열(진원) 김창수(행준) 김민정(동환) 김규운(적광) 장완순(행범) 노명열(혜일) 박태수(광조)

한민족의 따스함 느껴서 '행복'

조선족유학생 18명 영월 법흥사 등서 한국불교 · 문화체험


조선족 유학생들이 윷놀이를 하고 있다.

"불교를 비롯한 한국 역사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돼 기뻐요"

영월 법흥사, 서울 화계사, 한민족클럽은 조선족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1월 26~28일까지 3박4일간 한국불교 문화체험 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한조선족유학생 네트워크 회장 김용선씨를 비롯 간부급 학생 18명이 참가했다.

한국불교 문화체험 캠프는 26일 저녁 서울시 화계사에서 외국인 수행자인 수연 스님과 법광 스님으로부터 한국어로 한국 및 세계불교문화에 대한 특강을 듣는 것으로 시작됐다.

유학생들은 다음날 아침 적멸보궁 법흥사로 향했다. 법흥사에서 이틀 동안 예불, 법고, 범종타종, 108배등의 불교적인 체험을 했다. 또 적멸보궁까지 명상 코스를 산책한 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인 윷놀이 등을 하며 전통문화에 빠져들었다.

유학생들은 법흥사 주지스님과의 대담 시간에 "초청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국에 유학온 조선족 유학생들을 초청하여 이들에게 우리 국민의 관심과 격려를 느끼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법흥사 주지 도완 스님은 "조선족 유학생들에 대한 불교계및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찾아 보겠다"며 "법흥사는 지속적으로 조선족 유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학생들은 법흥사에서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이후 강원도 동해 바다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서강대 사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김용선 씨는 "이번 행사 참여로 인하여 불교에 대한 신비감과 거리감을 없앨 수 있었다"며 "사찰생활을 하면서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고 우리 민족의 따스함과 풍류도 깊게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에 유학온 조선족 유학생들은 4000여명으로 유학생들 간에 재한조선족유학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광주 덕림사 가족법회 열어
전국사경대회 정례화 계획



광주 덕림사(주지 무이)가 1월 26일 시내 음식점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맞이 가족법회를 갖고 2007년을 수행 및 포교 도약의 해로 선언했다(사진).

이날 덕림사는 영상물을 통해 덕림사의 과거와 현재를 되돌아보고 다양한 수행,포교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주지 무이 스님은 인사말에서 "다가오는 22세기는 문화시대이다"며 "불교문화를 통해 세상을 맑고 향기롭게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자"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한 "불교문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개최한 전국불교사진전의 규모를 확대하고 새롭게 전국사경대회를 신설해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덕림사는 가족법회와 함께 거룩한 만남(경전반) 2기 졸업식을 거행했다. 이날 21명의 학인이 1년간 경전강좌를 마치고 영예의 졸업장을 받았다. 덕림사는 오는 3월 21일 지장보살상(시지정 유형문화재 27호) 복장의식 및 국제보살계를 봉행한다.

이준엽 기자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새



윤예중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사무국장

빛고을(光州)불교가 젊어지고 있다. 대중법회에 젊은 불자들의 참여가 눈에 띄게 다르다. 관공서마다 불자회가 창립되고, 단주나 불교용품을 몸에 지니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무엇보다 신행 및 불교관련 단체에 젊은 활동가들이 모여들고 있어 광주불교의 앞날을 밝게 한다. 3-4년 전부터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일꾼 10여명이 모여들었기 때문이다.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지역본부장 현지 스님. 이하 광주 생명나눔) 윤예중 사무국장(日峰. 39)도 그중 한사람이다.

2005년, 광주 생명나눔 살림살이를 맡은 윤 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골수기증 429명, 사후시신기증 110명, 뇌사시 장기기증 108명 등 총 774건에 이르는 장기기증 실적을 올렸다. 지난 9년간 2600여건의 장기기증이 있었고, 그 가운데 약 30%를 한 해 동안 이룬 것이다.

또한 소아암 투병환우 지원사업으로 나눔행사와 나눔의집 운영, 나눔돼지 분양 등으로 모금된 성금 5500여만원을 환우들에게 전달했다. 60여명에 불과하던 후원회원이 한 해 동안 220여명으로 급증한 것만 보아도 광주 생명나눔의 왕성한 활동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활동으로 광주 생명나눔은 장기기증에 있어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로 우뚝 섰다.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이룬 성과입니다. 저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지난 1월 30일, '광주 생명나눔 2007년도 총회'를 마친 윤 국장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룬 성과에 대해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금년에는 향후 10년을 준비하는 기획단을 구성해 자비를 실천하는 불교시민단체의 전형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고등학교시절 광주 용화정사 학생회활동을 하면서 불교와의 만남을 시작했다. 대학교(항공대)에 가서는 대불련 활동을 하면서 불교의 사회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한국불교대학생 불교학생회 28년차 회장을 맡아 전국 200여 지회 3만여명의 회원들을 이끌기도 했다.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참여하는 불교'를 서원한 윤 국장은 2001년 땅끝 해남 대흥사 기획실장을 맡아 본격적인 불교활동가로 나섰다.

산사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산문을 개방한 '대흥사 새벽숲길'은 2002년 월드컵과 함께 전국에 '템플 스테이'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서산대제, 초의문화재, 어린이 한문학당, 해남 불교대학 등의 실무를 맡아 지역사회와 불교가 하나되도록 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새해들어 광주 생명나눔은 혈액은행 사업을 펼치는 '빛고을 사랑운동'과 소아암백혈병 치료기금 마련을 위한 '생명나눔 광주시민 희망걷기대회' 등 특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생명을 나누는 장기기증 운동을 불자뿐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승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장기기증은 현대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기이식만이 마지막 치료수단인 환우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보시행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불제자로 거듭나는 장기기증과 후원회에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후원문의: 062-234-6602)

이준엽 기자

작년부터 활동, 한해동안 장기기증 774건 '실적'
불자 · 시민 함께 참여하는 생명나눔운동 준비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향으로 건강 찾고 명상으로 마음 챙기세요"

interview

거창 달마사 청오 스님


정각향 전용 향로.

"달마사에 오는 분들은 모두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창 달마사 주지 청오 스님은 우리나라 전통천연향인 정각향의 전수자다. 스님은 집안 대대로 불모일을 해왔다. 외할아버지는 정각향을 이었고, 아버지는 부처님을 조성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를 따라 정각향 만들기를 배웠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아버지를 따라 부처님 조성에 매달렸다.

그러다보니 정각향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냈다. "요즘 말로 한창 잘 나가던 때 꿈에 나타난 도인이 머지않아 죽을건데 계속 이 일에 매달려 있을건지 야단을 치셨다"는 스님은 두 번 이상 그 도인 꿈을 꾸고는 도자기에 손을 대게 됐다.

우연히 도자기 공장에서 스님에게 작업을 요청한 것. 모든 것을 홀홀 던지고 몰두한 일이 황토로 꿈속의 도인을 빚어내는 일이었다. 일심으로 매달렸다. 곧 죽는다는 날짜를 넘기고 장장 3년이나 걸려서 만들어낸 도인은 달마대사. 그렇게 황토달마를 만들어냈고 무료 보급에 나섰다.

"달마대사가 저를 이끌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덕유산 자락에 달마사를 창건한 것도 달마대사의 힘이었죠."

죽음의 고비를 넘긴 후 보너스로 생긴 삶, 아픈 이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전수했던 산야초로 만드는 정각향을 다시 복원하기로 했다. 지리산을 헤메다니며 손끝이 죄다 헤지도록 약초를 채집해 향을 만들어냈다. 스님이 만든 정각향은 불을 붙여 피우는 향이 아니어서 더욱 독특하다. 천연 산야초를 물과 함께 피우는 향으로 가습효과도 더해져 아파트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머리가 맑아지고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 때문에 천연 가습 · 공기청정기를 대신한다.

청오 스님은 "달마복등, 아미수, 산야초향으로 건강을 찾고 명상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정비하는 것도 좋은 수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055)941-1083

강지연 기자



집안 대대로 佛母일 해와
황토달마대사 무료 보급도
산야초 원료로 정각향 복원
머리 맑고 피로회복 효과

세계에서 제일 큰 의과대학

2007년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모집

www.njutcm.edu.cn

1. 남경중의약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 의 학 과	5년	40명 (내신 80점 이상)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건강진단서 1통(영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 사 과 정	3년	5명 (평점3.5이상)	
박 사 과 정	3년	2명	

2. 학교 소개

· 중국최고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식당완비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 홈페이지 www.njutcm.edu.cn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삼화불교대학 교학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1월 26일까지

5. 문 의 처

· 주 소 : 中國 南京市 亞凍 仙林大學城 南京中醫藥大學
· 전 화 : 25-6798167 /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조계종 삼화불교대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511-2026~7, 1080 / 팩스 : 511-2028
· 인터넷홈페이지 www.njutcm.co.kr

조기유학생모집
초 · 중 · 고1,2학년(남경국제학교)
♣제출서류
· 최종 재학 및 졸업증명서 · 건강진단서
· 여권사진10매 · 입학신청서 1통

2006년 본과 합격자 명단

-본과 합격자 -
▲강민정(경희대학원) ▲이가성(연세대) ▲한효정(단국대)
▲이정화(건국대) ▲서연호(한국항공대) ▲박병수(명지대)
▲박영문(명지대) ▲강성우(호남대) ▲이경환(배재대)
▲이종환(우석대) ▲김재문(경남대) ▲최종건(UCLA)
▲황진영(유성여고) ▲이창영(마산고) ▲황성환(대건고)
▲정재형(성문고) ▲박은수(대덕고) ▲박상준(구정고)
▲이상훈(성신고) ▲박민수(화수고) ▲이원영(동지고)
▲김인환(인항고) ▲박선규(반포고) ▲송미나(광주여고)
▲김민성(휘문고) ▲김준호(배문고) ▲김정우(현대고)

-석사과정 합격자-
▲신병룡(경희대 한의학과) ▲김병호(경희대 한의학과)
▲이종섭(경희대 한의학과) ▲송인종(북경중의대 한의학과)

남경중의약대학
(南京中醫藥大學)

일주문



청소년 스키캠프 개최

먹거리나누기운동협의회 공동대표 지현 스님은 2월 1~2일 빈곤계층 청소년 200명을 대상으로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2007 행복나눔 청소년 스키캠프'를 개최했다.



우리농촌 살리기 발대식

원주 구룡사 주지 자광 스님은 2월 4일 구룡사에서 '2007 우리농촌 살리기 발대 선포식 대법회'를 봉행했다.



지장보살탱화 점안식 봉행

분당 해원사 주지 해원 스님은 2월 24일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을 초청 법사로 지장보살탱화 점안식을 봉행한다.(031)736-3734



감사원불자회장 선출

감사원 자치행정감사본부장 조현명씨는 1월 23일 열린 감사원불자회 총회에서 감사원불자회장에 선출됐다.



마인드코칭연구소 개소

방기연 (주)마인드코칭연구소 소장은 2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이화동에 상담전문 연구기관 마인드코칭연구소를 개소한다.(02)763-3478

천태종 기획실장 용암 · 교육부장 세운 스님



용암 스님



세운 스님

천태종 총무원 초대 기획실장에 교육부장 용암 스님이 임명됐다. 또 신임 교육부장에는 서울 삼룡사 주지 세운 스님이 맡게 됐다.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은 1월 27일 구인사 설법보전에서 용암 스님과 세운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원우 기자



생활불교 조계종 벽봉 스님 종정 추대

한국생활불교 조계종(총무원장 도법)은 1월 23일 대구 제이에스호텔에서 원로원 및 각 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벽봉 스님(진주 영광사)을 초대 종정으로 추대했다.

김원우 기자

"기강 위험 수위…삼보정재 귀히 여겨야"

조계종 호계원 월서 스님 · 법등 스님 원장 이취임

조계종의 사법기관인 호계원의 전 · 현직 수장이 1월 29일 한 자리에 섰다. 월서 스님은 떠나는 원장으로, 법등 스님은 새로 취임하는 원장으로 마주했다.

두 전 · 현직 호계원장은 최근 불거진 종단 내 불미스러운 여러 사건에 대해 우려와 염려의 말을 쏟아냈다.

전임 호계원장 월서 스님은 1995년 초심호계원장을 맡은 이후 1999년부터 호계원장을 맡아 12년을 호계원에 몸담았다. 총무원장이 다섯 번이나 바뀐 세월이다. 이임의 글에서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그간의 심경을 드러냈다.

그러나 현 종단의 기강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감증에 이르렀다" "위험수위에 올랐다" 등으로 심각성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호계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후임 법등 스님에게 도덕성과 청정성을 회복하는 원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위기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얼마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발언과는 사뭇 달랐다.



조계종 호계원장 이취임식에서 손을 맞잡은 신임 호계원장 법등 스님(왼쪽)과 전임 호계원장 월서 스님.

신임 호계원장 법등 스님도 전임 원장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한걸음 더 나아갔다. '정계호지(淨戒護持)'를 근본으로 삼고 '평등과 형평'을 원칙으로 종단의 위상 회복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신임 호계원장 법등 스님은 "사부대중의 시선이 호계원의 역할과 기능에 쏠려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스스로에게 주어진 책임을 에둘러 표현했다.

취임의 소신도 내보였다. "삼보정재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된 심판 지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것"이라며 종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음식문화 바꿔 건강한 삶 찾도록…"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 회장 선재 스님

음식으로 인해 몸이 병드는 세상이다. 아토피나 성인병 같은 현대인이 앓는 병의 대부분은 잘못된 먹을거리에서 비롯된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자연의 이치에 따르는 '사찰음식'이 우리 식생활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인스턴트식품의 범람으로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가 변질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질병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는 사찰음식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인 연구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1월 29일 출범한 '전통사찰음식문화보존회(이하 사찰음식보존회)' 회장을 맡은 선재 스님의 어깨가 무겁다. 최근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연구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이다.

"그간 사찰음식에 대한 연구는 몇몇 전문가 스님들에 의해 개별적으로 진행돼왔습니다. 사찰음식보존회는 사찰음식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인 연구를 이뤄나갈 것입니다."

사찰음식보존회는 사업 방향을 연구와 교육, 대외 · 홍보의 세 가지로 정했다. 불교의 음식문화에 대한 경전적 근거를 수집하고 요리법에 관한 표준화 교재도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 사업과 함께 승 · 재가 교육을 실시해 수행자들과 현대인들의 올바른 음식문화를 이끌어 간다.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개최 등 대외 · 홍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참살이 문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장기 계획도 세웠다.

"사찰음식 연구 · 보급의 거점이 될 '사찰음식문화전수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수령 기자

건양대병원 영산대재



건양대병원(원장 김종우)이 환자가족을 위한 영산재를 1월 27일 대전캠퍼스 명곡홀에서 개최했다. 영산재는 원허 스님 등 13명의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이 시연했다. 건양대 병원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극락왕생의 세계에 이르도록 위로하는 의미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

비구니 청림회 화합 축제



대전 비구니 청림회(회장 영진)는 1월 26일 충남대 정심화홀에서 제21회 성도재일 불자화합 대축제를 개최했다. 승가원 이사장 종범 스님 초청 법문강연과 음악회로 진행된 행사에서 청림회는 보문고 학생 10명에게 장학금 각각 30만원을, 충남대에 포교 지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대불청 회장단 이 · 취임식



대한불교청년회는 1월 2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23 · 24대 회장단 이 · 취임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대한불교청년회 박법수 신임회장, 대한불교청년회 김익석 전임회장,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청주청원불교 신년교례회



청주청원불교연합회 신년교례회와 제11대 회장 각의 스님 취임식이 1월 30일 청주 금천동 일산프라자에서 봉행됐다. 신년교례회에는 고문 원봉 보안 스님, 태고종 충북종무원장 원해 스님, 천태종 명장사 주지 화산 스님과 이재충 충북행정부지사, 이기용 충북교육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의왕 직장 · 직능단체 신년하례회



청계사는 1월 29일 서울구치소 강당에서 2007년도 의왕시 직장 · 직능단체 신년하례법회를 개최했다. 법회에는 의왕시공무원불자회, 서울구치소불심회, 운불련(의왕, 군포, 안양, 과천) 회원 230여명이 참석했다. 지도법사 성행 스님은 "신행생활과 더불어 전법활동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우승가대학 (2007년도 신입생 모집 안내)

◆지금! 사찰발전에 필요한 실제적 이론과 의식을 최우선으로 배울 학인을 위한 교육기관입니다. ◆1주일에 2일만 할애하면 교수님들의 열의와 교육제도로 실력을 완성해 드립니다.

1.입 학 안 내

① 모집학과 및 정원 ● 불교학과 : 30명 ● 범패학과 : 30명 ● 불교문화예술학과 : 30명

② 응시자격
- 신입생 : 불교적 소양과 도타운 신심을 가진 성인
- 편입생 : 지원학과에 걸맞는 실력을 갖춘 이

③ 모집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④ 원서교부및 접수
- 장 소 : 본교 교학처 ☎ 02)763-5213
- 기 간 : 2007년 1월 15일 ~ 2월 26일

⑤ 제출서류
1.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반명함판 사진 (3cm×4cm) 3매
4. 종단추천경우 : 종단 대표자 추천서 1통

2. 면 접 일 시 ● 2007년 2월 27일 오후 2시

3.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판

4.교 과 목

불교학과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철학개론(동양, 서양), 비교종교학, 초발심자경문, 교리발달사, 사미율의(기초의식), 원전강독(금강경, 원각경, 화엄경), 구사유식, 계율론, 대승사상, 밀교개론, 사원경영(종무행정, 상담), 선학개론, 포교학, 불교와 사회복지
범패학과	상주권공(시련, 대령, 관욕, 신중작법, 관음 시식, 화청), 작법무 (나비춤, 바라춤, 법고춤), 불교의식 이론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불교문화 예술학과	재설비 (도량장엄, 불단장엄, 고임새, 지화), 전통수가사, 서예(기초,장엄서예) 불교학개론, 불교사(인도, 중국, 한국), 계율론, 선학개론, 교리발달사, 포교학
특 강	◆ 생활역학 : 명리학 이론과 실전, 길흉방위, 풍수지리,작명,택일, 궁합. ◆ 호 적 : 천수가락, 염불가락, 요잡가락, 능게가락, 취타가락

5.교 수 진 신규탁(연세대교수),김영진(동국대교수),김치온(동국대교수),문무왕(동국대교수), 이효원(한국종교문화연구원),일휴스님(경산강원 강주), 지홍스님(승가대이사장), 금담스님(승가대부학장), 능해스님(승가대교수),경허스님(승가대교수), 대각스님(승가대교수),대혜스님(승가대교수),백영혁(승가대교수)외 교내외석학

6.문 의 (02)763-5213. www.boweosamgha.com

보 우 승 가 대 학 학 장

“검은 대륙에 자비를”

동봉 스님,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 ·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기원

‘101 국토대장정’ 현장

‘2006년 11월 30일. 날씨: 흐림. 40km를 행군했다. 행군하는 내내 <금강경>을 염했다. 갈증을 느끼고 발가락에 통증을 느낄 때 마다 내가 직접 쓰고 낭독한 <고불문>의 내용을 되새김질 했다’

‘2007년 1월 20일. 날씨: 흐른 후 비. 나는 오늘도 길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보고도 놓치고 말았다. 아!아!아! 아직도 눈뜬장님이란 말인가.(중략) 오토바이를 탄 칠순 노인이 “스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우실텐데 따뜻한 물 한잔 잡수이소~.”하며 나에게 감로수를 건네고 홀연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그 칠순노인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 하다.’

한국불교 아프리카 진출 발원과 2014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원을 위해 2006년 11월 30일 ‘101일 국토대장정’에 오른 동봉 스님의 일기장. 장정 62일째인 1월 30일, 폭설경보가 발효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봉 스님과 성재경 시인은 전남 강진을 지나 목포를 향해 강행군하고 있었다.

영하 10도의 혹한 속에서 계속해서 길을 걷고 있는 스님에게 대장정에 나선 이유를 물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는 지금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을 간절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아사 직전에 처한 아이들과 이름도 모를 희귀병에 걸려 몸부림 치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들에게는 부처님 법과 말씀 이전에 한 조각 빵과 페니실린 주사 한방이 더 절실합니다. 저의 이 같은 국토대장정의 작은 기도가 불자님들의 큰 원력과 뜻을 함께해 아프리카에 희망과 자비의 한국불교를 전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아시아 다음으로 큰 대륙으로 53개 나라에 9억2400만 명이 살고 있다. 이 ‘검은 대륙’에 중국과 일본 등 열강들은 건설 사업을 비롯한 경제 개발에 엄청난 공력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2천년 동안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아직까지 아프리카에 단 한 발자국도 내딛지 않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아프리카를 다섯 차례 방문한 스님은 ‘한국불교계의 아프리카 통’으로 알려져 있다. 스님은 또 현재 동아프리카 탄자니아 마운틴 킬리만자로 ‘한국문화아카데미 보리가람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보리가람’을 통해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친다는 것. 보리가람 건립을 위해서는 총 4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이번 국토대장정에는 불자뿐만 아니라 기업인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1월 15일 동봉 스님이 김해에 들렀을 때 태광실업(회장 박연차) 측은 5억원의 기금 전달을 약속하기도 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한날에도 뜻있는 불자 2명이 스님과 2박 3일 동안만이라도 뜻을 함께하고 싶다며 강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목포를 향해 걷고 있었다.

1시간 남짓 스님과 함께 5km쯤 걸었을까. 동봉 스님과 국토대장정을 함께하고 있는 자칭 ‘스님이 영원한 도반’ 성재경 시인이 너털웃음을 지으며 자동차가 있는 곳으로 오라며 손짓한다. 성재경 시인은 지프차를 몰고 동봉 스님의 국토대장정을 에스코트하고 있다. 그의 지프차 안에는 노트북, 식기류, 이불, 구급약, 엠프, 도서, 지도, 식수 등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만물상점을 방불케 하는 차안을 보고 넋을 잃은 기자에게 성 시인이 말했다.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군청이나 시청에 들러 ‘101 국토대장정’을 홍보하기도 하고, 시골 5일장 등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에서는 즉석해서 시(詩)를 써 주거나 시 낭송을 하려면 필요한 물건들 이죠.” 2006년 12월 17일 강원도 강릉에서 동계올림픽 유치를 기원하면서 시낭송 시간을 가졌을 때는 가히 폭발적인 인기였다. “스님 시 낭송 감사합니다. 먼 길 떠나시는데 여비에 보태 쓰세요”라며 극구 3만원을 바랑에 밀어 넣어주는 보살님 등등.

그간 있었던 해프닝들을 입담 좋은 성 시인에게 듣고 있노라니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났다. “아차”싶어 연신 걷고 있는 동봉 스님에게 달려갔다. “스님 대장정을 하면서 제일 힘든 점은 뭔가요?” “그야 사람들의 무관심이죠. 처음엔 발에 물집이 생겨서 걷는 게 힘들다거나 비나 눈이 내려서 행군에 지장이 있을 때가 곤혹스러웠지만 육신의 고통보다는 사람들이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제일 힘듭니다.”


동봉 스님(사진 오른쪽)과 성재경 시인이 대장정 일정 체크를 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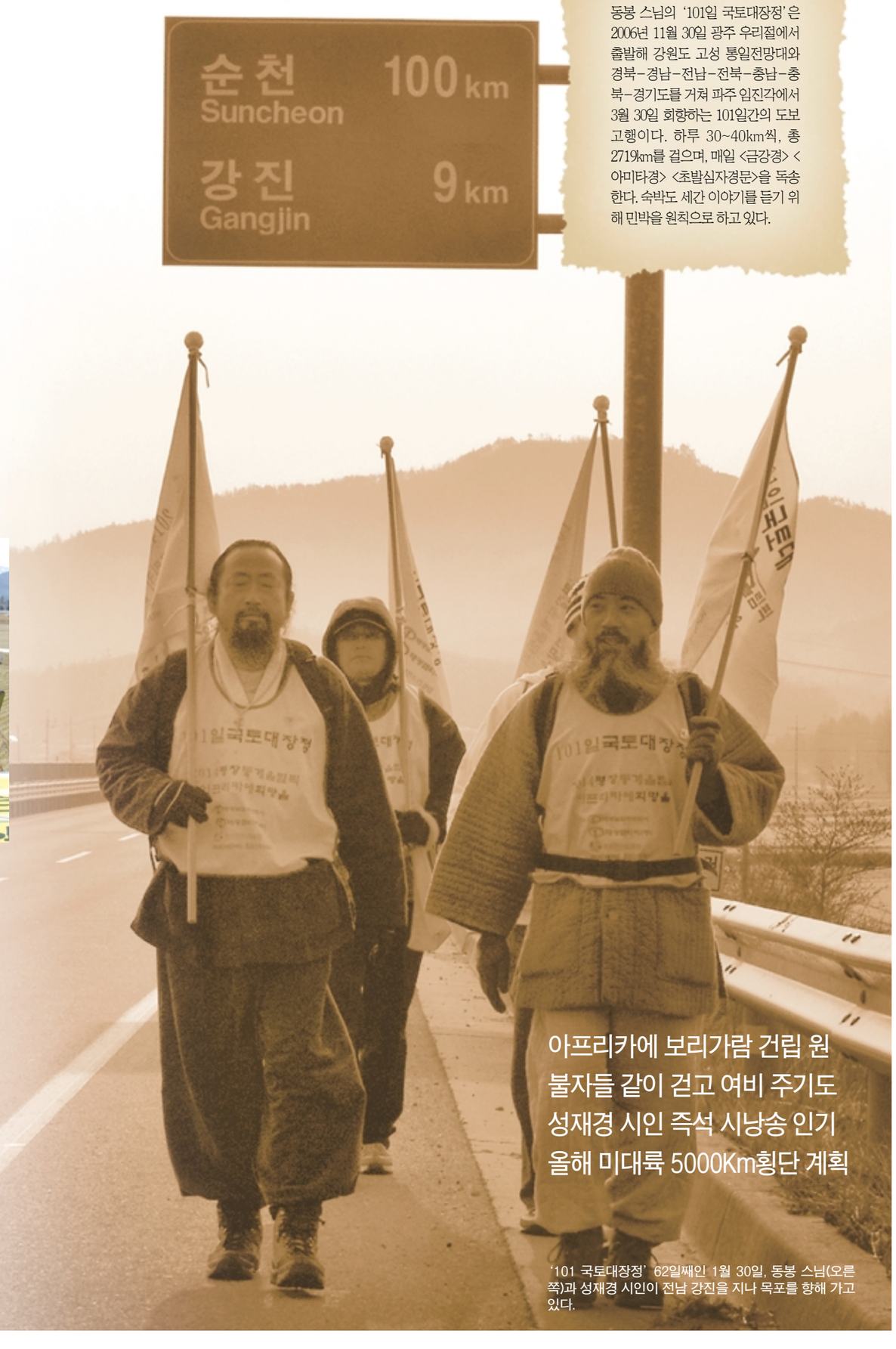
“스님. 이번 대장정이 끝나면 아프리카로 바로 떠나실 건가요?” “아니요. 올 중반부터 L.A부터 뉴욕까지 5000km 미국 대륙 횡단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아프리카 진출이라는 포교 원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입니다.”

마음을 숙연하게 하는 원력 때문일까? 흐린 길을 걸으며 듣는 스님의 목소리는 힘차고 맑았다. “진정한 보시는 ‘잘 먹고 잘사는 사람에게 1000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에게 1만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프리카에서 기아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일은 아프리카 정부와 UN이 몫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몫이 아닐까요?”

강진/글 · 사진=노병철 기자

‘101일 국토대장정’ 일정

동봉 스님의 ‘101일 국토대장정’은 2006년 11월 30일 광주 우리절에서 출발해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와 경북-경남-전남-전북-충남-충북-경기도를 거쳐 파주 임진각에서 3월 30일 회향하는 101일간의 도보 고행이다. 하루 30~40km씩, 총 2719km를 걸으며, 매일 <금강경> <아미타경> <초발심자경문>을 독송한다. 숙박도 세간 이야기를 듣기 위해 민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프리카에 보리가람 건립 원
불자들 같이 걷고 여비 주기도
성재경 시인 즉석 시낭송 인기
올해 미대륙 5000Km횡단 계획

‘101 국토대장정’ 62일째인 1월 30일, 동봉 스님(오른쪽)과 성재경 시인이 전남 강진을 지나 목포를 향해 가고 있다.

바로보인의 책들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 저서

전강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억겁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禪법문!



*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바로보인 무문관
* 바로보인 벽암록
* 바로보인 천부경
* 바로보인 금강경
* 바로보인 신심명
*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 바로보인 증도가
* 바로보인 선가귀감
* 바로보인 반야심경
*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30권 중 10권
* 영원한현실
* 선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 앞뜰에 국화꽃 곱고 북산에 첫눈 희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에서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께서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선(禪) 법문 안내>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법회가 3월 4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법회입니다. ☎02-522-0122
*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송 / 2월18일(매월 셋째주 일요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051-545-2460
금강경 / 2월25일(매월 넷째주 일요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바로보인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56>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한다면

집을 떠나 깨달음을 이루고자 출가한 사람들을 우리는 스님이라고 한다. 원효 스님은 <발심수행장>에서 "마음속에 있는 애욕을 버리고 세상의 삶에 연연해 하지 않는 사람을 출가한 스님이라 한다"라고 말하였다. 먹물 옷을 입고 삭발한 스님들의 차림새는 세상 사람들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런 품새로 사는 까닭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떠나 오로지 부처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스님이란 먼저 부처님의 법을 배워 그 가르침에 정통해야 하고 그 근본 뜻을 깨우쳐야 한다. 그런데 이 공부를 이루기도 전에 부처님 공부와 상관이 없는 다른 곳에 마음을 쓴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일이다. 수행자의 옷차림을 하고서 남에게 보여주고 자랑하기 위해서 다른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속의 명예와 이익을 얻기 위한 탐욕이나 다름없다. 이런 수행자의 모습을 원효 스님은 "세상 사람을 속이려고 마치 굶주린 개가 코끼리 가죽을 뒤집어쓰고 있는 것과 같다"[狗被象皮]라고 하였다. <선가귀감> 56장에서 말한다.

出家人 習外典 如以刀割泥 泥無所用 而刀自傷焉

출가한 사람이 외전을 공부하는 것은 마치 칼로 끈적끈적한 진흙을 자르는 것과 같다. 잘라진 진흙은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예리한 칼만 망가지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출가인(出家人)은 집과 세상살이를 떠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배우고 수행하여 부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을 말한다. 부지런히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닦아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없애 마음의 근본자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이다. <아함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이르기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떠나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서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 바깥의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감싸 조금도 해를 끼치려는 마음이 없다. 즐거운 일이 생겨도 기쁘다고 마음이 들뜨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크고 넓은 대지처럼 모든 것을 감싸고 잘 참아내 수행하므로 출가한 스님이라고 한다(捨離恩愛 出家修道 攝御諸根 不染外欲 慈心一切 無所傷害 遇樂不欣 逢苦不戚 能忍如地 故名沙門)"라고 하였다.

출가인을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면 그 의미가 더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째 몸은 출가했지만 마음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다. 겉은 출가한 사람의 모습인데 쓰는 마음이 아직 세상일에 관심이 많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세속 사람과 똑같기 때문이다. 세속의 옷을 수행자의 옷으로만 바꾸어 입었을 뿐으로 출가해도 별로 이익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 마음은 출가했으나 몸은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다. 세속에 살지만 언제나 수행에 힘쓰고 사는 사람이니, 중국의 방거사 인도의 유마거사 한국의 부설거사와 같은 분들이다. 셋째는 몸과 마음이 모두 출가하지 못한 사람이다. 부처님의 법을 모르고 세속의 욕망에 휩싸여 사는 사람이다. 넷째 몸도 마음도 다 함께 출가한 사람이다. 겉도 출가인의 모습이고 마음을 쓰고 살아가는 것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호심출가(好心出家)라고 한다.

중생들 교화 위해 다른 공부 참고할 수 있으나 부처님 가르침 놓고 외전 마음쓰면 수행에 害

갓 출가한 사람들을 위한 책 <사미율의>에서 몸도 마음도 다함께 출가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출가한 스님이란 생로병사에 중생의 고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중생계의 모든 것이 덧없어 자신의 것으로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아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육친의 지극한 은혜와 사랑도 거리낌 없이 사양하며 오욕의 깊은 집착을 떨쳐버리려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가짐이므로 세속의 명예와 이익에 넘어갈 사람도 아니다. 사회생활에 실패하여 세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사는 사람도 아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부처님의 힘을 빌려 구차하게 생활을 유지하려는 것도 아니다. 넉넉한 절집살림살이 덕에 게을리 살며 편안한 생활을 훔치려는 것도 아니다. 오직 생사의 고통을 벗어나 깨달음을 위하여 깊은 믿음을 가지고 출가한 사람이다(怖四怨之多苦 厭三界之無常 辭六親之至愛 捨五欲之深着 不爲名利所牽 不爲王力所逼 不爲邪求活命 不爲避懶偸安 爲生死爲菩提 持信出家)"

출가한 사람이라면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지 못한다면 출가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긴 경전과 선서, 어록은 내전이라 하고 부처님 가르침 이외의 세간의 모든 종교와 사상을 담은 책들을 외전이라고 한다. 외전을 가까이 하는 것에 대하여 <대론(大論)>에서 말하기를 "외도의 경전을 읽고 배우는 것은 마치 칼로 끈적끈적한 진흙을 자르는 것과 같다. 진흙이 뜻대로 잘라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칼을 쓰면 쓸수록 칼만 망가진다(習外道典者 如以刀割泥 泥無所成 而刀日損)"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외도의 경전을 읽는 것은 태양빛을 보는 것과 같아 사람의 눈만 멀어진다(讀外道典者 如視日光 令人眼暗)"라고 하였다. 이처럼 출가한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놓아두고 다른 공부에 마음을 쓰고 있다면 동쪽으로 가야 하는데도 서쪽 길로 가는 것과 같으니 부처님의 공부와는 점점 멀어져 출가의 의미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외전보는 것을 무조건 금한 것은 아니다. <유부비내야잡사(有部毘奈耶雜事)>나 <보살지지경(菩薩地持經)>을 보면 "불교도들이 부처님 경전 이외에 다른 책들을 절대로 보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비구들은 분명히 다른 책들을 섭렵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하여 공부를 많이 한 비구들이라면 공부하는 시간의 삼분의 일은 다른 책들을 읽고 연구해도 좋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뒷날 부처님 가르침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설득할 준비를 하는 것이며, 혹 세간에서 일어나는 여법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준비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속을 떠나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중생들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쓸 목적이라면 외전일지라도 참고로 볼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을 잘 모르면서 세속의 잡서에 취미를 붙이거나 그것에 몰두하여 문학이나 예술을 익힌다는 것은 칼로 진흙을 자르는 것처럼 수행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 이것은 출가한 사람이 세상살이에 다시 뛰어드는 격이다. 마치 <법화경>의 비유처럼 아버지가 아이들을 불타는 집에서 구하기 위하여 장난감과 보배가 가득한 수레를 주겠다고 방편으로 설득하여 가까스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위험을 모르고 아이들이 다시 불타는 집으로 뛰어드는 것과 같아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 수 없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門外長者子 還入火宅中

문 밖에 나와 있던 장자네 아이들이 다시 불붙은 집 안으로 들어가도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상식

식차마나니계(式叉摩那尼戒)

조계종은 최근 제15회 식차마나니계(式叉摩那尼戒) 수계산림 봉행 일정을 공지했습니다. 4월 9일부터 사흘간 직지사에서 열릴 이번 수계산림은 2005년도까지 사미니계를 수지한 사미니로서 강원이나 동국대 불교대, 중앙승가대, 기본선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가자에게는 '식차마나니계'가 다소 생소할 텐데요. 간단히 말하면, 식차마나(式叉摩那)가 되기 위해 받는 계(戒)를 뜻합니다. 식차마나란 사미 · 사미니 · 식차마나 · 비구 · 비구니 등으로 구별되는 출가대중 다섯 부류 중 하나입니다.

남성출가자가 '행자→사미→비구'의 과정을 거친다면, 여성출가자는 '행자→사미→식차마나니→비구니'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식차마나는 여성출가자들에게만 있는 단계로, 식차마나니는 2년 동안 미리 구족계의 계품과 위의를 배워 익혀 구족계를 받을 만한 계체(戒體)를 이뤄야 합니다.

<식차마나니계본>에는 식차마나니가 배워야 할 네 가지 근본과 여섯 가지 법, 292가지 위의(威儀)가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네 가지 근본은 △음욕을 행하지 말 것 △도둑질 하지 말 것 △살아 있는 중생의 목숨을 끊지 말 것 △농담이라도 거짓말 하지 말 것 등입니다.

"계행(戒行)은 모든 도과(道果)에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고해(苦海)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또한 일체선과(一切善果)의 근본"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을 때 스님들의 위의는 한층 빛을 발할 겁니다.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5>

랜드 보고서

미국 랜드연구소에서 2020년까지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 16개를 발표하였다. 그중 8개가 생명과학 분야, 5개가 IT 분야이고 그 다음이 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싸게 짓는 집 등이다. 과연 예측이 맞아 떨어질지는 모르지만 참고해야 할 만한 가치는 있다.

산업혁명을 경험한 서구인들은 한국인을 포함한 동양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경험이 있다. 그것은 과학기술을 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틀을 만든 경험이다. 예를 들어, 비행기 자동차 전화 영화 TV 반도체 등 우리의 생활, 경제, 심지어 정신적인 지

인류 영향줄 기술 생명과학 포함 16개 발표 도구 넘어 인간 · 자연 조화된 행복 기여해야

평을 바꾼 발명들이 서구에서 나왔다. 혹자는 서구인은 물질문명을 발전시켰고, 동양인은 정신문명을 발전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시각이다. 서구인도 정신문명을 발전시켰으며, 동양인 역시 물질문명을 발전시켜왔다. 유럽의 도서관을 가본 사람은 서구인들이 얼마나 찬란한 정신문명을 발전켰는지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타이베이의 고궁박물관을 방문한 사람은 동양인들이 얼마나 기술을 정교하게 발전시켰는지 보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문명을 결정지은 발명품들이 왜 동양에서 발명되지 않았는가는 신기하게 생각된다. 이유 중 하나는 데카르트 이후 발전한 수학과 수학에 기초한 과학의 발전이다. 예전에는 기술이 과학과 무관하게 발전되었지만, 근대이후 기술은 모두 과학에 근거한 것이다. 요즈음 비행기나 자동차의 설계에서 미분방정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고층건물, 터널, 교량에 이르기까지 유체역학과 구조역학에 기초해서 설계한다. 근대 동양이 뒤진 이유를 과학과 수학의 발전 기회를 놓친 데서 찾을 수 있다.

요즈음도 새로운 과학적인 발명과 발견이 서구에서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러한 전통과 경험 때문일 것이다. 짧은 시간에 반도체, 자동차, 철강, 그리고 조선 산업을 받아들여서 세계 제1의 기술국가가 되었지만, 아직 문화에는 과학기술이 충분히 젖어있지 않다. 과학기술의 깊이 있는 이해가 있어야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정신도 꽃필 수 있을 것이다.

21세기가 어떤 모습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과학의 종말을 이야기한다. 혹자는 마지막 남은 과학기술 분야를 정신과학을 포함한 생명과학으로 꼽기도 한다. 정신마저도 과학기술로 기술하고 제어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혹자는 동양의 정신에서 인류의 복음을 찾기도 한다. 대부분 동양제국에서 잃어버린 불교의 정수를 잘 간직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과학기술을 짧은 시간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한국이 세계의 횃불이 될 수 있다. 랜드보고서가 예측한 16개 기술 분야가 단지 인간의 편리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그리고 자연을 조화된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현대를 사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불자의 몫일 것이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기초반 10기, 경전반 8기, 야간반 3기

2007년 3월 개강

안양불교대학신입생모집



▣ 기초반 : 기초교리 ▣ 경전반 : 금강경, 반야경

▣ 야간반 : 기초교리, 금강경

연령, 학력 성별 제한없음(선착순모집)

기 초 반	화, 목	오후 14시~16시
경 전 반	금	오후 14시~16시
야 간 반	수	오후 19시~21시

금강경강의 권기종 동국대교수

大韓佛敎 曹溪宗
地藏禪院 安養佛敎大學 財團法人 曹溪宗 安養佛敎文化院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124번지

문의전화 ☎ 031)444-5935~6

한국불교법사대학에서

불교 법사로서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보십시오.

출강 통신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16년의 역사와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자격을 여법히 갖추시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07학년도 제16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 법사가 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③ 불교이론과 의식실기가 겸비됩니다.
④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교육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제출서류	입학원서 1부, 사진 2매, 주민등록등본 1부
교육기간	• 법사과정 = 1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법사과정 = 2년 (교과목 및 불교의식) • 불학연구원과정 = 5년 (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 교육원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7년 2월 23일까지(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
부산교육원 (우편 · 팩스 접수가능)

입학안내 02)720-1836 733-1959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 팩스 02)737-5305

고산 스님 (쌍계사 조실)



고산 스님이 월호 스님에게 호가 적혀진 종이를 전달하며 전강의식을 마무리지었다.

“후배 가르칠 자격 있다” 월호 스님에게 호 내리고 전강

하늘에서 하늘거리며 내리는 눈도 축하의 기운을 담뿍 머금었다. 1월 21일 하동 쌍계사 대웅전 앞은 흥겨운 잔치 분위기로 들썩였다. 쌍계사 대웅전 준공식, 전강식, 건당식, 조실 고산 스님 생신잔치까지 열렸기 때문이다.

대웅전에서 열린 쌍계사 대웅전 준공식에서 고산 스님은 “우리 몸이 닿는 곳마다 발 가는 곳마다 다 안락국토 극락세계”임을 강조했다.

스님은 또 “항상 마음을 활짝 열어서 바라보면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극락국토고 부처님의 국토 아닌 곳이 없다”며 “천년고찰 하동 쌍계사에 오신 불자님들이 한마음을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중생은 욕심의 장벽에 가로막혀 극락세계나 천당세계가 보이지 않고 항상 괴로운 일에 허덕이게 됩니다. 한마음으로 밝혀주세요. 앞으로는 직장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항상 웃음의 꽃이 필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불만만 가지고 산다면 일생동안 허덕이다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고산 스님의 친절한 법문에 사부대중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귀를 기울였다. 대설주의보가 내려 궂은 날씨를 예상했던 쌍계사 앞마당은 축복처럼 내리는 눈발만이 가끔 흩날릴 뿐 날씨도 개고 햇빛도 밝았다. 날씨마저도 부처님의 가피요, 스님의 법력인 것 같았다.

“한마음 깨닫고 보면 원만성불도입니다. 지극하게 태양을 보세요. 하늘의 태양이 무슨 사심이 있습니까? 가난한 집도 부잣집도 미운 사람도 고운 사람도 비추고 한결같이 차별 없이 비춥니다. 부처님의 자비함이 일체 중생에게 차별 없이 서로 평등하게 항상 빛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그 봄소식을 보세요. 봄소식을 본다면 고운 사람에게는 전하고 미운 사람에게는 전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에게도 봄소식은 전하고, 이쁜 사람에게도, 음지에도, 양지에도 봄소식은 전합니다. 이 불보살의 자비광명의 특성은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편하고 행복하게 살수록 더 자비광명의 빛이 늘어납니다.”

불자들에게 성불하는 길을 끊임없이 강조하던 스님은 이런 점을 감안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거듭 불자들에게 주지시켰다. 항상 착한 마음으로 공심대로 살면서 자기양심을 등한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원만성불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했다.

“마음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일천만 고해 속에서 세세생생 육도윤회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와 같은 점을 잘 감안해서 우리 불자님들은 법당이 호화찬란하게 지어진 법회를 보기에 앞서서 자기 법당을 한 번 보세요. 혹시 눈곱이나 끼지 않았는지, 혹시 내가 옷을 단정히 입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자기 법당을 챙기지 않고 밖에 있는 법당만 살핀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안됩니다. 자기 인법당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억!”

스님이 대중을 향해 날린 할은 쌍계사를 쩌렁 쩌렁 울리며 미망에 젖어있는 불자들을 일깨웠다.

대웅전에서 준공식 행사가 끝나기가 무섭게 고산 스님은 대웅전 건너편 팔영루로 발걸음을 옮겼다. 쌍계사 강원 중강 월호 스님에게 전강식과 11명의 건당을 인가하는 건당식이 함께 열리는 자리였다.

“만약에 현재 부처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자기 마음을 맑히기를 저 허공과 같이 맑히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제일 깨끗한 것은 공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극청정입니다. 저 허공은 완전히 청정이에요. 이 마음을 어떻게 맑히느냐, 이 마음을 어떻게 닦느냐.

> 태양 한결같이 비추듯
> 부처님 자비 항상 평등
> 자기 인법당 잘 살피는
> 사람은 참으로 ‘행복’

계속 욕심을 앞세워서 탐진치 삼독에 헤매지 말고 한 생각 쉬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경전을 알고자 한다면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라 한 겁니다. 일체망상이나 모든 잡생각을 다 멀리 여의는 것이 바로 성불한 사람의 경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은 항상 수행자나 세상에 사는 모든 중생들이 한 생각 생기는 것을 뒤로 해서 공심대로 행해나간다면 이 사바세계가 극락국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하고 가섭존자는 다시 아난존자에게 전하고 그것이 달마조사로 이어졌습니다. 다시 달마조사는 중국으로 건너와서 초조가 돼서 이조 혜가, 삼조 승찬, 사조 도신, 오조 홍인, 육조 혜능대사에게 법을 전했습니다.”

부처님의 혜명이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로 말문을 연 고산 스님은 “월호 스님에게 전강하는 것이 나의 세 번째 전강”이라며 “월호 스님은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강원에서 강의도 하고 앞으로 모르는 것 수시로 묻고 가르쳐주고 후배를 가르칠 자격이 있기에 강맥을 전하는 것”이라고 월호 스님을 아끼는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전강식에서 월호 스님은 ‘자응당’이라는 호를 고산 스님으로부터 받았다. 전강식과 함께 열린 건당식에서는 두진 스님 등 모두 11명의 스님이 스님에게 호를 받으며 제자로 인가받았다.

오전 동안 줄기차게 진행된 행사의 마무리는 모든 의식이 끝나고 고산 스님의 일흔 네 번째 생신상을 마주하는 것. 고산 스님은 케이크에 꽂힌 74개의 촛불도 불어 끄고 케이크 커팅도 하는 등 제자 신도들과 함께 서로 덕담을 나누며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

하동/글 · 사진=강지연 기자

선지식을 찾아서 고산



고산 스님은 1932년 울주에서 태어나 46년 출가한 스님은 강사, 율사, 선사, 법사로 쌍계사, 석왕사, 혜원정사, 연화사 등을 오가며 대중 교화의 한 길을 걷고 있다.
동산 스님을 계사로 48년 사미계, 56년 비구계를 수지하고 61년에 직지사 강원 대교과를 수료했다. 이후 전국의 제방선원에서 안거를 성만하고 조계사, 은해사, 쌍계사 주지와 조계종 호계원장, 총무원장을 역임했다.
고산 스님은 <대승기신론 강의본>·<사람이 사람에게 가는 길>·<선 깨달음의 길>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부처님 말씀을 순 우리말로 노래한 시집 <마음이 곧 부처다>를 칠순을 기념해 출간하기도 했다.



금강약돌 심폐 온열조끼



★2007년 설날★ 부모님께 최고의 건강을 선물하세요!

심·폐, 오십견, 임파선에 온열침과 뜸을 동시에…

강력한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금강약돌에서는 공기속의 비타민 음이온이 1cc당 1200개까지 발산되며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에 도움을 줍니다. 해독성이 강한 황토, 바이오 세라믹을 이온 결합한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원적외선 열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여 자기발열을 일으키며 온열, 숙성, 자정등 여러 작용으로 혈액순환 촉진, 신진대사 원활, 노폐물과 유해금속을 배출합니다.

장부의 혈맥에 온열자극으로 만성적 긴장감에서 오는 피로를 해소, 어깨결림으로 고생하는 오십견 등 질병예방에 효과적!!

- 좌·우측 어깨를 열침효과로 오십견을 해소하며, 겨드랑이에 모인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배출하고 임파선을 치유
- 목의 전 · 후 갑상선을 보호하면서 치유
- 혈맥을 자극하여 뇌의 혈액순환과심 · 폐의 혈을 안정적으로 유지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를 원활히

기모혈(氣募穴)과 기유혈(氣兪穴)을 금강약돌의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각각의 장부(臟腑)를 활성화 시켜 어깨와 이어지는 장부에 혈류을 원활히 순환시켜 겨드랑이로 모여드는 노폐물과 유해성분을 빠르게 배출하면서 질병의 요인을 치유합니다.

허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

금강약돌 심폐온열조끼는 침과 뜸의 효과로 동시에 혈자리를 원적외선 열침으로 자극하여 심폐, 오십견, 임파선, 겨드랑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고, 목의 전후 갑상선과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위한 혈을 자극하여 허약한 부분(기능저하)을 보호하고 질병요인을 치유하여 인체의 혈액순환을 순조롭게 하여 건강을 지켜 드립니다.

판매원 : 금강닥터사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지역 대리점 및 딜러 모집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경허 선사(1)

묻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답하되, 하고 싶은 일 뭐든 다 하게

예로부터 선사들의 한 마디 언행은 '곧바로 마음을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가 되게 하는(直指人心 見性成佛)' 살아있는 법문이었다. 선문답은 옛 선사들이 수행자를 깨닫게 하는 언행(말, 고함치기, 몽둥이질 등) 일 뿐만 아니라 그 언행 자체에 깊은 진리와 지혜가 응결되어 있어 말끝에 단박 깨달으면 언하(言下)에 대오(大悟)할 것이요, 깨닫지 못한다면 화두(話頭)가 되는 것이다.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연재를 통해 필자는 선문답이 수행과 동떨어진 동문서답(東問西答)이 아니라, 좌선은 물론 생활 중에도 마음공부가 한결같이 이어지는 일상선(日常禪)을 강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미래에 대한 망설임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이 지금 여기서 깨인 삶 살라

먼저, 근현대 한국 선(禪)의 중흥조인 경허(惺牛鏡虛: 1849~1912) 선사의 문답을 살펴 보면서 '삶이 그대로 수행'인 도리를 하나하나 풀어보자.

젊은 스님이 물었다.

"스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경허 스님이 답했다.

"그대 마음 속에 일어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게. 착함이건 악함이건 하고 싶은 일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게. 그러나 털끝만큼이라도 머뭇거린다든가 후회 같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되네. 망설임과 후회만 따르지 않는다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하게. 바로 이것이 산다는 것일세."(경허집)

이 문답은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선수행의 핵심을 드러내고 있다. 언뜻 보기에는 막행막식(莫行莫食) 해도 된다는 말로 보일 수도 있지만, '털끝만큼이라도 머뭇거린다든가 후회없는' 삶을 살아야 하기에 막행막식은 있을 수 없다. 고인들이 말했듯이, 선(善)도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악(惡)을 행하겠는가. 매 순간 미래에 대한 망설임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이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니 선과 악을 초월해서 보살행을 베풀며 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금강경>의 "과거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應無所住 而生其心)"는 가르침과 다를 바 없다.

일찍이 임제선사는 "바로 지금이지 다시 다른 시절이 없다(卽時現今 更無時節)"고 일갈한 바 있다. 도란 어디에나 걸림이 없는 깨끗한 빛이기에, 진정한 도를 지어가는 사람이라면 '순간순간 마음에 틈새가 없어야 한다(念念心不間斷)'고도 했다. 영가 선사는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담연하다(不離當處常湛然)"고 진심(眞心)을 표현했다. 진심은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보고 듣고 인식하는 작용에서 늘 지금 눈앞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2004년 입적한 숭산 스님이 평소 "언제나 '지금 이 순간' 밖에 없다. 아무것에도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생활 속에서 깨달음을 구하라"고 당부한 것도 경허 스님의 뜻을 오롯이 계승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때리고 맞는 곳에 法이 있다"

무비 스님 서울 미타사서 '임제록' 강좌…70여 중진스님 공부 열기


무비 스님

"<임제록>에서 불법의 분명한 대의는 무엇인가?"

"임제(臨濟義玄: ?~867) 스님이 황벽 스님에게 세 번 묻고 세 번 맞은 것(三度發問 三度被打)이다."

1월 30일, 서울 옥수동 미타사 대승암 대웅전에서는 쌀쌀한 날씨에도 법랍 20년 이상의 비구, 비구니 스님 70여명이 조계종 전 교육원장 무비 스님의 <임제록> 강의를 숨죽이며 경청하고 있었다. 불교경전연구회(회장 지장)가 마련한 자리였다. 조계종의 제1교과서이자 소의어록임에도 그 어느 곳에서도 듣기 어려운 <임제록> 강좌가 모처럼 열린 탓인지, 법문을 설하고 듣는 모든 대중이 다소 상기된 표정이었다.

무비 스님은 "오래된 사찰의 비석에는 거의 임제의 몇 대 후손이라고 적혀 있으며, 다비식 때의 축원에 '빨리 이 땅에 돌아오시어 임제 문중에서 길이 인천의 안목이 되어주소서(臨濟門中 永作人天之眼目)'라는 축원이 들어갈 정도로 임제사상이 한국 불교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위상에도 불구하고, <임제록> 강의는 1971년 서옹 스님의 봉암사 강의 이후 스님을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드물 정도였다. 아마도 <임제록>을 강의하려면 서옹, 성철 스님과 같은 안목과 수행경지를 갖춰야 한다는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래서인지, 이번 강의에서 무비 스님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살림살이를 자신있게 드러내려는 의욕에 차 있었다. 스님은 본문에 앞서 '행록(行錄: 행장)'을 강설하면서 임제 스님이 무엇을 어떻게 깨달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무비 스님의 '임제록' 강좌 첫 날 70여 중진스님이 강의를 경청했다.

"무엇이 불법의 분명한 대의입니까?"

이런 질문을 황벽 스님에게 던진 임제 스님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무려 20방 망이를 두들겨 맞았다. 이어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했지만, 똑같이 몽둥이가 날아왔다. 세 번 묻고 세 번 얻어맞는 동안, 무려 60방망이를 맞은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 묻고 세 번 맞은 것'이 어떻게 불법의 대의란 말인가? 무비 스님은 이렇게 사족(蛇足)을 달았다.

"불법의 대의를 묻는 말에 무려 60방망이나 맞았으니, 불법치고는 '청전백일에 날벼락(白日靑天霹靂威: 임제 가풍을 상징한 말)' 같은 기상천외의 불법이다. 하지만 황벽 스님은 자신의 불법에 대해 소신껏 보여주었다. 임제 스님의 묻는 행위 자체가 이미 답을 내포하고 있지만, 황벽 스님은 더욱 강하게 때리는 행위를 통해 불법의 대의를 드러낸 것이다. 불법의 대의란 때리고 맞는 그 사실이다. 즉 대기대용(大機大用)이며 전체작용(全體作用)이다."

무비 스님은 임제 스님이 '세 번 묻고 세 번 맞은 것'은 부처님이 꽃을 든 것과 같고, 달마 대사가 9년 면벽한 것과 같으며, 구지 스님이 손가락 하나를 세운 것과 같고, 임제 스님이 할을 하고, 덕산 스님이 방망이를 휘두른 것과 같다고 보았다. 물론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임제 스님이 제창한 무위진인(無位眞人: 차별없는 참사람)이 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그대들 모두 석가와 다르지 않다. 석가도 볼 줄 알고 그대들도 볼 줄 안다. 석가도 들을 줄 알고 그대들도 들을 줄 안다. 육근을 통해서 활발하게 작용하는 이 무위진인은 한 순간도 쉰 적이 없다. 이 사실을 알면 단지 '한평생 일 없는 사람(一生無事人)'일 뿐 달리 부처다 조사다 할 것이 없다."

<임제록>의 알짜요 고갱이다. 임제선에서 '바로 목전에서 법을 듣고 말할 줄 아는 마음'인 무위진인(無位眞人, 불성)은 '바로 지금 눈앞에 드러나는 작용(卽今目前現用)'을 의미한다. 임제 선사는 지금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이 바로 만법의 근원이며, 이것을 깨달아야 경계의 장애로부터 해탈한다고 말한다. 행주좌와 어묵동정 가운데 보고 듣고 인식하는 작용에서 늘 지금 눈앞의 일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그 무엇에도 걸림없이 매 순간 어디에서도 주인노릇하며 진실과 마주하는(隨處作主 立處皆眞)' 것이다.

무비 스님은 "육근을 통해 보고 듣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이 작용이 신통과 묘용"이라면서 "이보다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간단한 불교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러나 수행자들은 여전히 "부처는 구할 수 없고, 도는 이룰 수 없고, 법은 얻을 것이 없다"는 임제 스님의 말을 믿지 못한다. 밖으로 부처와 깨달음을 구하는 갈망을 멈출 수 없기에 '지금 여기'에 온전히 함께 하는 불법을 향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날 대승암에서는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 스님이 중국에서 임제종 18대 조사인 석옥청공 선사의 법을 이어받아 환암-구곡-벽계-벽송-부용-청허 스님 등을 거쳐 조계종으로 이어져 온 임제정맥이 여전히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 법석이었다. 무비 스님의 강좌는 매월 세째주 목요일 오후 2~5시 미타사에서 열린다. (문의: 011-420-7838, 지장 스님)

김성우 객원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행게시판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

한국위빠사나선원(http://cafe.daum.net/vipassanacenter)은 2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위빠사나 수행 기초과정을 개설한다. 이종숙 수행자의 지도로 매주 월·수·일 오후 2시~5시 30분(총 28회) 수행하며, 이론 50분, 경행 30분, 좌선 60분, 면담 60분의 순서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무료지만 '자율보시'는 받는다. (02)512-5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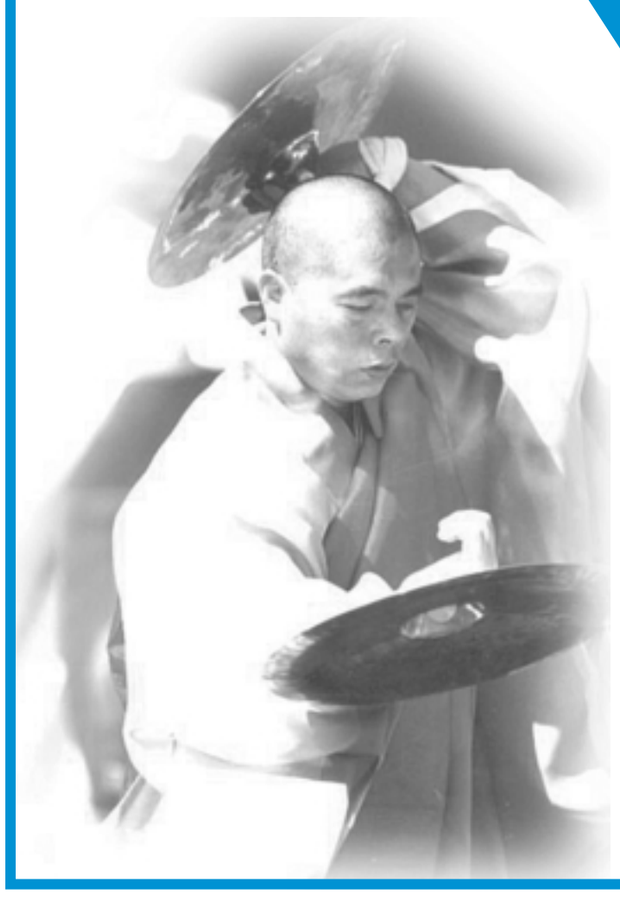
임제록-선문염송 강좌

부산 무심선원은 선어록의 왕으로 불리는 <임제록>과 선종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강좌를 열고 있다. 매주 수·일요일 오전 11~12시 <임제록>, 수·일요일 저녁 7시 30분~8시 30분 <선문염송>을 각각 강의한다. (051)515-7226

금강선원 참선수련원 용맹정진

다음카페 '하심(http://cafe.daum.net/humblemind)'은 2월 24~25일 강원도 홍천 금강선원 참선수련원에서 제 31차 철야용맹정진을 갖는다. 24일 오전 7시 20분 서울 남부 버스터미널에서 출발, 25일 오후 9시 서울 도착 예정. 수련원 입회비는 1박에 1만5천원. (010)5076-2359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학인모집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부설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에서 아래와 같이 제6기 학인을 모집합니다.

1학기 **범패 · 소리과정**
기본 불공의식, 사십구재, 천도재 작법에 필요한 소리 및 사물(태징, 목탁, 북, 요령) 다루는 법, 사십구재 · 천도재 · 장엄 및 제사 준비등 전과정 지도

2학기 **작법 · 무용과정**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작법, 도량게작법
바라춤 - 요잡바라, 관욕게바라,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교 수 진
일초스님 직강 / 강사 : 원경스님 · 지오스님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0-나호 범패 · 작법무 보유자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유자

- 개강일시 : **2007년 3월 6일(화요일) 오후 2시**
  (오리엔테이션 및 학사일정 설명)
- 모집인원 : 000명 (FAX접수가능)
  ※ 본인 연락처 및 인적사항 필히 기재
- 매주 강의요일 : 화, 목(주 2회) - 오후 3시 ~ 5시
- 접수기간 : **2007년 1월 ~ 2007년 2월 28일까지**
- 제출서류 : 입학원서1부,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교는 초종파 불교종합예술대학으로 수료 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전통의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교의 성적 우수자는 전수생으로 지정 받을 수 있으며 불교의식을 배우고자 하는 분은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 삼계종 · 한국불교종합예술대학**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10-나호 범패·나비춤 보존회 ·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5호 인천수륙재 보존회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 6동 612-4호 (전철 1호선 부평역 하차 남부역으로 나와서 굴다리 방향으로 5분 거리)
전화 : 032)529-6708 FAX : 032)529-6709
홈페이지 : 본 대학 http://www.bumpae.org / 한글인터넷 : www.수륙재 www.범패 / 삼계종 http://www.samgyeoijong.org / 한글인터넷 : 삼계종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① 미래는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신년운세 · 삼재풀이 · 부적에 의지할까?

안되고 되는 것을 쥐고 있는 건 자기자신

"진짜 삼재는 팔자따라 살려는 그 마음"

어긋난 예언

"올 해 제가 삼재(三災)랍니다, 하하하…."

A씨가 밝게 웃으며 말한다. "예전에 새해 운수에 매달려 쩔쩔매던 제 모습이 생각나서 웃음이 나요. 지금은 그런 것 상관없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씨는 사주를 묻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연말에는 신년운수를 물어보고 그 결과에 좌우되곤 했었다. 삼재라고 하면 소위 삼재풀이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싼 돈을 들여 부적도 사 놓았다.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올 해 운수가 나쁘다더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체념하곤 했다. '몇 월만 되면 좋아진다니까 기다려야지' 하는 등 매사를 사주풀이에 맞추어 해석하려고 했었다. 그러다 보니 거의 맞는 것 같아 중요한 일이 있으면 꼭 가서 물어보아야 안심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체인점을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많이 벌려고 한 것인데 만일 잘못되면 큰일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유명하다는 사주보는 곳 몇 군데나 가서 물어보았다. 모두 괜찮다고 했다. 그 중 한 사람은 A씨가 체인점을 시작하기에는 그 해가 일생에 가장 좋은 운이 들어왔다고까지 했다. 안심하고 문을 열었다. 그런데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석 달 만에 불이 나서 전부 타버린 것이었다.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겪는 일도 지긋지긋했다. "아니, 당신 운이 좋다면서요! 그래 불나는 것도 못 맞추면서…!" 아내는 사주라는 말도 꺼내지 못하게 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

그 때부터 절에 다니며 마음 다스리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 운명이 있가 없나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거기에 의지하고 맞추어 살려고 한다는 것이다. 운명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내 마음과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진짜 삼재는 사주팔자에 따라 살려는 나약한 제 마음이었어요. 어차피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게 인생인데 뭐가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일이 물어가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겸허하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판단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본다. 일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이 '나의 선택'이며 '나의 노력'이라는 점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노력하는 만큼 반드시 배우게 된다. 다음에는 그만큼 더 지혜로워지고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A씨는 다시 작은 회사에 취업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 그러나 마음은 예전과 비할 수 없을 만큼 편안해졌다고 한다. A씨는 이제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는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힌다. 욕심과 분노, 지나친 집착을 가라앉히려한다. 그런 상태에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노력한다.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되면 다시 수정하고 또다시 노력한다. 침착해지고 화를 덜 내니 아내와 가족들이 좋아한다. 주위에서는 딴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한다.

누가 "올해 삼재니까 조심하라"고 했다. A씨는 좋다고 하든 나쁘다고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 항상 마음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고 불안해질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어느 스님의 말씀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또 새긴다고 한다.

'안 되고 되는 것을 쥐고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 답이 알고 싶다

나라 안팎으로 어려운 시기이고 사람마다 걱정도 많습니다. 올 해 이 일이 잘 될까?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이 회사는 문을 닫을까 계속할까? 취업이 될까?입학시험에 합격할까? 승진할 수 있나? 결혼은 언제 해야 하나?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가 좋아지나, 누가 지도자가 될까…? 답은 우리 모두의 마음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신 행 게 시 판

맑고향기롭게 독서모임

맑고향기롭게는 2월 12일 오후2시 중앙사무실에서 조안 말루프가 저술한 <나무를 안아 보았나요>에 대한 독서토론회를 개최한다. (02)741-4696

통도사 철야참선법회

양산 통도사는 2월 10일 오후 9시부터 11일 새벽 예불까지 설법전에서 철야참선법회를 개최한다. 참선에 대한 법문 및 실참으로 진행된다. (055)84-8380

불교인재개발원 정책포럼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불교인재개발원이 2월 22일 오후 6시 불교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농어촌경제연구소 권영근 소장을 초청해 '농업위기와 사찰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마련했다. (02)735-2428

불교인재개발원 중국 선종사찰순례

조계종 중앙신도회 불교인재개발원은 2007 한 · 중 교류의 해를 맞아 중국 선종사찰 순례를 마련했다. 이번 순례는 3월 5~11일 '고우 스님과 함께-선(禪)의 원류를 찾아서'를 주제로 열린다. (02)735-2428

원효종 이웃돕기 불서화전

대한불교 원효종은 2월 9~15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1층 전시실에서 불우이웃돕기 불서화전을 개최한다. (02)735-0501

연화원 호스피스 교육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은 3월 14일~8월 24일까지 서울시여성발전기금의 후원을 받아 무료 케어복지사 및 호스피스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02)2202-5831

대한불교교사대학 신입생 모집

대한불교교사대학이 9기 신입생 모집에 나섰다. 2월 28일까지 불교어린이지도사 과정과 전문지도자과정으로 나눠 정규반과 통신반을 모집한다. (051)852-0852

부처님 감사합니다

일흔살에 부르는 사모곡 (상)

박을선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우리들이 살아가는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말 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기에 이제 70고개를 갓 넘은 제가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우리집은 불심 깊은 어머니로 인해 불자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가장 인상 깊게 지켜 본 모습은 어머니가 행해온 무수한 보시였습니다. 어머니는 불쌍한 사람 그냥 못 지나쳐 도와주고, 아픈 사람 그냥 스치지 못해 치료해주고, 옷 주고, 밥 주고 마치 '관세음보살'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무남독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결혼 후에 딸 둘만 두었던 분이었기에 남의 자식조차 내 자식 삼아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뻗은 손길로 인해 생명을 건졌던 제 남편은 저와 부부의 연을 맺기도 했죠. 아들 삼아 사랑했던 이를 사위로 맞게 된 어머니에게 저는 딸이면서 며느리도 되었지요.



그림: 문병성

어머니는 불심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우리집에는 스님들이 언제나 드나드셨습니다. 탁발에 나섰던 스님들이 절에 돌아가시기 전에 허기를 채우시라고 더운 여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수를 삶아 편히 드시게 했습니다.

불심 지극했던 어머니 돌아가신 뒤
서울로 연수 간 남편이 응급실에…

공양하시는 동안 땀에 젖은 스님의 옷을 깨끗이 빨아 다림질해서 입도록 했습니다. 탁발 받은 쌀로 무거웠을 짐을 편히 메고 그 높은 산사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스님들 공양에 온힘을 다했던 분이었습니다.

우리집은 몇 년 전 '달마야 놀자' 영화를 촬영했던 김해 신어산 은하사 인근에 있었습니다. 자주 은하사를 오르내리던 어머니는 바쁜 절 살림을 위해 몸소 공양주 보살을 자청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을 공양하던 틈틈이 법당 대웅전에서 천 배, 만 배 무릎이 닳도록 저희들을 위한 공을 드렸던 분이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어머니의 정성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스님들을 섬겼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은하사 뒤쪽 산 위 암자에는 연세 높으신 비구니 스님이 계셨습니다. 혹여 몸이나 아프신지 전기도 없는 곳에 무사히 계신지 어머니는 한밤중에 쌀을 이고 그 오솔길을 거뜬히 올라가시는 정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루는 젊은 스님께서 엄동설한에 철야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밤샘하듯이 털을 돌려 솜을 놓고 누빈 버선을 만들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드리는 어머니를 보면서도 저는 이해가 부족한 철부지 불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를 아셨고, 임종 마지막 모습은 마치 곱게 화장을 한 듯 신선 그 자체로 잠드신 모습이었습니다. 유언대로 화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약간의 비를 뿌리더니 하늘에는 쌍무지개가 찬란하게 장식을 이루었습니다. 하늘을 본 분들은 "정말 연화심보살님이 극락왕생 부처님 곁으로 가셨다"는 말을 하기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제 방에는 어머님이 만들어 주신 천주염주와 백팔염주가 고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아들이 없다는 한을 안고도 제게 둘도 없는 자식 사랑을 듬뿍 주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부부교사로 4남매와 살림살이를 몽땅 어머니에 맡긴 채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달팠던 육체와 정신적인 부담을 달래지 못한 불효여식이었던 지난날을 돌이켜 생각에 잠기는 고희를 넘은 딸은 반성으로 저절로 마음을 채찍질할 따름입니다.

9월 그믐날 국화꽃 향기가 가득 할 때면 어머님의 기일이 되는 날입니다. 좋은 계절에 작고하셨지만 나이 예순 한 살 회갑이 되던 그 해에 자식 곁을 떠나가셨죠. 어머니를 여의고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 없이 저 혼자 1인 3역을 다 해내기가 벅차 교단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 후 제 삶에도 고(苦)가 찾아왔습니다. 사표를 내기 직전 서울 연수차 상경한 남편이 뜻밖에 적십자병원 중환자실에서 급변으로 입원한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빨리 상경하라는 통보를 받고 궁금함에 가슴 조이면서도 문득 어머니가 떠올라 관세음보살을 외쳐보면서 달려갔습니다. 숨 막히는 순간 관세음보살을 외치며 도착한 연수원에서 들은 소식은 자정에 남편이 쓰러져 급히 앰뷸런스에 실려 갔다는 비보였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간 병원 중환자실 풍경,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모두들 사경을 헤매고 아픈 고통의 외침 그 자체였죠.

이리 저리 남편을 찾아 헤매다가 찾은 그이는 말을 전혀 못하고 그만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지더니 피를 토하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삼성문화재단에서 되돌아온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친견법회

'부처님진신사리'를 친견하실 수 있는 기회!

지난 국민적 관심과 불교계를 해 들썩하게 MBC 9시 뉴스데스크, 시사매거진 2580, YTN, KBS 추적 60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등 각종 언론에 방영되었던 삼성문화재단에서 되돌아 온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가 '특별친견법회'를 통해 공개됩니다.

정해년 황금돼지해 정초성지순례에 맞춰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일생일대 단 한 번만이라도 육안으로 부처님진신사리를 친견할 수 있다는 것은 불자 수행공덕으로만 가능하다' 하였으니 친견인연으로 많은 공덕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현등사삼층석탑진신사리 특별친견법회

- 일시: 2007년(불기2551년) 2월 4일(입춘)~5월 24일(석탄일)
-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25교구본사 봉선사, 가평군청
- 주관: 대한불교 조계종 현등사, 삼성문화재단
- 후원: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법보신문, 불교TV, 불교방송

친견하실 사찰 및 단체는 미리 연락 바랍니다.

현등사 종무실 031-585-0707
총무스님 031-585-7967

한북제일지장극락도량 운악산 현등사
경기도 가평군 하면 하판리 163477-833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불제 대원기업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 기업입니다.

장엄용(법당) 전기초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
▶그을음과 납성분의 위험이 있는 일반초와는 달리 무공해임
▶시간 조절 가능

LED전구(정품)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공장 : 경기도 김포시 장기동 475

전선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사찰 LED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휠라멘트가 아닌 반도체로 되어 반영구적이다.
▶반도체로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없다.
▶소켓 AC220V용으로 다용도로 사용

사찰 램프전구(정품)
▶고추전구, 인지전구(정품)
▶종류: 3W, 5W, 10W
▶특 휠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효과가 있다.

건전지용초, 방생, 탑돌이 행사용
청사초롱 및 초롱 걸이대

연 등(정품)
법당등(공단등), 영가등, 오색등, 황금등, 주름등, 특수등

군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전선시공



읽고 쓰고 발표하고…"내가 논술왕"

보라매청소년수련관

NIE 논술 교육 현장



독해, 읽기, 쓰기, 논리력, 비판력 등 종합논술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NIE.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NIE논술특강'을 받고 있는 어린이들이 신문을 정독하고 있다.

"신문기사 다 읽었죠? 그럼, 이 기사의 핵심단어는 뭘까요?"

"겨울, 기상청, 알프스요." "눈, 오존층, 북극요."

"네. 유림이와 정석이 생각도 크게 틀린 않지만 선생님 생각엔 '빙하' '온난화' '오존층' 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온난화 현상과 오존층 파괴로 극지방의 빙하가 녹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기 때문이죠."

1월 25일, 서울 보라매청소년수련관 2층 강의실. 십 수 명의 초등학생들이 신문기사를 소리 내어 읽으며 리드문장, 핵심단어, 인용문 등을 빨간 펜으로 밑줄 그으며 기사를 '완전분석' 하고 있다. 성인들도 다소 이해가 어려울 듯싶은 정치 · 경제 · 환경 · 국제 · 문화면의 기사 내용이지만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은 기사를 술술 읽어 내려가며 핵심어와 주제문 등을 손쉽게 체크한다. 논술 서적이 아닌 신문으로 논술을 공부한다? 바로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NIE(Newspaper In Education) 논술 특강'이다. NIE는 신문을 통한 논술능력 배양 학습으로 종합적인 사고력 향상은 물론 독해 · 읽기 · 쓰기 능력, 논리성, 비판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어린이 논술 학습'의 일종이다.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되는 NIE 논술 특강의 핵심 프로그램은 '신문독해'와 '그림지도 만들기'.

신문독해 수업이 진행되자 13명의 아이들은 '읽기 시합'이라도 하듯 우렁찬 목소리로 신문기사를 읽기 시작한다. 전체 인원이 큰 소리로 기사를 한번 읽고 대강의 의미 파악이 끝나면 각자 기사를 정독하면서 핵심단어와 주제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는다. 그런 다음 기사를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 후 각각의 주제어를 다시 뽑는다. 이러한 과정이 모두 끝나면 자신이 재구성한 기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사를 써보는 것으로 수업은 진행된다.

"정치 · 경제 기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선민(당곡초교3)양은 "처음엔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몰랐는데 그 때마다 선생님께 물어보거나 사전을 찾아가면서 공부해 보니 생각보다 어렵진 않다"고 말했다.

허유림(보라매초교3)양은 "처음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기사를 읽는 다는 게 너무 쑥스러워서 NIE 논술시간이 너무 싫었는데 이젠 다른 학원 수업보다 훨씬 더 재밌고 기다려 진다"며 신나했다.

보라매청소년수련원에서 NIE 논술을 지도하고 있는 사공혜영 선생님도 "발음과 띄어쓰기가 전혀 되지 않고 발표력도 없었던 아이들이 NIE 수업을 받고 난 후부터는 몰라보게 웅변력과 글쓰기가 향상된 예가 많다"고 귀띔했다.

신문독해 시간이 끝나면 NIE 논술의 연장인 그림지도 만들기 시간.

"자! 그림지도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럼, 정석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우선 저는 우리 동네에 없는 소방서와 종합병원 그리고 공항을 지도에 그려 넣어 봤어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집 근처에 큰 병원이 없어서 진찰 한번 받으시려면 버스타고 1시간이나 시내로 나가야 하거든요.(중략) 또 제 꿈이 파일럿이기 때문에 공항도 그렸습니다."

그림지도 만들기 시간은 신문에 실린 사진이나 삽화 범례나 기호 등을 오려서 도화지에 붙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를 그림지도로 만드는 것이다. 그림지도가 완성되면 500자 내외로 그림지도의 내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NIE 논술 수업 중 그림지도 만들기 시간이 제일 재밌다는 안정현(당곡초교3)양은 "학교나 학원에서는 배울 수 없는 공부를 해서 너무 보람 있는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글 · 사진=노병철 기자

신문보며 요점 정리 기사 구성
그림지도 만들고 500자 발표도
"발음 · 띄어쓰기 몰라보게 향상"



NIE 그림지도 발표모습.

영남불교대 '참좋은어린이집' 70여명 다도시연 등 재롱잔치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부설 '참좋은어린이집'이 개원 6개월 만에 첫 재롱잔치를 열었다.

1월 27일 참좋은어린이집 3층 소극장에서 열린 이날 재롱잔치는 '우리들의 작은 전시회'를 주제로 파랑반, 노랑반, 초록반, 분홍반 원아 70여명이 다도시연, 테디베어 율동, 유리드믹스 음악 합주, 치어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맘껏 뽐냈다.

특히 이날 재롱잔치의 하이라이트는 파랑반 어린이들의 다도시연. 색동옷을 곱게 입은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손수 우려낸 차를 부모님께 드리며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큰절을 올리자 순간 어머니들의 눈가엔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게 복장'을 한 초록반 어린이들의 깜찍 발랄한 치어리더 댄스 공연도 많은 갈채를 받았다. 글 · 사진=손법천 대구지사장



파랑반 원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다도시연을 하는 모습.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제6회 남북청소년교류 편지쓰기 전국대회를 실시한다. 1차 전국대회는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2월 28일 실시한다. (02)757-2248

아이코리아는
겨울방학을 맞아 '뽀드득 뽀드득 책 발자국' 독서지도를 2월 7일, 14일, 21일 3차에 걸쳐 강의를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논술지도, 부모의 올바른 독서 지도법 등이다. (02)2144-1090

한국시민자원봉사회는
'봉사를 통해 나는 이렇게 달라졌다'를 주제로 한 자원봉사 수기 원고를 2월 28일까지 공모한다. 분량은 원고지 30매 내외로 내용과 형식은 자유다. (02)730-2727

청소년문화공간은
설날을 맞아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서울 역촌동 청소년문화공간 소강당에서 2월10일 '예절교실'을 연다. 프로그램 내용은 차례상 차리기, 한복입기, 절하는 방법 등이다. (02) 382-5652

인천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는
'유레카 청소년 무료 강좌'를 2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 연다. 수강과목은 스포츠 댄스, 수영 등 총 20개 강좌로 구성돼 있다.
(032)437-1318

광주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일본-해외문화탐방' 해외탐방단원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45명이고 접수기간은 2월 초까지다. 탐방기간은 2월 21일부터 2월 24일까지. 011-683-4536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34로 연락주세요.

캠페인에 많은 동참 바랍니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조계종 포교원과 현대불교가 2007년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1996년 '새싹불자를 키웁시다'란 주제로 캠페인을 전개했던 현대불교가 다시 같은 주제의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 현장이 여전히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조계종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방치하고는 불교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인식아래 올해부터 어린이 포교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새싹 불자 키우기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현대불교' 역시 불교의 미래를 밝게 열겠다는 각오로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 캠페인 전용 지면 두개면 마련
'현대불교'는 매주 2페이지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지면을 운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들의 활기찬 법회 현장과 각종 활동 현장을 소개하고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만화, 칼럼 등의 연재를 통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콘텐츠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 종립학교에 '현대불교' 보내기
현재 불교계 종립학교는 30 곳이며 총 학급수는 750 개에 이릅니다. 가장 가까운 포교 마당인 종립학교 교실마다 '현대불교'를 보내 어린이 · 청소년들을 불교와 보다 친근하게 인연을 맺어주고자 합니다. 또 각 종립학교의 교장 · 교감 선생님과 교법사, 도서관, 불교 동아리 등에서도 '현대불교'를 매주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종립 중고교생 논술 경시대회
논술이 입시의 최고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종립 중고교생들의 논술 기량을 높이고 불교의 교리와 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논술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 하는 논술 경시대회를 개최해 종립학교 학생들의 학업을 돕겠습니다.

■ 수험생 위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합니다. 중앙대학교에서 '자비명상의 이론과 실제'를 강의해 주목받고 있는 마가 스님(천안 만일사 주지)이 2월 10일과 11일, 24일과 25일 등 네 차례에 걸쳐 '자비명상'을 진행합니다. (문의 02-2004-8237)

■ 희망의 템플 스테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사찰에서 며칠 묵으며 각종 문화와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인생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현대불교'는 방학을 이용해 보다 알차고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열겠습니다.

캠페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주세요
국민은행 006-01-0783-279(현대불교)

엉터리 빙의 이야기가 난무하는 시대에 전하는 따끔한 일침!

" 빙의 이젠 제대로 알자! "

귀신에 관한 최고의 참고서

빙의의 시대



지은이/ 일광(逸廣)
신국판/ 312쪽/ 9,500원

정신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무당이 되기 전에 앓는 신병(神病)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
무당하기 싫은 분, 귀신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신경통이나 좌골신경통으로 오래동안 고생하시는 분,
스님이나 무당으로부터 귀신이 몸에 있다고 하여 고민하시는 분은 반드시 이 책을읽고 상담하여 주세요.

출생의 비밀 윤회는 왜 하는가?
여성상위시대와 빙하기는 왜 오는가?
150년후 일본은 침몰하고 없어진다!
전국에서 이름있는 도사를 모셔 조상의 묘를 썼는데 왜 발복이 없는가?

우리출판사 Tel. 02-313-5047

전국 서점에서 판매 중

한국최초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한불교웅변대학

제1기생 모집

◆본 대학 총장 : 제주도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혜인스님 ◆본 대학 학장 : 백용사 주지 해봉스님

부처님께서 시방세계 무명 중생들을 제도하실 적에 진리(8만 대장경)를 부르짖는 불같은 사자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
오늘의 연단에 선 지도자들이 대중들의 마음을 흥분 감동시키고 설득시키고저 한다면 사자후가 절실히 필요하기에...
웅변수련과 교육을 통해 위대한 지도자를 양성코저 함.

모집인원	자 격	제출서류	강의 시간 및 강의 장소
· 웅변학과 50명 · 특 별 반 0명	· 각종단승려(비구,비구니,법사) · 말을 못해 꼭 웅변을 배우고자 하는 재가 불자 · 기업인, 공무원, 사회, 정치지망생등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진 2장 · 승려증 사본 1장	· 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까지(3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10시까지(3시간) · 총강의 시간 : 6개월(144시간) · 강의 장소 : 백용사 대법당

내 용	교 수
· 웅변(법문, 연설, 식사, 사회)이론과 실기 · 원고작성법 (각종행사, 원고내용)이론과 실기 · 임기응변(3분 스피치) 소참 법문 · 강평(개인 장점, 단점)	· 제주도 약천사, 단양 광덕사 회주 본대학 총장 혜인스님 · 백용사 주지 본대학 학장 해봉스님 · 웅변을 30여년간 해 오신 해봉스님 직강 · 큰스님, 웅변교수 초청 특강

4. 입학개강 일시 : 2007년 3월 6일 (화요일) 오후 5시 백용사 대웅보전
5. 등 록 금(6개월) : 일금 육십만원정
6. 본대학 이수시 : 본 대학 소정 졸업장 및 강사 자격증 수여
7. 원서 교부처 : 2007년 1월 31일부터 ~ 2007년 3월 4일까지(선착순)

부산시 사하구 하단 2동 531-14 백용사 전화 : 051)204-0477, 018-565-2042 / 인터넷 : www.baekyongsa.com

대한불교웅변대학총장 혜인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캠페인

성적이 쑥쑥 오르는
10분 명상 기공

우주 바라보며 내안의 희망 찾기

4. 우주와 하나 되는 '만다라명상'

■ 이렇게 해 보세요
① 좌선의 자세를 갖춘다.(가슴을 활짝 열고, 허리(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몸의 무게 중심을 단전에 두어 몸 전체가 안정을 유지하도록 하며 마음자세는 새털처럼 가볍게 한다)
② 약 3회 정도의 긴 날숨을 천천히 그리고 길게 내쉬면서 호흡을 안정시킨다.
③ 호흡이 떨어진 단전 아래에 의식을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유지한다.
④ 만다라의 움직이는 여섯 개의 원(圓) 중 하나를 골라 주의를 집중하며 관(觀)한다. 이때 들려오는 만다라 음악에는 자연스레 귀만 열어두고 음률에 마음이 따라가지 않도록 한다.

■ 해보니 이랬어요.
* 내 마음속의 기를 다스리는 만다라 명상을 통해 힘들고 짜증났던 일들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 만다라명상을 할 때 아름다운 별 속에 빠져드는 것 같았고 빠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매년 이맘때는 수능을 치르고 대학을 지원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슴을 졸이며 합격소식을 기다리는 시기이다. 학업성적은 동서양을 통틀어 모든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이다. 성적이 교육의 최종 목표는 아니지만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자질의 검증이나 성향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큰 힘을 발휘한다.

학업성적을 올리려면 훌륭한 선생님의 효과적인 교수법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학생의 긍정적인 마음자세와 올바른 인성을 바탕으로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圓보며 내면의 의식 관찰

먼저임을 명상교실에서 만난 여러 학생들의 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바른 인성의 바탕 위에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게 되면 학업의 성취도 일취월장(日就月將) 할 수 있을뿐더러 자신과 이웃을 위해 그 역할을 다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서의 심성을 지닌 학생들이 배우고 익혀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모든 것이 善이되고 바름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정의롭고 밝은 세상을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우곡선원의 청소년명상교실에서는 학생들의 주의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주위의 사물과 사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사랑을 기르


부산경혜여고생들의 만다라명상 모습.

고 삶을 안정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다라명상을 실시하고 있다. 만다라(曼荼羅)는 우주 만물의 조화와 연관성 및 차별성을 원(圓)으로 나타내는 도형으로서 외적으로는 우주 삼라만상을 뜻하고 내적으로는 의식의 흐름을 상징한다. 우곡선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만다라 그림의 6가지 원형은 우주를 구성하는 6가지 원소, 즉 흙, 물, 불, 바람, 허공, 의식을 뜻한다. 학생들은 천천히 돌며 움직이는 만다라 원을 한 가지 골라 집중하는 방법으로 잔잔한 음악과 함께 만다라 명상을 하게 된다.

스스로 주의집중력 점검

이는 만다라명상을 통해 자신의 주의집중력을 스스로 점검해 보고 꾸준히 향상시키며 우주와 하나 되는 순수하고 성스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처음 명상을 할 때는 1분만 지나도 여기저기 옆 친구들을 살피거나 몸을 꼼지락거렸던 학생들이 차츰 고요에 들면서 들뜬 자신의 내면을 돌보고, 세상을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보게 되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희망적인 각오를 다지게 된다. 2007, 정해년에도 밝은 미래와 학업성취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마음의 힘을 기르고 원하는 바를 꼭 이루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김혜경 선생님(우곡선원 교육지도자불자회장)



우리들 이야기

저는 이제 중3이 되는 최은진(광주광역시 서구 · 16)이라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30년째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천수경〉 독경을 하십니다.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최근엔 무척이나 불교에 대해 알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도서를 소개해 주세요.

부처님 일대기 읽어보세요

불교교리를 설명한 책들은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은진양에게 불교교리를 설명한 그런 책들 보다는 부처님의 일대기나 수행을 충실하게 해온 스님들의 삶을 그린 책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석가모니가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를 아는 것이 불교공부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도 참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일대기와 그 제자들에 관해서는 시중에 만화책도 나와 있는데 당연히 다 좋습니다.

〈성철스님 시봉일기〉도 권하고 싶습니다. 수행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깨끗하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면서도 스승을 모실 때는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하는지를 퍽 감동적으로 들려주고 있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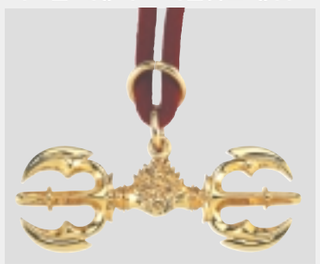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읽어보았나요? 바로 불교를 만나고 깨달아 가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 한 권 속에 다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배낭 속의 부처〉라는 책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좋은 안내서이지요. 그리고 〈알도와 떠도는 사원〉이라는 책은 인도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과학자인 아버지를 찾아 나선 알도의 모험담인데, 인도의 유적지를 여행하면서 부딪치는 철학적인 문제들은 청소년들에게 재미와 공부를 한꺼번에 안겨줄 것입니다.

'이게 불교야.' 라고 알아서 믿는 것보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부처님의 제자다운 생각입니다. 부디 은진양의 하루하루가 많은 고민과 사색으로 채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미령(동국역경위원)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밸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밸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 (남성)님들을 위해 항상몸에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밸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밸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밸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밸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밸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밸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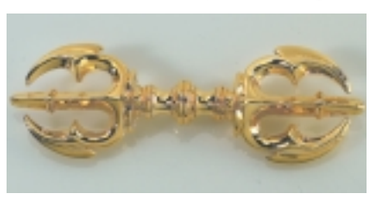

남성용金나노중지갑
여성용銀나노 장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 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닥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시작하는 어려운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법하지 말고 일을 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활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납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

문 없는 문을 박차고 나가라!

수행일기 · 역사와 의미 · 탐방 … '무문관'의 모든 것 담아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마치 쥐가 소쁠에 들어가듯, 뿔의 끝이 좁듯이 번뇌의 소진되는 폭도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다."

"주인공아, 너 혹시 깨달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아닙니다. 단지 화두 챙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혹시 화두가 달아나 버릴까 걸음도 빨리 걷지 않고 정(定)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번뇌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맑은 거울에 비친 티끌과 같이 훤히 보입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리는 어느 한 수좌스님의 무문관 수행일기중 일부다. 무문관(無門關)?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할지 모르는 무문관은 선방의 일종인데, 장소적 개념보다는 그곳에서 행하는 수좌 스님들의 무문관 수행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깨닫지 못하면 문밖 세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물쇠를 잠군 독방에서 수년간 바깥세상과 절연하고 화두 참구하며 용맹정진하는 참선법중 하나다. 한국 선(禪)의 용맹정진하는 기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행법이기도 하다. '무문'에는 문이 없어 어디로도 통하는 대도(大道)의 문은 찾기 어렵다는 의미와 문 아닌 곳이 없어 시방세계가 그대로 '무문'이라는 이중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런 무문관이 주무대인 이 책은 그동안 일반인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했던 무문관의 의미와 역사를 비롯해 그 수행일기와 현장, 무문관을 투과한 고승들의 수행역정 등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무문관'이 하나의 보통명사로 자리잡게 된 것은 1964년 도봉산 천축사에서 정영 스님이 '무문관'이라는 참선수행도량을 세우면서 부터라고 저자는 소개한다. 이후 65년부터 79년까지 매회 6년간 현대의 고승들이 밖에서 문을 자물쇠로 걸고 면벽 수행했던 도봉산 천축사 무문관은 79년 원공 스님을 마지막 수행자로 문을 닫았지만(현재는 시민선방으로 운영), 93년 계룡산 대자암에서 다시 명맥을 이어간다. 뒤이어 제주도 남국선원(94년), 설악산 무금선원(98년), 강진 백련사 만덕선원(2002년), 천성산 조계암(2004년), 감포 영남불교대학 무일선원(2005년)에도 무문관이 잇달아 생겨나면서 무문관 수행이 확고한 뿌리를 내리게 됐으며, 앞으로도 무문관은 늘어날 것이라고 저자는 전망한다.

총 4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가장 흥미를 끄는 부분은 2부 '무문관 수행일기'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수행자들도 쉽게 갈 수 없는 곳이라 한 수좌스님의 대리체험에 대한 생생한 기록들은 책장을 술술 넘기게 만든다.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엮음
클리어마인드 펴냄
1만2000원

무문관 수행일기는 남쪽의 모 선원 무문관에서 3년 7개월간 폐문 정진을 마치고 나온 한 수좌 스님이 온몸으로 병고(病苦)를 이겨내며 쓴 생생한 참선 수행 기록이다. 수행일기는 이중 약 10개월 동안의 무문관 생활에서 겪은 소박한 이야기와 참선 중에 느낀 내면의 체험을 가감없이 적어 놓았다. 하지만 수행일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록의 양이 짧아지고 급기야는 10개월 만에 중단된다. 이는 모든 언어와 문자를 초월해 침묵의 세계로 들어가는 수행자의 사교입선(捨敎入禪:교학을 잊고 선(禪)의 경지에 들다)의 여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당초 수행일기를 쓴 수좌스님은 이 일기를 공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무문관 수행에 대한 기록물이 전무해 새로 무문관에 들어가는 수행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과 불교계 내외의 무문관 수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부분적으로 나마 소개해야 한다는 저자의 끈질긴 설득으로 세상에 나오게 됐다. 때문에 책에는 수좌스님의 법명을 '무명(無名) 스님'이란 가명으로 표기하고 있다.

저자가 스님을 처음 만난것은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였다. 스님은 3년 7개월간 무문관에서 묵언 수행한 탓에 말문이 잘 터지지 않아 대화하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하지만 형형한 눈빛 청정한 기운은 계정혜(戒定慧) 삼학을 함께 닦은 수행자의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직지' 찾아 중국대륙을 뒤지다

'직지탐험대' 2차 답사 기록…백운화상 유적지 '생생'

지난해 4월 4명으로 구성된 답사단은 5박6일 일정으로 직지의 고향인 청주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날아갔다. 일명 '직지탐험대' 2차 답사단들이다. 이들이 처음 밟은 땅은 직지의 편저자로 알려진 백운화상(1299~1375)이 54세에 방문한 저장성 후저우시 천호암 이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중국으로 갔을까? 저자는 10여년간의 직지관련 문헌연구와 1차 중국 답사를 통해 직지가 중국대륙에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직지심체요절'이라는 보물을 찾는 지도를 만들기 위해 2~3년 전부터 탐험대를 꾸려 중국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와 허난(河南)성 뤄양(洛陽)시, 산시(山西)성 장쯔(長治)시 등 3개 지역을 답사하면서 보물지도를 그렸다. 그 지도위에 살을 붙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비록 이번 답사에서 탐험대는 직지는 찾지 못했지만, 거대한 대륙 중국의 참다운 문화를 배우며 직지찾기의 발원을 더욱 굳건히 가슴에 새기고 돌아왔다. 그 여정의 기록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 이 책은 답사기도 기행문도 아닌 일종의 보물찾기 지도라는 느낌으로 다가온다.

김주일 기자



직지탐험대 중국간다
정덕형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8000원

호흡만 잘 해도 행복해진다고…



마음의 꽃을 따다
현지문 지음
문화유람 펴냄
9500원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가장 빠른 지름길일 수 있다. 그 관찰자 시점이 통찰될 때 거기에서 벽 없는 수많은 발상과 영감이 무수히 쏟아져 나온다. 이 책은 지친 현대인들에게 마음의 휴식을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 메시지는 갇혀 있는 나를 열고 마음으로 세상과 자신을 보게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수용하며 이해하게 한다.

저자는 그 메시지를 터득하기 위해 명상을 권한다. 모든 명상은 관(觀)의 원리를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호흡법과 요가, 기공수련, 그리고 명상과 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 하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책에서는 이 관에서 선까지를 단계적으로 다루면서 어떤 이해에 도달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유도하고 있다.

S라인 만들기 비결은?

부처님 말씀 잘 들어봐~



마음으로 하는 다이어트
로나 커배츠니크 지음
박용길 옮김
운주사 펴냄 | 9000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여성 모델들의 몸무게 제한 움직임이 심심찮게 뉴스거리로 등장한다. 무리한 다이어트로 인한 거식증으로 사망자가 여럿 생기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아무튼, 날씬한 몸매, 쭉쭉빵빵, 몸짱, S라인 등 듣기만 해도 곧바로 흉내내고 싶은 이 유혹들. 더 큰 유혹은 봇물처럼 쏟아져나온 '다이어트'란 제목의 책들이다. 주로 그것들은 덴마크다이어트, 몸짱 만들기 등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는 등 육체적인 고통이 수반된다.

<마음으로 하는 다이어트>는 이런점에서 우선 제목부터 신선하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쫙 빠진 몸매 가꾸기'를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담고 있지는 않다. 단지 별 효과없고 거의 엽기적이기까지 한 온갖 다이어트 상품들에 대한 안전한 대안을 제시해줄 뿐이다.

저자는 그 대안을 부처님 말씀에서 찾고 있다. 부처님은 과식의 원인을 욕망의 부조화에 있다고 말했다는 것. 그렇다면 저자가 말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이란 뻔한 '중도'니 '과식에 대한 집착을 끊는 것이니' 따위의 상투적인 것들뿐일까? 이렇게 내용이 전개됐다면 이 책은 그야말로 시중에 나도는 흔한 다이어트책 중 하나로 치부됐을 것이다.

오랫동안 명상수련에 힘써온 저자는 이 책에서 깨달음과 해탈이라는 불교의 기본 가르침을 통해 사회적 난제 가운데 하나인 과체중 및 다이어트 문제를 투쟁이 아닌 '영혼의 회복'으로써 치유하자는 발상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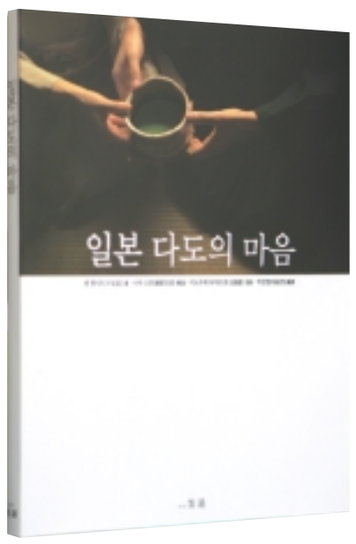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2	옛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성철	장경각
3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4	붓다로부터 배우는 자녀교육의 지혜	민병직	운주사
5	맑고 향기롭게	법정	조화로운 삶
6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름미디어
7	유식학입문	오형근	대승
8	바이로차나	공파	맑은소리 맑은나라
9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브뤼넬	솔바람
10	꽃비	원성	마음의 숲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월간 다도 단행본 시리즈 제2탄
일본 다도의 마음
조용하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다도의 마음』은
일본 다도 가문을 대표하는 우라센케(裏千家).
그 우라센케(裏千家)의 대종장(大宗匠)인
센겐시츠(千玄室)가 50년 이에모토(家元)를 지내며 느낀
다도와 일상, 그리고 그 정신세계를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엮은 책입니다.
센 겐시츠(千玄室) 著 · 나야 소탄(納屋宗淡) 解說 · 이노우에 다카오(井上隆雄) 寫眞 · 박전열(朴銓烈) 飜譯
컬러 · 210×276 · 140페이지. 값 · 23,000원



구입문의: 월간 다도 (02)722-7777

이 땅에 불교정신을 구현하고 삶의 위안을 주는 편안한 잡지
월간 『불교와 문화』가 불교와 문화의 풍성한 세계로 안내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2007년 2월호


빠름 속 禪적인 몸동작 '기대'

한국국제문화교류회 초청 네팔왕실 국립무용단 내한



네팔의 전통민속춤은 화려하면서도 경쾌하다.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20여 사찰과 공연장에서 네팔의 무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4월 15일부터 75일간 20여 사찰 순회하며 공연
'바즈라 요키니 댄스' 등 30여 민속춤 소개 예정

부처님 탄생지인 네팔의 춤을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회 초청으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5일간 총 20여 사찰과 공연장을 돌며 순회공연을 펼치는 '왕실국립무용단 특별공연'이 바로 그것. 4월 21일 충주 실내체육관을 시작으로, 5월 18일 대구 불광사, 5월 24일 동두천 시민회관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네팔 무용은 화려한 무대의상을 입고 나온 무용수들이 빠른 몸놀림속에서도 전통악기의 리듬에 맞춰 정적인 춤사위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불교국가답게 화려함과 빠름 가운데서도 고요하고 선적인 몸동작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편안하고 명상에 잠기게 한다.

이번 공연에서 네팔무용단은 '바즈라 요키니 댄스' '아라티 댄스' '파트마 삼바바' '쿠쿠리 댄스' '마이타리' '보즈푸리 댄스' 등 30여가지 춤을 선보인다.

이중 눈여겨 볼 것은 '바즈라 요키니 댄스'다. 탄트라 불교에 근원을 두고 있는 네팔의 고대 전통 댄스인 이 춤은 부처의 지혜를 상징하는 바즈라 요키니의 복장을 한 무용수가 나와 화려한 춤사위를 보여준다. 또한 '타망 세로 댄스'도 네팔 전통 문화의 풍취가 가장 많이 느껴지는 춤이라 주목된다. 타망 공동체에서 널리 추는 이 춤은 셀파 복장을 한 무용수들이 나와 경쾌한 걸음걸이와 용맹스런 투사의 굵고 강한 동작을 보여준다. 청년층들이 좋아할 순서도 마련돼 있다. 네팔 남부지역에 있는 따루지역공동체에서 유행하는 '호리야 댄스'다. '호리'는 보통 2~3월이 지역공동체의 큰 축제중 하나로 이 기간동안 축제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물감과 물, 그리고 분가루를 뿌리며 둥글게 모여서 경쾌한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호리야 댄스'도 이 축제의 모습을 본따 춤으로 만들어 젊은 관객들이 이 춤을 감상한다면 어깨춤을 함께 따라할 정도로 분위기를 고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국제문화교류회 남광일 대표는 "이번 공연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룸비니동산의 복원과 티베트불교 난민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자선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문태준 시인이 선별한 詩모음집 <포옹-당신을 안고 내가 물든다>

프리 허그가 이슈가 되는 요즘, 따듯한 온기를 품고 독자들을 안아주겠다는 시집이 나와 눈길을 끈다.

시단의 젊은 스타, 미당문학상 · 소월시문학상 수상자 문태준 시인이 선별한 시들을 엮은 시집 <포옹-당신을 안고 내가 물든다>가 그 주인공이다.

문태준 시인은 이번에 선별한 시들이 "제 사랑의 과거였으며 여전히 미래인 지독히 사랑하는 시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꽃을 기르는 마음으로 이 시들을 보아달라"고 당부한다.

<포옹>에는 장석남 시인의 '낮은 목소리'에서부터 도종환 시인의 '여백', 유안진 시인의 '문병 가서' 장대송 시인의 '섬들이 놀다' 강은교 시인의 '빗방울 셋이' 등 주옥같은 69편의 시들이 수록돼 있다.

<포옹>이 특별한 것은 여러 시들의 모음편이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시집 안에서 문태준 시인은 자신이 사랑하는 시들과 아름다운 감정의 교류를 이어간다.

장석남 시인이 '낮은 목소리'에서 '숟가락으로 말해줘/더 작은 목소리로 말해줘'라고 노래하는데 대해 문 시인이 화답을 한다. '부디 소라나 모시조개로 말해줘, 아가의 조막만한 손으로 말해줘, 살얼음으로, 반짝이는 빛으로 말해줘'라고.

'나의 눈물에는 왜 독이 들어있는가'라고 묻는 정호승 시인에게는 '함박눈처럼 펑펑 울어 다시 차꽃보다 맑은 아침의 영혼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한다.

여러 시인들이 호소하는 목소리와 어울리는 문태준 시인의 시 읽기를 엿보는 재미도 더해준다. 이 겨울이 가기 전, 영혼을 쉬게 하는 쉼터 같은 시들의 향연에 젖어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강지연 기자

"소외받은 이들에게 시적 지평 넓혔다"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에 신달자씨 선정, 5월 12일 시상



계간 '불교문예'가 주관하는 제12회 현대불교문학상 수상자로 시인 신달자(명지전문대 문예창작과 교수 · 사진) 씨 등 4명이 1월 31일 선정됐다.

수상작은 시부문에 신씨의 시 '저 거리의 암자'와 '저 허공도 밥이다', 시조부문에 홍성란 씨의 시조 '명자꽃', 소설부문에 윤후명 씨의 소설 '촛불 랩소디', 평론부문에 이숭원(서울여대 국문학과 교수) 씨의 평론집 <감성의 파문>이 각각 뽑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과 현대불교문인협회 및 계간 <불교문예>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현대불교문학상 운영위원회(총재 지관)는 그동안 국내에서 다년간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는 중견문인을 대상으로 시, 시조, 소설, 평론 등 4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매년 선정 발표해 왔다.

신경림 심사위원장은 "신달자씨의 시세계를 관류하는 주제는 인간의 운명과 외로움, 숙명적인 상실감이며, 최근에는 더욱 시선을 넓혀 소외당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로 시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며 "그의 세심하고 읽는이의 가슴을 잔잔하게 적셔주는 시어를 마주한다는 것은 우리 시단의 기쁨이자 축복"이라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식은 5월 12일 오후 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가질 예정이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000만원을 수여한다. 김주일 기자

瑞榮普洱
진년보이 · 진년오룡 · 철관음 · 오룡차
대홍포 · 화차 · 인삼오룡 外 40여가지의 茶
보이차 전문점
■ 조계사 건너편 TEL 02)722-0855
H.P 017-411-0882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찬불가 발전… 포교활동 확대

조학유 스님 기록 남아 정리 가능
서창업씨 최초 성인합창단 구성
운문 · 석주 스님 찬불가 보급 앞장

연재를 시작하며

우리나라 불교음악은 비록 역사는 짧지만 깊은 학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1930년대부터 시작된 찬불가 운동은 우리의 것이 아닌 음악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내용만큼은 우리의 것으로 시작한 것이 다행이다.

한국불교음악의 역사는 조학유 스님께서 정확한 기록을 남겨 놓으셨기에 현재 우리가 미래를 위해 정리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권상로 박사님의 찬불가운동이 좀 더 활발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랬으면 학문의 도량인 동국대에서 불교음악이 활발히 진행됐을 것이다. 우리나라 찬불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운문 스님이다.

1천여곡이 넘는 가사를 직접 쓰면서 불교음악을 만들기 위해 작곡자를 직접 섭외하고 사비를 털어 작곡료를 마련해 불교음악을 작곡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줬다. 그 당시 김재민 추월성 김기우 정민섭 이찬우 등 기라성 같은 작곡가들이 있었다. 이때 불교계 최초의 지휘자와 합창단도 설립됐다.

불교음악이 활성화되면서 찬불가 보급운동을 위해 찬불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찬불가를 공모해 오늘날 불자들이 널리 부르게 된 '삼귀의'와 '사홍서원' 등이 당선되기도 하였다. 운문스님의 뒤를 이어 반영규씨가 등장했다. 또한 서창업씨의 출연으로 최초 성인합창단이 구성됐다. 이때부터 음악법회가 시작됐고 이어 류관순 기념관에서 음악회를 주최했으며, 동국대 강당에서는 찬불가 경연대회도 열렸다. 불교음악의 향상과 발전은 많은 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져왔다.

그 결실이 찬불가 동요집과 합창곡집의 간행으로 맺어졌다. 찬불가의 발전은 포교활동으로 확대돼 연합합창단이 세종문화회관에서 봉축음악제도 마련하고 음악제에 사용될 작품 위촉까지 하는 문화가 비구니 정덕 스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스님을 통해 불교음악에 동참된 지도자들은 변규백 김용호 한상린 이길상 김종현 등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분의 비구니 스님인 수법 스님의 주도로 시명스님, 최조웅교수, 연정숙선생님들이 성악동인회를 결성해 활동했으나 스님의 갑작스러운 열반으로 침체되었다.

그러나 운문 스님과 석주 스님의 노력으로 칠보사 어린이합창단의 음반 및 카세트 테이프가 제작 보급돼 찬불가를 살리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불교음악계의 상황이 열악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런 시기에 큰 힘이 돼준 광덕스님은 불교음악계의 등대와 같았다. 스님은 창작자들에게 작곡할 때 필요한 피아노를 보시했고, 창작자들은 스님에게 좋은 작품으로 보답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찬불가는 한층 더 발전되어졌다.

그러나 지금까지 작품으로 승화된 찬불가는 서양음악을 기초로 하여 작품이 완성되어졌다. 하지만 이것을 탈피하고자 노력한 이가 바로 변 선생이었다. 변규백 선생의 노력으로 찬불가가 비로소 작품으로 승화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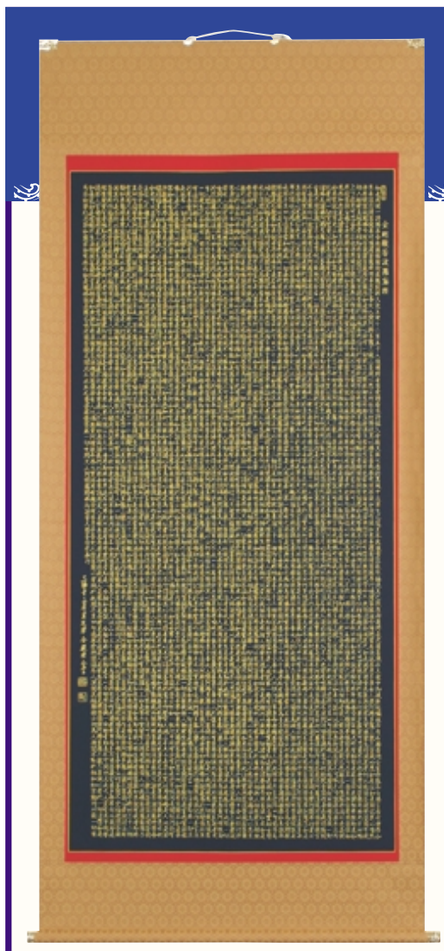
이후 해마다 연주홀에서 새로운 작품으로 연주회를 열고 공연 후 음반을 출시했으며, 찬불가를 집대성해 지도자들에게 보급했다. 또한 찬불가 2,000여 곡을 공모해 그 중 100곡을 선별, 합창곡집을 출간했으며, 신도용 찬불가를 제작했다. 지금까지는 일부의 뜻있는 사람과 단체에 의하여 구성되고 행하여진 불교음악의 활성화를 이제부터는 우리 모두의 계획과 실천으로 현실화 시켜야 되겠다.

안병길
1959년 충남 부여군 은산 출생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작곡과졸업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찬불가 편찬 위원(신도용/합창곡)
한국불교음악역사관 건립 위원
현)지장사 / 원적사 지휘자
현)(사)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인진쑥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숟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 (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엿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삭혀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빵 · 떡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위장, 간, 어혈에 좋은 인진쑥조청 1.2kg = 5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옻이 오르지 않는 山寺 참옻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율, 항암,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근 산도라지로 만든 山寺 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순희)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 조청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
행 자 모 집
복(福)중에서 발심공덕이 으뜸이라 하였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하와이 무량사에서는 출가하여 사홍서원의 원력을 세우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뜻과 미주포교에 원력을 가진 발심 수행자를 모집합니다.

1) 무량사 행자 자격
● 연령 18세 이상 50세 이하
● 고졸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 소지자
● 미국비자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조계종 종법에 의거 승려생활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2) 연락 이메일 : muryangsa@empal.com
※ 무량사로 출가한 행자들은 미국의 정규대학에서 불교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무량사 주지 백

5,175字 장엄한 불교 최고의 경전
금강경 족자

2007년 정해 돼지해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삼가 기원 드립니다.
금번 소개하는 금강경족자는 금강경 5175字를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장이신 정담(妊潭)스님께서 금분으로 한달동안 정성을 들여 직접 쓰신 작품입니다.
불자여러분이라면 돼지해에 집집마다 하나씩소장하시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항상 가슴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삼재에 든 巳 · 酉 · 丑(뱀띠, 닭띠, 소띠)생은 간절한기도와 족자의 기운으로 삼재에서 벗어나고 모든 재액을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불자님의 가정에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가 격 : 36만원 → 16만원 ◆ 200개 한정판매
◆ 크 기 : 세로 180㎝ × 가로 78.5㎝
(양면은 14K금봉으로 되어있습니다.)
▮ 사주명리 추명학
기초에서 완성까지 육체는 당대요, 이름은 만대요 역학공부를 하고 싶어도 너무 난해하여 망설이는 역학도들께서는 정담스님의 '명리학 재미있는 우리사주'(값19,000원), '사주에 모든길이 있다'(값26,000원) '성명학 바로 이이름'(값 24,000원) 세권의 책을 보십시오.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누구나 사주해설과 이름 작명이 가능 하게끔 세밀하게 엮어져 있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 2007년 정해년 정담스님과 만나십시오. 책은 유명 전국 서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에 한하여 사주무료 감정해 드립니다.

부산시 진구 부전1동 477-27번지 리베라 원룸 601호 ● 삼불사금강불교문화연구원 전화 : 011-488-0316 / 051-806-0316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I. 백장의 불씨

백장 회해(百丈懷海, 720~814)에게는 30여인의 제자가 있으나, 그중 위산 영우(?山靈祐, 771~853)와 황벽 희운(黃檗希運, ? ~850)이 드러났다. 위산은 백장청규를 최초로 실천하고 총림을 형성하여, 1500명이 넘는 대중을 이끈 선문의 대 존숙이다. 그리고 제자 앙산 혜적과 더불어 위앙종을 성립시켰다. 5가 7종의 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형성된 총림이다.

영우는 대소승의 계율을 두루 섭렵하고 23세 때 강서지방으로 행각하여 백장을 참문하였다. 백장은 영우를 보고 대승법기임을 간파하고 입실을 허락하였다.

어느 날 스승 백장이 영우에게 물었다.

"옆에 선 사람은 누구인가?" "영우입니다."

"화로에 불이 남아 있는지 헤쳐 보게."(汝撥爐中有火否) 영우가 화로를 뒤적거려 보았지만, 불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불이 없습니다."

백장이 일어나서 몸소 불을 헤쳐 작은 불씨를 찾아들고서 말했다. "이게 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 말끝에 영우가 깨달음을 얻고 절을 하면서 사례하였다.(師發悟禮謝)

이에 백장이 진중하게 말하였다.

"이는 잠시의 지름길일 뿐이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성을 보려하거든 반드시 시절과 인연을 관찰하라' 하였으니 시절이 이르게 되면 미혹했던 이가 문득 깨달은 것과 같고 한 번 잊은 번뇌망상을 영영 기억함이 없는 거와 같은 것일세.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기를 '깨달음은 깨닫지 못함과 같아 본래 마음도 없고 법도 없다.' 하신 것이네. 이렇듯 허망한 범인과 성인들의 마음이 없는 本來心法이 원래 스스로 갖추어 구족해 있으니 이제 이미 네가 그러한 터이니 스스로 잘 護持하여라."(『전등록』권9「담주위산영우선사」)

> 불이 남아 있는지 헤쳐보게
> 불성을 보려거든 시절 · 인연을 관찰하라
> "불을 찾아내니 재는 죽지 않았네"

백장의 가르침은 일체의 삼라만상을 바라보는 세심하고 면밀한 곳에서 일어나는 마음을 최대한 주의 관찰해야 한다는 것. 불을 통하여 보여주는 그곳, 사량분별이 멈추는 大用의 세계. 끝없이 움직이는 행동의 세계. 일체의 제2차적 定相化된 관념의 세계를 넘어 바로 활활발발한 찰나의 세계를 계합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스스로 힘써 실참실수하므로 시절인연이 닿도록, 그 시절인연을 여시하게 투시해야 함을 간곡히 부탁한다. 그러할 때, 축적된 일상의 세계, 개념의 세계에 덮여 있던 자성본원이 여지없이 드러낸다고 백장은 간곡히 영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며 인가한다.

곧 시절인연이 익으면 자연, 미혹했던 사람이 마치 천년 동굴의 어둠이 한 줄기 빛으로 가득 참을 알듯이, 이것은 우리가 본래 갖추고 있던 스스로의 빛이며 다른 곳에서 들어온 것이 아님을 설한다.

후대의 한 선객은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화로 속을 한가로이 한 번 헤쳐서
(等閒一撥紅爐裏)
별똥 같은 불을 찾아내니 재는 죽지 않았네
(擧火如星灰不死)
잡히는 대로 들어 올린 잠깐 사이에
(信手拈來瞬目間)
불법이 얼마 안 되는 줄 비로소 알았네
(始知佛法無多子)
—지비자(『선문염송』제9권 355칙「有火」)

위의 게송 1행과 2행에서 풍겨오는 담담함과 예사로움은, 우리를 한층 가라앉히며 더욱 창연한 적요의세계로 몰아간다. 무엇이 이리도 당당함을 넘어서 저 밑바닥까지 평범하게 하는가. 2행에서 '눈동자에 붙어서 반짝이게 하는 별똥 같은 불'. 이 불은 우리 자신의 영롱한 불이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다. 그러나 단지 타오르는 불의 씨앗을 보지 못하고 잿더미를 볼 뿐이니, 우리는 잿더미이다. 잿더미 역시 불씨와 바람을 만나면 타오르는 불이 된다. 이럴 때 4행에서 지비자가 노래하듯이 "불법이 얼마 안 되는 줄 비로소 알았네"(始知佛法無多子)로 된다. 사실 佛法은 不法이다. 얼마 안 된다고 말해도 안 되는 것이니, 오직 그렇게 알면 그 뿐이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설악 시조집
조오현 | 설악문도회 편찬

가격 디자인 없이 '有' 역설…선취 물씬

이 시집에는 가격표가 없다. 시집 간기나 뒤표지에 값을 인쇄하지 않은 시집이라는 말이다. 작년 7월 말 스님을 뵈러갔다가 바로 출간된 이 시집을 받았다. 스님은 시집 속표지에 '설악산 落僧 霧山'이라는 서명을 해 주었다.

설악산은 스님이 주로 주석하는 절이 있는 곳이고, 낙승은 타락한 중이라는 뜻이다. 스님은 대화중에 천진하게도 자신이 낙승이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한다. 무산은 그의 법명이다. 그의 법호는 萬嶽이고, 자호는 雪嶽이다.

조오현은 그의 필명이다. 시집 맨 뒤에 자신을 '현재 설악산 산감'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최근 어느 잡지에 발표한 시 약력 란에 자신을 '노망기가 있는 노인'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방문 앞에 경향의 문사들이 성시를 이룬다.

1932년 생인 스님은 어려서 절집에 소머슴으로 들어가서 글을 배웠다고 한다. 무학이나 영명하였던 그는 1968년 <시조문학>으로 문단에 등단을 하여 수십 년 간 시조를 써온 시조시단의 원로이다. 주변에서 내어준 그의 이름이 저자로 박힌 시조집과 『벽암록』 등 번역서와 산문도 몇 권 있다.

그간 발표한 시조 145편을 문도들이 모아서 만든 이 시조집은 편집자가 일일이 각주를 달았기 때문에 불교에 소양이 적은 대중들도 읽기에 편하다. 어느 상업출판사에서 내려던 것을 스님이 뺏어와 인쇄소 골목에 가서 싸게 인쇄했다고 한다.

시집 표지는 아무런 디자인이 없이 시집 제목과 시집을 모은 설악문도회 이름만 박았다. 디자인이 스님의 성품처럼 깨끗하거나 간명하기도 하고, 무디자인의 디자인을 역설하고 있다. 그래서 가격표도 없고 디자인도 없는 이 시집을 이 난에 처음으로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토속어와 한자, 절집 말을 시 창작에 거침없이 사용한 그의 시에서 선적 향취와 향기가 가득 묻어난다. 창작자가 회주를 역임했던 설악산 신흥사에 딸린 내원암 암자인 무설전 벽화를 보고 착안한 발상이 기발하고 재미있는 시를 한 편만 맛보자.





내원암 무설전 벽화
누가 그렸나

황새 한 마리
눈 먼 잉어를 물고

그 화공이 돌아오기를
목을 꼬고 있더군요.

—「무설설 · 4」전문

사찰음식의 모든 것



❶ 솔잎차, 솔잎식혜

솔잎하면 생각나는 스님이 있습니다. 평생을 생식하며 선방에서 정신하셨던 비룡 스님입니다. 제 나이 15살 때 제주도 한라산 천황사에 계시던 스님이십니다. 생솔잎가루와 날콩가루 그리고 솔가지 속껍질을 그늘에 말려서 드시던 스님은 양 볼이 항상 발그스름한 것이 잠에서 갓 깨어난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맑은 눈과 잡티 하나 없는 살결. 월정사 선방에서 98세의 나이로 열반하실 때까지 잔병치레도 없이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옛 부터 솔잎은 장기간 생식하면 늙지 않고 몸이 가벼워지며 힘이 나고 흰머리가 검어지고 추위와 배고픔을 모른다고 해서 '신선(神仙)식품'이라고 했습니다. <동의보감>에 의하면 솔잎은 고혈압이나 말초혈액순환장애로 인한 팔다리 저림, 불면증, 중풍, 신경쇠약 등에 효험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 불면증 등에 효험
옥시프르디산 노화 방지

솔잎의 주요 성분은 엽록소와 비타민A, 비타민C 인데 이는 혈액을 정화하고 괴혈병을 예방합니다. 엽록소는 혈액 생산이나 육아발육에 좋으며 특히 솔잎에 포함된 옥시프르디산은 세포를 젊어지게 하여 노화를 방지하며 젊음을 유지시켜 주는 작용을 합니다. 한방에서는 솔잎을 약술 형태로 복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증을 진정시키고 피를 멎게 하며 마비를 풀어주는 데도 많이 쓰입니다.

사찰에서는 솔잎, 송피, 송진을 식용과 약용으로 많이 써 왔습니다. 그 중 솔잎차와 솔잎식혜 만드는 법을 소개합니다. 솔잎식혜는 정초 신도님들이 불공을 드릴 때 올린 마지밥이 많이 모이자, 이를 다 먹을 수 없어 식혜로 만들어 두고 먹었던 유서 깊은 사찰음식입니다. ■ 정산 스님(산촌 대표)



솔잎차
재료: 솔잎, 생강, 배, 설탕

1. 솔잎을 씻어 물기를 뺀다.
2. 배와 생강은 껍질째 씻어 얇게 저민다.
3. 물을 끓인 후 설탕으로 좋아하는 당도를 맞춘 후 완전히 식힌다.
4. 소금기 있는 음식을 담지 않은 깨끗한 독을 씻은 후 짚에 불을 붙여 독 속을 그을려 소독한 후 젖은 행주로 닦아내고 물기 없이 건조시킨다.
5. 독 안에 솔잎을 한 켜 깔고 배와 생강을 얇게 까는 것을 반복한다. 맨 위에는 솔가지를 얹어 내용물이 뜨지 않게 한다.
6. 독 안에 식힌 설탕물을 붓는다. 설탕물은 솔잎차 재료의 2배 정도가 적당하다.
7. 독 입구를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막고 뚜껑을 덮는다. 그늘에서 15일 정도 발효시킨 후 마신다.



솔잎식혜
재료: 솔잎, 생강, 쌀밥, 설탕.

1. 솔잎을 씻어 물기를 뺀다
2. 밥을 고슬고슬하게 지어두고 생강은 얇게 저민다. 솔잎은 절구에 찧어 놓는다.
3. 소독된 독에 솔잎 찧은 것 밥위, 생강과 설탕을 한 켜씩 깐다. 켜켜이 쌓은 다음 솔가지를 얹어 내용물이 뜨지 않게 한 후 식힌 물을 내용물이 충분히 잠길 정도로 붓는다.
4. 겨울에는 얼음이 얼지 않는 곳에 3일 정도 둔다. 먹을 때는 식혜를 만들 만큼을 떠서 솥에 끓인 다음 솔잎은 건져내고 먹는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일시불은 135만원에 공급함※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 생활 정보

▷ 광고문의 : TEL 02)2004-8213~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 1Box(9×4.4) 8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알본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계, 탱화 업계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정보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회심곡.천도재.
49재.바라.태평소
학인스님 행자모집
범음범패 교육도량
인간문화재 9호 이수자
마산 밤밭고개 세원암
016-428-6665
055)222-9486 천우 합장

영어도 배우고 해외 포교에 뜻이 있으신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조계종 스님)
경남 불교대학 세원사
055)221-7730
016-428-6665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경전 · 명리 주역
학인무료강좌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살풀이 모든 전통무용
051)557-6682(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역학개인지도
2개월 완성
물상으로 쉽게 영가를 찾아내어
천도재를 지내게 하며 신도포교에
성공할 수 있도록 책임지도
051)818-2358(부산)
010-5345-2358

눈 눈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노환으로 작은글씨 안보이시는 분
눈흐림, 눈건조, 눈부심, 침침함, 눈빨빡함,
눈곱, 충혈, 시력강화, 렌즈착용 하신분
섭취하고, 반응 없을시 100% 환불
구입문의 (02)2631-2205,1305

범천명리강의실

사주(일진법)	3월 5일(월) 낮2~5시 첫강의
기문둔갑	3월 6일(화) 낮2~5시 첫강의
사주(용신)	3월 7일(수) 낮2~5시 첫강의
육 효	3월 9일(금) 낮2~5시 첫강의

* 첫강의에 한해서 무료공개강의 합니다
* 각 과목 3개월에 확실히 책임완성 지도합니다
www.beumchun.com
02)389-6597(연신내)

사주 명리 구성학 성명 택일
궁합 관상 풍수
빙의 전생 영가치유비법
역학개인지도,숙식제공
보현사 학산철학원
054)383-4569
016-717-1592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아넌)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40~50대
018-546-2377

청정한 나반도량 입니다. 천일 기도 하실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055)835-9450
011-9790-1779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부산 영도)
010-4810-8740

청정한 남해바다 비경이 함께하는 수행도량에서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010-2511-1188

유치원에서 급식 담당할 보살님 모십니다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019-9729-700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60세) 지리산
011-483-5639

문화재 불교전통 범음 범패를 배우신 학인스님을 모십니다
(천수바라, 작법, 나비춤, 상용염불)
▷충남아산
011-850-017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대구
011-576-2737

산사에서 기도하면서 함께하실 공양주보살님
(40-50세) 처사님
(50-60세) 모십니다
(월보시금 100만원)
011-365-782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845-3596

사찰 구합니다
• 지역은 관계없음
• 선세나 월세
010-8828-3002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조상의 흐름이 잘못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갈등,학업성적 부진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찾아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라면 ○표를 믿겠죠.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권해 없습니다
02)826-5067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기도스님 구합니다
(40-50세)
011-551-1719
051)542-4848

산세수려한 사찰중 염불기도전문스님이 필요한 사, 암은 전화주세요
054)433-6315
010-4520-6787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50대후반)
▷인천 조계종 사찰
011-9390-3879
032)772-7029

부전자리 찾습니다
010-4586-8763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서울 정릉
02)919-0480

사찰 구함
• 행정구역상 서울로된곳 서울근교
• 전통사찰및 단독주택 형식으로 현재 사찰운영 하는곳
• 60평~70평
010-3451-7025

육임 백법 강의 수강생모집
지금까지 누구도 강의 하지 않았던 백법 강의를
1월부터 공념 학당에서 5개월 과정으로 강의 하고자 합니다
육임에는 아주 귀한 백법이라는 비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숙지하면 누구도 사주 없이도 무슨 이유로 온 것인 줄을 알 수 있는 비법중에 비법입니다
문의: 02)793-7333 http://www.saju79.com

氣중국기공훈련반
중화양생익지공
모든 중생제도 최고의 지도자 양성
천수, 천안, 팔만사천 법문 인체속에있다.
경락주천, 소주천, 대주천, 단도주천, 천, 지, 인 완성지도함
전화 : 전남 순천 061)741-3053, 016-632-0345
전남 광주 062)376-3053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28숙 특별지도
• 28숙과 풍수와 사주를 배우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도록 개인지도 합니다
• 위치 :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02)926-1259 / 011-741-0867

노인전문요양병원 스님 및 불자모심
최고시설을 갖춘 영남불교대학 大관음사 부설 무량수전 (노인전문요양병원)에서 스님 및 불자를 모십니다.(완전무료)
◆ 대상 : 치매, 중풍을 앓고 있는 중증의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인 노인과 스님
◆ 문의 : 053)471-0991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大관음사

영남불교대학 신입생모집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강의
▸ 전국 제1의 불교대학 · 경전중심 · 체계적인 교육
● 4월 3일(화), 4월 5일(목) - 주간반, 4월 5일(목) - 야간반, 각요일 선택, 주1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 직강
● 인터넷반, 통신반, 도서관, 탁아방, 컴퓨터실 등 첨단시설
● 조계종 인가 신도교육 전문기관
▸ 행자모집 (총무스님) 문의 : 011-9852-0075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053)474-8228	053)811-0337	053)312-8221	054)452-6636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촛불잘밝히는방법★장사(사업)잘하는방법★결혼인연
행복을 찾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왕따 / 소외감 / 비만 / 스트레스 / 악몽 / 변비 / 알콜중독 / 부부갈등 / 난폭한성격 / 원한관계 / 우울증 / 심근경색 / 코고는사람
불공 생일 / 이사 / 개업 / 묘지이장 / 방생 / 입학 / 시험합격 / 기타
영가천도 · 삼재 업장소멸
직장인을 위한기도★가족이함께기도
우리말대불정 천수경 약사여래경 지장경
능엄신주
해석 알고 싶은분 능엄신주 액자 있음 테이프 활용
소년 · 소녀가장 독거노인돕기 :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
자녀 탈선 예방을 위한기도
대학입시기도
사법 · 행정 · 취업
물어보세요 011-817-5496 / 010-7377-9446 / 019-434-0878 / 017-520-7546 / 010-2331-0354 / 016-787-3977
꿈바위불교교육원
018-789-5008
철야기도 100일 기도
서울 · 부산 대구 · 마산

(재)세계불교 법왕청 평화재단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 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한다
• 종 정 : 각 암 대종사
• 부종정 : 혜 산 • 중앙종회의장 : 정 관
• 총무원장 : 능 인 • 총무부원장 : 법 진
본 종단 종지 종통에 뜻있는 종도 및 사암을 모집함
1. 각 사암 등록 및 각 교구 종무원 등록을 원하시는 분
2. 불교무술 자격증 및 단증을 취득 하실 분
3. 승려가 되고자 하시는 분
4. 종단간부 임원직을 맡고자 원하시는 분
- 산하기관 -
(사)세계불교 호국 무술 연합회
(사)호국 불교 단체 협의회
(사)전국 불교 체육인 연합회
◆ 총무원 : 구미시 사곡동 670-1 전통불교대학 삼보선원
◆ 문 의 : 054)464-4725, 464-4735 총무원장 010-7302-0077

增補 太極四柱
易學은 본래 어려운 學問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것은 古典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五行의 變化法則일뿐 格局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運命을 감정할 수 있다. 著者 역시 30餘年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補完한 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年,20年을 공부해도 用神 잡기가 어렵고, 오판(誤判)과 실수(失手)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鑑定)이 正確하고 論理가 정연(整然)하므로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배우기가 쉽다.
이책은 著者가 前日에 出刊한 太極四柱를 획기적(劃期的)으로 수정보완(修正補完)한 것으로 著者가 多年間에 걸친 경험적실관(經驗的實觀)을 통한 핵심적(核心的)인 理論과 자료(資料)들을 모아 편집(編輯)한 것으로 四柱를 공부하는데 좋은 지침서(指針書)가 되리라 확신한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많은 참고(參考)가 될것이다.
◆ 著者 : 孫中山 (定價 : 25,000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會長(74세)
주문 전화 053)324-2468 053)326-4585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2. 7부터 (수 · 목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27471 현대불교신문사

· 전화 : 02) 2004-8213~9 / 02)732-1522 (直)
· 전송 : 02) 737-0696 · e-mail : jabi1522@empal.com

사 찰 안 내
● 위치:충남 대전지역
● 법당:25평
● 요사:70평
● 부지:120평
● 가액:2억
● 위치:경기 광주
● 법당:170평
● 요사:100평
● 부지:3500평 (외2000평)
● 가액:65억
● 위치:경남
● 법당:30평
● 요사:120평
● 부지:21700평
● 가액:25억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포 신도시
● 건물: 4층에 2층 50평 삼존불, 후불, 신중, 감로, 원목불단 법당시설 특급완벽, 즉시 법회가능 방2, 사무실, 주방, 욕실, 화장실
● 가액: 보증금3천만원 월세 30만원(조정가능) 시설비 : 답사후 가격절충
● 포교에 원력을 갖고 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011-763-1080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강원도 원주 시내
● 평수: 40평(법당, 방2, 공양간)
● 2층건물중 2층(옥상 단독사용)
● 상가아파트지역, 원불 모셔져 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 답사후절충
011-258-1147

사 찰 안 내
● 위치: 순천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243평
● 건물 25평, 요사채 20평
● 가액: 2억 5천만원(절충가능) 주차가능 , 꼭 하실분 전화요망 스님건강관계로 급 양도코져함
017-875-671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고양시 통일로변
● 대지 125평, 법당 30평
● 옥불, 삼존불
● 1층 단독 요사채 30평 사무실 10평, 방3개
● 가액 : 3억 9천, 절충가능 (은행융자6천5백)
017-232-3389

사 찰 안 내
● 위치:천안근교
● 부지:140평
● 법당:12평
● 요사:16평
● 가액:5천5백
● 위치:서울
● 부지:95평
● 법당:24평
● 요사:30평
● 가액:6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주세요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
● 법당, 요사채, 황토방 넓은 정원,각종 유실수
● 3700평
● 보증금 200만원 년350만원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근교 18000평 19억
● 부산 4억
● 부산 영안실 전세 6억
010-9798-1091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수불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55)934-1719
011-9571-1710

천하제일 명당 그림같은 대 도량처
이른 아침 자욱한 안개속에 연화봉들이 즐비하고 갓바위 부처님이 보이시며 어우러진 노승이 정원을 가득 채우고 대구공항 10분, 갓바위 가는 길목
● 755평 급매 6억
한 국 불 사 (한국 최고의 사찰 컨설팅)
연락처 : 02)6674-3535 / H.P 010-3154-3535
※전국 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남 거창 ● 사찰부지: 유명산 자락 최고풍광요지 , 계곡있음(연꽃지형형태)
● 종교시설부지 겸 주택부지도 허가가능
● 사찰부지 관리지역 : 전체평수 4390평, 대지 2000평
● 허가진행 중 사찰건립계획 요사 겸 주택계획 진행 중 현재 토목설계 1000평 허가 득
● 법당 50평(목조), 요사 30평(목조), 화장실 10평
● 지금 현재 유실수(밤나무, 감나무) 주목군락 형성, 주택1동, 창고 1동
● 촌집 전원주택(텃밭 가능) 목조기와 주거가능
● 대지 약 100평, 건평 약 15평, 창고 약 10평, 화장실(재래식), 마을지하수 청정 1급수
● 양도가액:2억 9천만원
011-741-3415 / 010-6283-9792

토 굴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시 (시내에서 10분거리)
● 대지 190평(90평은 텃밭으로 사용중)
● 방4개, 후원, 창고, 화장실
● 가액 4,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6401-4939
010-5631-8439

● 위치: 전북 익산
● 사찰부지 300평 사유지 600평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1동
● 100년된 약사여래불 모셔져 있음
● 가액:1억 7천만원
대원불사 (한국 사찰 컨설팅)
연락처 02)454-3369
H.P 011-775-8709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상담 환영합니다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부천여중 뒷편
● 건물: 4층에 3층
● 평수: 30평
● 시설완벽, 8년 되었음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6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7-375-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부지 350여평 건평 45여평, 법당1 요사채1, 삼성각1, 방4
● 특징 : 지하수 물 좋음
● 가액 : 상담 후 결정
011-595-787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부림면 (33번국도에서 50m)의령신반에서 2Km)
● 부지 : 대지400평 건물 법당 (15평 목조기와) 요사채 신축 33평 (평당300만원소요) 조경공사 2천만원 등
● 가액 : 2억 2천 (설정1억 할수 있음)
● 운영 하실스님있으면 상담가능 (용암사)
연락처 011-9329-4241 011-9506-6612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700만원 모든 시설 완비
스님 이민으로 급매(몸만 오세요)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동자동 (서울역 부근)
● 아미타, 지장, 약사, 관음
● 보증금 5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살림가능
● 법회즉시가능
02)718-0324
02)718-0327

사 찰 안 내
● 위치:경북 김천 직지사에서 차로 2~3분 거리
● 법당 30평, 요사채30평, 10평 조경완료
● 바로 앞 큰 계곡이 있어 경치수려
● 심야전기 지은지 2년
● 가액: 3억 (절충가)
016-274-3170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관악구청
● 5층건물의 2층
● 원불50불, 관세음보살님 50불 모신지 한달 되었음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 80만원 시설비 2천만원(집기일체)
010-8675-5858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 평수 : 2,3층 각 30평
● 2층 - 요사, 큰방, 사무실, 부엌, 작은방.
3층 - 법당, 삼존불, 탱화, 지장단, 산신각, 각불탱화,
● 가액 : 2천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010-3167-1774
032)662-1774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 평수:50평 4층 옥탑방,옥상 사용가능
● 법당1 방1 공양간
● 보증금 2000만원 월70만원 중간세 가능 시설비는 상담후 결정
010-2223-5800

명 당 터 를 보 입 니 다
● 면적 : 13350평(임) 西向
● 위치 : 경남 고성 IC인접(대전-통영 고속도로)
● 형태 : 陰處로 나무 숲이 꼭대기까지 좋음
● 용도 : 관리지역인 만큼 길, 집등 20%까지 사용
● 기대 : 나뭇잎처럼 생긴 만큼 비구니 스님이나 통큰 여자분께서 잘 활용 했으면 좋겠음
● 가격 : 평당 2만원 이상이나 절충하겠음
● 길은 아직 미비나 290평 사면 해결(坪 10만원 入口) 간벌함으로 지금 재목 선별해서 사용가능
연락처 010-2245-4862

사찰(암자)안내
● 위치: 밀양시 무안면 포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에 위치함
● 대지:약 200평
● 요사채 60평 법당 20평 (아미타불삼존불)
● 가액:1억9천8백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연락처 055)356-8487
010-5883-500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동두천 땅 500평(산)
● 법당 50평, 요사 50평
● 보증금 3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답사후 절충
019-477-66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창원시 중앙동 부근 도심속의 상업지역
● 포교 최적지, 10층중에 2층
● 평수:72평
● 가액:1억5천만원
011-307-4223

오래된 작은 사찰 구함
법당은 작아도 요사채 넓은곳 계속커 나갈수 있는 사찰 텃밭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010-2606-1299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면
● 대지 92평 정남향
● 방大3 욕실2개 부엌1개
● 금액 : 4천 2백만원
016-671-1568
010-4586-1568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칠곡군 왜관근교
● 몰만들어오시면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54)875-6976
016-849-888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경산시 최고 중심 최고의 시설
● 건물: 5층 건물에 5층(EV유)
● 평수: 80평, 법당 40평, 주지실 종무실, 후원 30평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70만원
● 시설비 : 2500만원. 사정상 급 양도
● 인수나 같이 운영하실분 모십니다
053)811-1028

사찰(급)안내
● 위치:대구시 동구 신기동 (구 반야월역 앞)
● 대지:80평
● 건물:요사채 스님방, 공양간 (촌집개조) 법당8평, 삼존불, 주차시설완비,
● 년 사글세 100만원 시설비 2000만원(보증금없음)
053)962-7362
011-506-389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녕에서 5분거리
● 부지: 550평
● 법당: 20평, 관음전 6평
● 산신각 4평, 요사채 30평(단청필)
● 특징: 심야전기 보일러 , 노송이 어울려져 있는 아름다운 신축 법당(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함)
● 가액:1억 5천만원(절충가능)
010-6727-8890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대지 : 200평
● 임야 : 3775평 (관리지역)
● 지방도로 150m 인접
● 가액 : 1억 3천만원
054)862-3996
011-9330-2810

사 찰 터 안 내
● 위치:경북 구미시 도개면
● 임야:7,350평
● 도로변에서 가까운 사찰 (정자) 별장, 묘터 명당자리
● 가액 : 1억
054)471-3997
011-513-9312

토 굴 안 내
● 위치 : 경상북도 고령
● 평수: 153평
● 건물: 법당 12평 요사채 20평
● 가액:3천7백만원
018-541-1890

토 굴 안 내
● 위치:경남 창녕군 남지읍
● 평수:대지200평+국유지 210평 사용평수:410평 황토방1(8평)옛날 기와집1 (방2,부엌1,화장실1) 잔디마당, 연못있음
● 가액:7500만원
017-541-2133

사찰안내
● 위치 : 대구시에서 5분거리 위치만점 아파트 밀집 고속도로 IC인접
● 대지: 135평, 법당20평,요사40평,방 5개 사무실
● 신개발지 시내버스종점, 교통편리 텃밭있음. 주차장 확보
● 삼존불 봉안 화장실 3개 창고
● 가액: 2억7천만원(융자가능)
011-825-1662
꼭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불로화정(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



오랜 세월 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 15여 종의 첨가물을 20년간 발효시킨 강정식품으로 50여년전 법천 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비장된 비법을 전수 받은것 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모든 질병이 회복되며,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 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장질환** 모든 위장질환이 회복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고대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장생 할수있는 선약을 구하러 우리나라에 직접 다녀 갔다는 전설의 「不老化精」은 MBC방송에서 절찬리에 방영된 사극 「대장금」의 극중 한상궁이 땅속에서 20년간 묻어둔 「감식초」에서 비방한 비법으로 **진액중의 진액**으로 만든 「不老化精」입니다.

◆ 가격 : **정가 육십만원**(20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 2병)**을 회원에 가입하신 여러분에게 오십만원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1병 30만원)**

〈우 체 국〉
703975-02-094201
예금주:윤정현
콜센터:1588-1000
대구지산동우체국 053)782-2314

〈농 협〉
176277-56-097900
예금주:윤정현
콜센터:1544-2100
대구축산동농협지산동지점 053)783-9901

전 화 : (053)257-7032
휴대폰 : 011-1756-9550

정선 동강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청국장분말
청국장환
된장/간장

강원도 정선 동강 백운산 일원 청정 지역에서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 생산한 대두 100%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환

▶청국장이 우리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환을 만들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환은 정선 동강앞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황토방에서 숙성, 네시틴 균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환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이 되겠습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승화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환 500g 25,000원
된 장 1kg 12,000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쟁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달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 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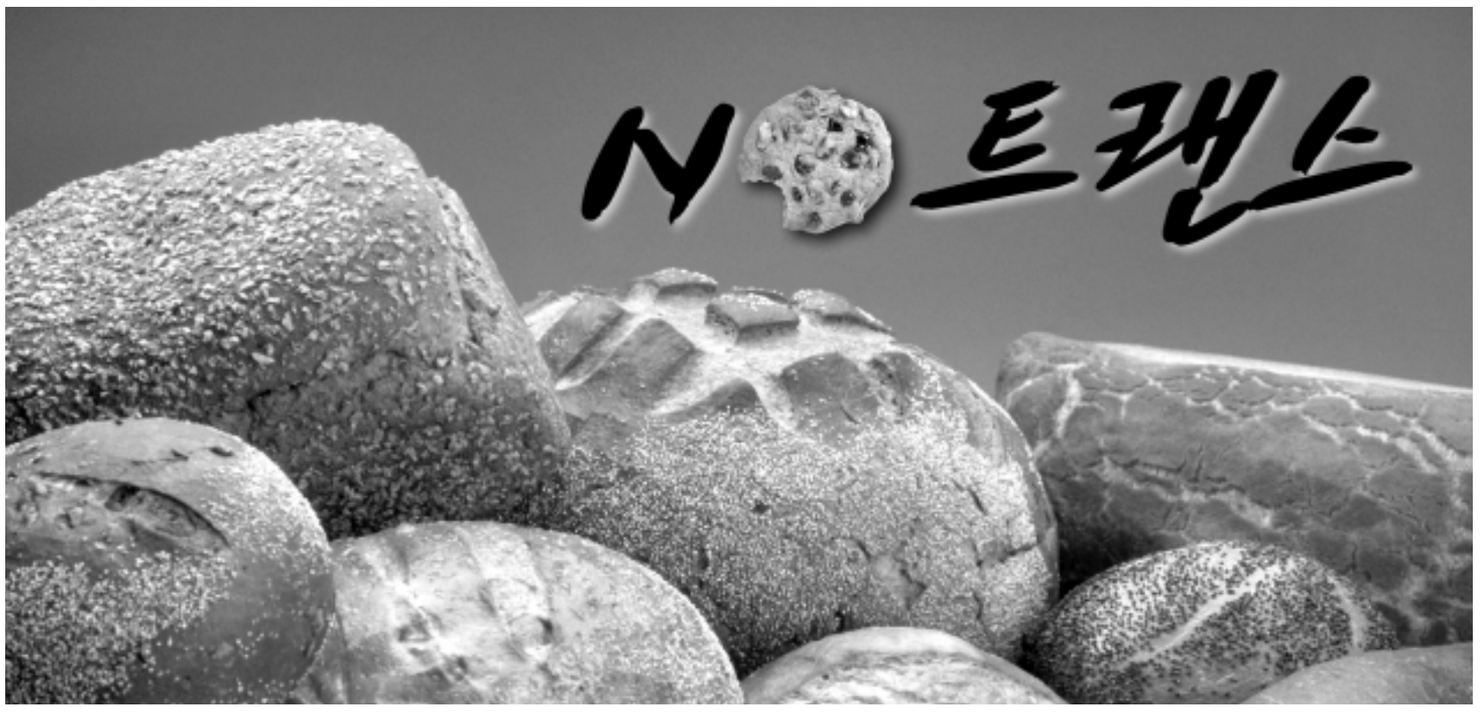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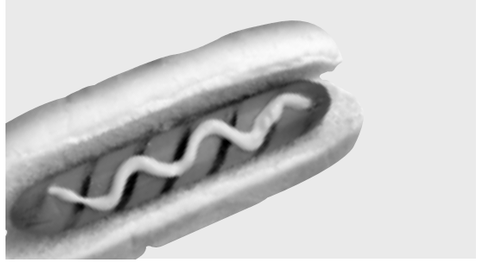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트랜스 지방 '제로'에 도전한다

식당에서 '노 트랜스(No trans)'라고 적힌 팻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과자나 식품에 '트랜스 제로(trans zero)'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요즘 먹을거리와 관련된 논란 중의 하나가 '트랜스 지방'입니다. 과자나 빵, 패스트푸드 등에 포함된 트랜스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심장병, 동맥경화 등을 유발한다는 연구결과 때문입니다. 지난해 연말 미국과 영국 등에서 트랜스 지방 사용 규제를 발표한 후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무성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에 관한 궁금증을 Q&A로 풀어봅니다.



혈관 질환 · 비만 등의 원인
바삭바삭 고소한 식품에 많아
음식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입맛 바꾸는 노력 선행되야

Q : 트랜스 지방(trans fat)이란?

A : 트랜스 지방이란 불포화지방인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지방산을 말합니다.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마가린이나 쇼트닝 등으로 만들 때 수소를 첨가하는데, 이때 지방의 구조가 변화해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집니다.

Q : 섭취를 제한하는 이유는?

A : 트랜스 지방은 포화지방과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과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1999년 미국 하버드의대가 제출한 '트랜스 지방산과 관상동맥질환' 보고서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포화지방의 2배이며, 이는 혈관을 좁게 만드는 나쁜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인다고 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같은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면역을 떨어뜨리고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1월, 캐나다 정부는 2005년 말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12월부터 해당 식품의 트랜스 지방 함유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Q : 어떤 음식에 많이 포함되어 있나?

A : '바삭바삭하고(팝콘, 프라이드치킨)' '부드럽고(케이크, 패스트리)' '고소한(과자, 마요네즈)' 음식일수록 트랜스 지방 함량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식품으로는 마가린과 쇼트닝, 마요네즈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만든 도넛 과자 케이크 피자 쿠키 감자튀김 햄버거 초콜릿 가공품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 평균 2.6g의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하루 섭취 열량 가운데 트랜스 지방에 의한 열량이 1%가 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미 적지 않은 양을 섭취하고 있는 것이지요.

Q : '트랜스 제로' 식품은 안전한가요?

A : 최근 트랜스 지방의 유해성 논란이 일면서 일부 외식업체나 기업들이 '트랜스 지방 프리'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패스트푸드의 경우 조리 시 식물성 유지를 사용해 트랜스 지방으로부터 안전하다고 하지만, 식물성 유지인 '팜유'는 포화지방 함량이 높습니다. 포화지방 역시 체중증가와 나쁜 콜레스테롤(LDL) 수치를 높이는 물질이므로 많이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실제 '트랜스 제로'라고 표기된 경우에도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국의 기준에 따라 1회 섭취 분량이나 식품 100g당 트랜스 지방 함유량이 5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도넛이나 패스트푸드, 제과점 빵 등의 즉석조리식품은 식품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어느 정도의 트랜스지방이 함유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Q :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려면?

A : 가장 시급한 것은 쇼트닝이나 마가린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콩기름이나 옥수수기름 등 식물성 기름이라도 오래 사용하거나 반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도 찌거나 삶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을 이용해 고온 · 고압에서 조리한 식품이나 패스트푸드도 적게 먹도록 합니다. 무엇보다 바삭하고 고소한 음식에 길들여진 아이들의 입맛을 바꾸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장기적으로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수령 기자

인류 문화속의 茶

23. 사원 차(寺院 茶)

한대(漢代)의 불교는 황실에서 복(福), 수명(壽命)이나 국가의 안녕을 구하는데 이용됐다. 점차적으로 중국의 전통과 교유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것을 중시하는 불교인 천태 · 화엄 · 선종 같은 종파가 생겼으며, 선종은 마음이 맑고 고요하면 곧 부처가 된다는 수행방법을 제시했다. 황실에서도 선종을 수용해 빠른 속도로 발전했다. 번잡한 종교의식을 거행하지 않아 문사들은 자유로운 신도가 되어 불교와 차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불교사원 내부에 전문적으로 차 마시는 곳인 차당(茶堂)을 설치하여 차 마시는 시간과 차 의례(茶儀禮)시간을 따로 두었다. 법당에는 차고(茶鼓)를 설치하여 북을 두드려 스님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등 점진적으로 사찰 내의 차가 제도화되었다.

사원 내 茶堂 · 茶鼓 설치 음다 행위 제도화
직접 경작한 차 최상급 골라 부처님께 공양


북경 대각사의 명혜다원

차당에 모인 선승(禪僧)들은 불교의 교리를 토론하고 신도와 손님을 초대하여 명차를 맛보았다. 사업상으로 만나거나 교분을 쌓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차의례 절차는 매우 엄격하였다. 당두(堂頭)가 차 의례를 열 때는 당두 책임자들만 참석했지만 수좌(首座)가 의례를 베풀 때는 사원 내의 모든 사람이 참석했다. 사정이 있어 참석을 못 할 경우는 사전에 미리 알렸으며 규칙은 엄격하여 참석자들은 반드시 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였다.

또한 사원에는 차두(茶頭)가 있어 전문적으로 물을 끓이고 차를 끓여 손님을 대접하기도 했다. 또한 어떤 사원은 문 앞에서 차를 나누어 주는 스님이 따로 있어 여행객들에게 차를 주었다. 선승들은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이를 닦고 차를 마신 후에 예불을 하고 또다시 밥을 먹은 후에 먼저 음차하고 불사를 수행했다. 좌선을 할 때 매번 한 개의 향을 피워 완전히 태우고 난 뒤에 차를 마시며 정신을 맑게 한 뒤 생각을 모았다. 어떤 선승은 하루에 수십 잔의 차를 마시기도 하였다. 이들에게는 차 마시는 것이 일상에 중요한 일이였으며, 차 또한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이 되었다.

이렇게 되자 사원에서는 차 마시기를 더욱 권장하여 승려들이 차를 경작하는 것을 주장했다. 남방의 명산 고찰은 땅이 비옥하고 기후도 온화하여 차나무가 자라기 좋은 곳으로, 사원에 차나무를 심어 직접 차를 따고 만들어 마셨다. 승려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차를 만들었으며, 그 차는 아주 정밀하고 품질이 좋아 경제적 효용이 높았다. 또한 부처님께 공양을 하고 선정(禪定)에도 쓰이므로 승려들은 일과 중에서 차나무를 심고, 만들고 마시는 것이 비중이 컸다.

중국의 명차(名茶)는 명산(名山), 명사(名寺)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승려들은 차를 3등품으로 구분하여 최상급의 차는 부처님께 올렸으며 그 외에도 불교 행사에 차로서 예를 올렸다. 이등품 차는 손님이나 신도들이 방문하면 접대하는 차로 없어서는 안되는 물품이었다. 삼등품은 승려들이 일상에서 마시는 차로 이용됐다.

귀족과 권세가들이 차를 이용하고 좋아하여 사원차는 관심이 높아졌고 보타산의 '불차' 황산의 '운무차' 천태산의 '화정차' 운남 대리 감통사의 '감통차' 항주 법경사의 '향림차' 모두 사원에서 만든 명차로 유명하다. 이러한 것은 특별히 선종의 차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이며, 명 중기에 이르러 사대부(士大夫) 풍의 차가 성행하였으며 친분이 두터운 벗(友)들이 모여 시를 짓고 차를 품평하며 선물로 주곤 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역학 개인지도

아직도 용신, 격국, 지장간을 찾고 계십니까?
효타비법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 한자를 모르고, 기초가 없어도 2개월만 배우면,
◆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는 효타만의 비법을 강의합니다.
◆ 철저하게 실전위주의 강의로, 가장 짧은 시간에, 명확하고 확실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며,
◆ 작명, 풍수지리, 관상학도 기본적으로 배움.
◆ 망설이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 자 격 : 나이 및 학력 제한없음
▷ 개강일시 : 2007년 3월 2일 - 4월 28일(매주 목, 금요일, 현재 강의중)

◆ 단체 출장 강의도 함(미리 접수하시기 바람)
◆ 인연있는 제자 한분을 기다립니다(남 · 여 구분없음)
◆ 수강료 : 백오십만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효 타 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지수 대진 합장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같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당어리 복당어리 황금당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정해년 설맞이 추천선물용품 기획전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추천하는 불교문화상품으로
소중한 분들께 감사의 선물을 준비하세요~~

02)2004-8215 [국민은행] 006-25-0023-989 (주)현대불교신문사



보이차 선물용품

황인산차(黃印散茶)

50,000원(100g)

· 원산지: 맹해 · 진기: 1990년 · 크기 : 직경 10mm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갑급 홍인원차(1990년제품)

~~320,000원~~ → **250,000원(1편)**

차의 소개 : 홍인보이원차는 차정이 크고 알차고 중기가 포만하고 색은 밤홍색이고 차면에는 유광이 차탕에는 밝은빛을 띄고 진하고, 란향 혹은 야생 장나무향을 풍긴다 잎의 아래부분은 부드럽고 신선할 뿐 아니라, 사용한 것은 구식압막제조라는 고대의 제조공예로 어떤것도 배곱 원형의 병차형태를 하고 있다





7532청병(7532青餠)

~~700,000원~~ → **350,000원(1편)**

· 원산지: 맹해

차의 소개 : 맹해의 어린잎으로 건창보관이 잘되어 기세가 비범하며 우아하고 내렴하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극유화성을 지닌 아름다운 차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탕색은 금황색이고 맛은 진하며 향기는 천연적인 것과 같아 입에 넣으면 부드러우면서 매끈하다.

수입원 : 서영보이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 희담석합장주(낱개) 1만원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2006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법문세트

(오디오테이프 8개 1세트)
24,000원(무료배송)

인간 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

부처님의 생애(팔상성도)를 중심으로 구성, 각 생애에서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현대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체계적인 불교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최고의 법보시



길에서 태어나 길에서 열반에 드신 부처님! 그분은 항상 대중과 함께 지냈고, 손수 일을 하셨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옷 한 벌과 발우 하나뿐이셨고 공양은 얻어서 드셨습니다.
항상 맨발로 다니셨고 길에서 주무셨습니다. 그곳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머무르며, 고민을 털어놓고, 이런 저런 문제들을 여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듣기도 하고, 때로는 막힘없이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졌고, 얼드려 절하고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분은 다시 선정에 드셨습니다.이것이 부처님의 일상생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인간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대함을 찬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잡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현대 사회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줄 수 있는 이상적 모델로서 부처님의 삶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 법문내용

Ⅰ 〈도솔래의상〉 종범 스님(중앙승가대 총장)
Ⅱ 〈비람강생상〉 월운 스님(동국역경원장)
Ⅲ 〈사문유관상〉 지선 스님(백양사 유나)
Ⅳ 〈유성출가상〉 지광 스님(능인선원 원장)
Ⅴ 〈설산수도상〉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Ⅵ 〈수하항마상〉 통광 스님(쌍계사 강원 강주)
Ⅶ 〈녹원전법상〉 성열 스님(강남포교원 원장)
Ⅷ 〈쌍림열반상〉 원담 스님(조계사 주지)

이 법문은 광주불교시암연합회와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주최한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 '인간붇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을 만나다'의 여덟분의 법주(종범 월운 지선 지광 수진 통광 성열 원담)스님들이 2006년 10월 1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광주 동구 KT정보센터대강당에서 설법한 것입니다.

머리에 쏙쏙!! 한문이 이제 쉬워집니다.

김광식 선생의 한문학습 노하우를 여러분께 모두 전수해드립니다.

지루하고, 답답한 한문공부, 이제는 그만!! 체계없는 주먹구구식의 교육방법 등으로 긴 시간을 요하는 기존의 한문 교육을 배격하고,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은 흥미롭고 보다 능률적이고 요령있게 한문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40여년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수행하여 얻은 노하우를 이제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초 · 중 · 고 · 대학생 · 일반 실무용 한자
(6급 - 1급까지 능력시험 대비)

영어를 모르면 세계의 고아!
한문을 모르면 아시아의 고아!
17억 한문 문화권의 당당한 도전!
한문을 알면 지구의 반을 정복한다!



金光植 先生의 새로운 漢文書堂

한자 고사성어 및 응용한자, 행정용어, 속담 등 1만여 문장 성어 수록

속담에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로 "사람도 공부를 하면 위인(偉人)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漢文書堂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全六券 90,000원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경전시리즈 .01

현대불교신문사

팔만사천 법문의 골수이자 핵인 반야심경 마침내 대중의 가슴에 꽃으로 피어나다



처처에 빛나는 반야 지혜의 눈이 소리 없는 몽둥이를 내리쳐 지금 여기에서의 삶에 봄바람을 일으킨다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와 유교까지를 두루 섭렵, "원전에 매이되 매이지 않는" 반야심경 주해로 이름을 떨친 무구자 도인은,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고 행적도 묘연했지만, 속장경에 실린 그의 반야심경 주해는 오랜 동안 공부하는 스님들과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참선의 생활화, 대중화를 위해 오등시민 선원을 개원, 감로의 문을 활짝 열어 온 한암대원 선사의 활달자재한 강설이, 어느 페이지를 펼치더라도 곧바로 진리의 법 한가운데로 뛰쳐들도록 촉구한다.

한암대원 강설 / 현대불교신문사 펴냄
신국판 / 양장본 / 440쪽 / 값 15,000원

한암대원 강설

반야심경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대원 開庵大元 선사

1942년 경북 상주 출생, 1958년 상주 남장사로 출가하여 혼해, 고봉, 석릉, 관응, 호경 스님 등으로부터 일대시교를 이수한 후 혼해 스님에게서 전강을 받음. 그 후 상원사, 동화사, 해인사, 불국사, 통도사 등 전국 제방선원에서 정진, 고암 스님으로부터 전법. 1986년 옛 제석사 터에 학림사를 세우고 납자를 위한 오등선원과 일반 불자들을 위한 시민선방을 열어 현재 선불교 대중화에 진력.

● 전국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Tel:02)2004-8219, Fax:02)737-0696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스님

마음 도리를 공부하지 않으면 점점 더 어려운 세태가 다가옵니다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고 음미하고, 마음 도리를 연구하는 데에 몰두하는 도반으로서 만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중반기에 들어섰다고 봅니다. 우리 개별적인 의의는 낳을 수 있을지언정 포괄적인 의의는 낳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중반기에 들어서서 세계와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같이 포괄적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대인이 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런 일이 드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대인이 되었으면 하는 사랑의 마음에서 조금도 쉬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에는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연구할 단계가 못돼서 개별적으로 연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과학이라는 것도 어느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으니,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과 어디로 돌아서 회전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는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심성의 활용이 있듯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마음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하여금, 과학적인 문제도 광대무변하게 이끌어갈 수 있고, 포괄적인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린 광대무변한 마음이 되기 때문에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올 수 있는 이 진리가 툭 터져서 지구 바깥으로도 나갈 수 있고 우주 전체를 보는 것 없이 보고, 듣는 것 없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제가끔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기복적인 신앙을 절대적으로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점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지금 외국의 강대국에서 또는 약소국에서도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한계가 있다. 어디로 인해서 이렇게 빠져야 되느냐? 유전과 무전, 즉 말하자면 유(有)와 무(無), 유개체와 무개체, 무생(無生)과 유생(有生), 이 모두가 어떻게 해야 회전을 할 수 있으며, 광대무변한 연구를 할 수 있겠느냐는 문젭니다.

그런 데에 도달해서 있느니만큼,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탐지기나 콤퓨타 등 다섯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고, 여섯 가지 중에 책정기가 누진통이라고 했죠. 그것은 이름으로써 얘기했을 뿐인데 활용하고 빛을 내고 여여하게 회전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예전에 뭐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하면 화광주니 야광주니 하는 구슬로 말했습니다. 걸림 없이 굴리는 데에 아주 여여하다는 뜻으로서의 빛 광주 또는 원광주, 해광주를 금강주에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섯 가지를 책정기 즉, 누진통이 그렇게 다룬다는 것만 얘기했지, 금강주라는 것은, 그 다섯 가지 구슬을 굴릴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활용입니다, 활용! 활용을 하는 데는 그 구슬을 얻지 못하고는 아니 된다. 그래서 용(龍)이 줄을 타고 오를 때에 구슬이 없으면 오르지 못한다 이 겁니다.

인간도 무의 법, 유의 법을 회전하는데 법망에 걸리지 않고 걸림이 없을 때에 비로소 다섯 가지 구슬을 얻을 수 있는데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굴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름해서 금강주입니다. 이것을 대충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나는 무슨 책을 봐서 이런 얘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허허허. 그러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강주 하면 이름해서 육바라밀에 속합니다. 보살행으로서 들어가는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또 '금강주에서 그렇게 굴릴 줄 알고 여여하고 걸림이 없다면 삼라만상 대천세계에 칠보가 가득 차 있다.' 이런 건, 여러분이 주인공의 뜻을 알아서 굴릴 수 있다면 바로 칠보라는 것입니다. 칠보! 전체가 둘이 아닌 칠보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모습 없는 모습들, 생명체가 전부 움죽거리고 있는 자체는 바로 진화력도 되지만 생존의 경쟁도 되고 생존의 부활도 되고 생존의 계발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고 음미해 본다면 아주 묘한 도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지금 시공이 없이 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미약한 생각 또는 미신의 생각으로서 아주 차원이 낮은 그런 행만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한생각이 얼마나 무서운데 아주 얕은 생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야만 하나!' 이런 겁니다. 칠보가 가득 차 있으면 거기에서 다 지혜가 나올 텐데 말입니다. 요거는 내 의견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니까 잘 파악해서 들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잘하려면, 한 발 떼어놓으면 한 발 떼어놓은 거는 없어지고 한 발이 또 되듯이, 우리가 지금 칠보 하면 벌써 육바라밀은 칠보가 집어먹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포함해서 있으니까. 포괄적인 칠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여하고 보배로운 자가발전소에서, 물론 가설이 그대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깐 자가발전소는 본래 내 안에 있으니까, 스위치만 누르면 불이 들어오게끔 돼 있는 게 아니라 본래 들어오게 돼 있는데 모르니깐 그걸 발견을 못해서 쓰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요렇게 아주 쉴 사이 없이 다가오는 그 나툼을 우리가 작게 생각을 하면 나툼이라고도 하고 윤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투어서 역력하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음미해볼 수 있는 문제는, 바로 그것이 그 안에 들어서 무수히 돌아가고 있으니, 이 돌아가고 있는 나툼을, 무(無)와 유(有)를 한데 가르치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사유(四無四有)를 한데 합치면 팔(八)입니다. 시방세계에 무와 유를 한데 합치니까 팔이 된다. 팔이 되니까 이게 여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칠보가 거기 또 팔에 포함된 겁니다. 팔정도(八正道)에 포함이 된 겁니다, 수레바퀴 돌아가듯이. 그걸 표현해 놓은 겁니다, 팔정도라는 것이.

그렇게 해서 그것이 팔정도로 돌아가는 데에는 언제나 포함해서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심성입니다. 그래서 그 심성을 포함해서 구정토(九淨土), 즉 말하자면 구경계(究竟界), 구경계로 하여금 시방세계에 두루 회전이 될 때 불이(不二), 불이법(不二法)이 거기에서 조성됨으로써 십이인연법을 넘어선 단계로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기보다도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면, 말은 조금 다를지언정 뜻은 똑같습니다.

내가 아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은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사람 사는 이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변천해가고 있는 겁니다. 우린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린 사람이 살 양으로만, 먹고 살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섭리로써 우린 계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경쟁이 아니라 계발입니다.

지난번에 경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이 모르면 경쟁이고, 넘어서면 계발입니다. 우리는 남을 죽이려고 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밀치려고 해서 밀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힘이 부족하면 스스로 밀리는 거죠. 누가 나쁘게 만들려고 그래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환경에 따라서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 본래부터 나쁜 사람은 없다 이 소립니다. 환경에 따라서 나빠질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생각이 자기를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한생각이 자기에게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마음 한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조 시대 어느 때라고 봅니다. 이조 시대 때 스님네들이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는 삿갓을 쓰고 결국은 머리를 기르고선, 어느 산골에다 토굴을 파고 도반들과 거지처럼 얻어먹어 가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들 있는데, 항상 탁발을 하러 나가면서도, 한 고비를 넘기고 산을 넘고 이러다보면…, 이걸 잘 음미하셔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지금 연구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산을 넘고 가다보면 아주 깊은 웅덩이가 있어서 사람도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뱀도 그 웅덩이에 빠지기만 하면 나오지 못해, 캄캄한 암흑 같은 곳이니까. 그래 가는 데마다 발을 옮겨놓는 대로 살려달라고 아우성이에요. 가다가 또 건져주고 "얘야! 너희들을 건져주면 나중에 또 나를 못살게 굴지는 않겠는가?" "절대, 생명의 은인이신데, 날 건져줬는데 어떻게 해하리까?" 그래서 건져주고 건져주고. 그런데 다 건져주고 나니까 전부 자기의 부하가 된 겁니다. 사람도 마지막에 건져주고, 사자도 건지고, 호랑이도 건지고, 뱀도 건지고 원숭이도 건지고, 다 건진다 말이야. 그렇게 건지다보니깐 전부 자기 군사가 된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사람이 있는데 구덩이에서 아우성을 치는 걸 건지려고 하니까 뱀이 있다 하는 소리가, 사자도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 "머리 검은 짐승은 도대체 남의 은공을 몰라! 그러니 저렇게 빠질 때는 다 어떠한 죄상으로 빠진 거다." 이러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만 사람은 나오기만 하면 꼭 당신에게 해를 줄 겁니다." 이러거든. "그렇지만 아우성을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냥 갈 수 있겠는가, 인간으로서…." 하면서 하는 말이 "언제 적의 죄로서 나를 해할까봐 무서워서 건져주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만약에 저 생명이나 내 생명이나, 저 모습이나 내 모습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안다면 건져주고 가야 하지 않느냐?" 하고 말을 하면서 "너도 예전에 그러했지 않느냐?" 하고서 말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하고선 참, 울었답니다.

그렇게 건져주고 나서 휘적휘적 바가지에 조금 얻어가지고 왔죠. 어느 날 또 얻으러 나갔는데 한 집도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에 자기 은사를 찾아다니며 기도를 드리고 불공드리던 대감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도저히 그 많은 식구들을 얻어

☞22면으로 계속

한생각이 일체 만법을 다 들이고 낼 수 있는 회전의 근본 원력!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생각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멋진 대인이 되어야!

龍潭堂 明虛 大禪師 49재 안내

龍潭堂 明虛 大禪師께서 2007년 1월 26일 14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막동리 산중토굴에서 世緣 離盡하시었습니다.

큰 스님의 장례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월정사 주지스님 이하 강원지역 사부대중 스님들에게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禮를 올리며 49재 일정을 안내해 드리오니 화엄문도회 스님들은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재 일정 (매주 목요일)

순 서	일 자(양력)	장 소	연 락 처
1재	양력 2월 1일	전남 여수 흥국사	061)685-5633
2재	양력 2월 8일	전남 구례 천은사	061)781-5050
3재	양력 2월 15일	충남 금산 태고사	041)752-4735
4재	양력 2월 22일	고양시 선재정사	031)966-3046
5재	양력 3월 1일	고양시 상운사	02)387-4731
6재	양력 3월 8일	경북 예천 법흥사	054)653-7714
7재	양력 3월 15일	전남 구례 화엄사	061)783-7600

불기 2551(2007)년 1월 29일

대한불교 조계종 제 19교구본사 화엄사 주지 宗三
화엄문도회 일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

정토불교대학

바른불교, 쉬운불교, 생활불교를 지향하는 정토불교대학이 2007년 2월 27일(화) 전국 13개 지역에서 동시 개강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지식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일상생활에 적용하여 불자님들의 삶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될 정토불교대학에서 법륜스님의 살아있는 법문을 만나보십시오.

▶ 2월 27일 - 12월 11일 매주 화요일 1년 과정, 영상강좌로 진행합니다.

	지역법당	문의처	교육시간	교육내용
매주 화요일	서울 정토불교대학 (주/야)	02)587-8993	오전 11시 오후 7시 30분	• 실천적불교사상 - 바로 지금 여기에서 부처되는 길 • 부처님의일생 - 인간붓다 그 위대한삶 • 근본불교 - 괴로움의 뿌리를 완전히 소멸하는길 • 불교변천사 - 불교사 .사회 역사 변화와 불교변천
	부산동래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557-2746		
	마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5)247-8991		
	울산 정토불교대학 (주/야)	052)245-8995		
	대전 정토불교대학 (주/야)	042)253-8990		
	청주 정토불교대학 (주/야)	043)284-5951		
	광주 정토불교대학 (주/야)	062)511-8990		
	정읍 정토불교대학 (주간)	019-308-2731	오전 11시	
	김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17-530-4311	오후 8시	
	제천 정토불교대학 (야간)	043)648-0083	오후 6시 30분	
	제주 정토불교대학 (야간)	016-739-7885	오후 7시	
매주 수요일	부산해운대 정토불교대학 (주/야)	051)747-9997	오후 6시 30분	
	대구 정토불교대학 (주/야)	053)753-8993	오후 7시	

●정토불교대학 특전
◇초심자 입문교육 ◇기도정진 및 나누기
◇야외법회 - 사찰순례 ◇수행점검 및 법사님 상담
◇특강수련 ◇졸업수련실시
◇봉사활동 및 환경 · 통일 · 복지특강

●모집안내
◇접수기간 : 2007. 3. 6일 화요일 까지
◇대 상 : 바른불교를 찾고자하는 사람은 누구나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사진2매
◇동 참 비 : 12만원(1년제) ◇문 의 : 각 지역법당 www.jungto.org

정토회 Jungto Society

나의 근본 마음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

☞21면에서 계속

서 연명하게 할 수가 없어서. 그 대감네 집을 찾아가니까 그 집에서 패물을 줬습니다. 그 패물을 가지고 가서 지금으로 치면 금세공 집에 가서 팔겠다 했겠죠. 그런데 마침 가보니까 그 세공하는 아버지가 바로 언젠가 건져준 적이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러나 그런 얘길 해도 그 아들은 들은 둥 만 둥 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을 보니까 눈이 희번덕거려졌죠. "내가 물어봐서 이거 살 사람을 구해서 팔아주겠소." 해놓고는 바로 원님한테 찾아갔어요. 원님한테 찾아가서 고자질을 했죠.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나라에서나 나오는 건데, 묘(墓) 도둑질한 건지 모르니까 이것을 잘 처리해주십시오." 하면서 뭐 상금이나 받을 줄 알고 그랬죠. 그랬더니 원님이 너는 요다음에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상금을 내리겠다 하고선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고선 그 스님은 붙잡아다 가둬놓고 원님은 그 패물을 들고 한양엘 왔습니다. 임금한테 와서 이러한 얘기를 다 하니까 노발대발했습니다. "이것은 대궐에나 있던 패물인데 어째서 그 사람 손에 들어갔느냐. 필시에 이건 도둑놈이 아니고는 절대 그럴 수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양으로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죠. 이제 참(斬)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나라에서는 그 사람이 스님인 줄 모릅니다. 머리도 기른데다 몰골이 말이 아니거든요. 형편이 어려워 살 수가 없어서, 상놈인데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다니는 줄 알겠죠. 그래 인제 들어가서 있으려니깐 아, 밥을 주는데 입맛이 없어서 영 먹을 수가 없는데 거기 사람들이 죄 굶어죽을 생각을 하니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입맛도 없고 들어가지도 않아서 목이 메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으니까 "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을 날이 이제 가까와 올 텐데 밥이나 배불리 먹어둬!" 하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귀가 번쩍 띈 겁니다.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나지?' 하고선 생각을 하던 중 뱀 생각이 났습니다. "야, 뱀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뱀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즉시 달려와서는 "부르셨습니까?" "내가 이만저만하여 꼼짝없이 도둑놈으로 몰려서 죽게 됐어. 참한다고 한다. 그러니 어떡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써 스님이 날 알고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뱀은 뱀으로 살던 습이 있어, 독이 있고, 그 습이 있어서 능수능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나는 보이지도 않으니까 들어가서 대비마마를 꽉 물어뜯어서 독이 올라서 정신상태가 흐려지고 살이 전부 시퍼렇도록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대비마마 눈에만 내가 뱀으로 보일 거고 방방곡곡에서 고치려고 해도 아무도 못 고칠 겁니다. 그때 당신이 들어가서 이마에다가 손만 얹는다면 그 독이 전부 다 빠질 테니 그 후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고는 뱀은 쏜살같이 대비전으로 들어갔어요. 대비 눈에만 보였지 딴 사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얼른 물고선 달아나갔죠. 달아나가나 마나죠. 알고 본다면 달아나갈 것도 없고 들어갈 것도 없는, 그 모습 없는 모습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러면 그게 누군가? 바로 그 스님이란 말입니다, 둘이 아니기에. 급한 거를 면할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음미해 보시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기가 그렇게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옥 안에 들어있으니까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여기서 쑤석쑤석 저기서 쑤석쑤석 야단났고, 온 방방곡곡의 의사가 들어왔다 나갔다 해도 뭐, 까딱없거든요. 그래서 울고불고, 참하고 말고 그거는 뒷전이고, 하여튼 야단이 났어요. 그때쯤 임금한테 고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번 고쳐볼 수는 없겠는지요?" 하고 청하니까는 "그러면 들여와 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재판도 해보지 않고 남의 소리만 듣고 감옥에 가뒀는데 "그러면 목욕을 시켜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너라." 그래서 목욕을 시키고 그 방엘 들여보내졌죠. 들어가서 손을 대비마마의 이마에 짚으니까 아, 얼마 안 있어서 깨어나거든요. 깨어나면서 그 시퍼렇던 게 차차차차 위서부터 아래로 다 삭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임금이 깜짝 놀란 겁니다. 전국에서 한다 하는 의사가 다 들어와서 봐도 영 가망도 없더니 이렇게 나을 줄이야. 참, 미처 몰랐다고 하면서 보물 얻은 그 사유를 다 물어봤습니다, 그때서야.

그래서 그 사유를 죽 얘길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금세공 아버지가 덫에 걸려서 있는 거를 살려주었다는 얘기도 했지만 그거는 아랑곳없죠, 그걸 모르니까. 그랬는데 스님이란 소리는 안 하고 그 대감님이 그렇게 주셨다 하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취해봤겠죠? 보니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도둑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자질한 그 금세공하는 사람을 불들어다가 옥에 가두라고 하고, 그 스님을 임금이 아주 믿고, 국가에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돼버렸죠, 너무 믿으니까. 그러자 이분은 그때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방도 튼튼해야 하고 국가의 재정도 그렇고 모든 문제, 지금이나 그때나 뭐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임금은 다 듣고 그대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빨리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뱀 얘기 했죠? 그 얘기처럼, 잘 생각해보신다면 우리가 그때나 지금이나 국방에 참, 나라에 대책을 세우는 데도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우리는 이 물질적인, 어떠한 수효의 사람들만 채워놓는 게 보통 경우라고 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사람 아닌 사람이 더 많단 얘깁니다. 그럼으로써 군인 한 명에다가 군인 마음의 그 마음 근본을 넣어준다면, 즉 말하자면 잠재해 있던 의식 자체를, 유명한 사람들을 다 넣어준다면 열 배나 위력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에도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는 싸움을 할 수가 없고, 마음을 휘어잡아서 이겨야지, 마음을 휘어잡지 않고 마음을 조절하지 못한 채 그 마음을 회전하지 못하고야 어찌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죽이기만 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렇듯이 앞으로 이러한 도리의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점점 살기가 어려운 세태가 다가온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서 국민이라든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나 또는 경제를 위해서라든가 공업을 위해서라든가 국방을 위해서라든가, 그 모두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근본을 넣어주는 것이 우선 급선무입니다.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마음을 넣어주는 것이 바로 불국토입니다.



그림 · 최주현

모르면 경쟁이고 넘어서면 계발입니다!

우리가 불국토를 이룬다 할 때는, 회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을 때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한생각을 해서 회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멋진 대인이 됐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불국토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앞으로는 점점 어려운 문제, 예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 뭡니까? 남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르고 남을 때립니다. 그러면 오히려 화를 입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무(無)의 세계의 어떠한 문제를 연구한다고 그러고, 계발한다고 그러고 과학적으로 하다가 잘못 건드려 놓으면 오히려 화를 입는다는 얘깁니다. 그러나 둘로 보지 않고 언제나 선의적으로 우리가 계발을 한다면, 그것도 둘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을 악하게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선신으로서 잘 나와서 자기의 길을 인도합니다. 자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둘로 보고 상대적으로 보고 우리가 그 도리를 모르고서 그쪽의 능력도 모르고서 뚜껑을 열었다가는 패배를 당합니다.

그건 뭐냐? 나만 죽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건 깨지는 겁니다. 한 모퉁이가 깨질 수도 있고, 물로 그냥 팡! 칠 수도 있고, 불로 다 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마치 '맛을 봐야 맛을 알지.' 하는 식입니다. 몇 수억 천년을 살아온, 모습 없는 모습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아닙니다마는 모습 없는 모습이 온 누리에 아니 다니는 데가 없이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허공에도 살고 있고, 또 혹성에도 살고 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연구한다고 거기까지 파헤쳤을 때는, 다는 파헤치지 못하고 한 부분만 파헤쳤을 때는 그때는 참 위험한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부를 해서 만약에 과학자들이 위험 지경에까지 도달했을 때는, 탁 이렇게 안아서 잘 길을 인도해줄 수 있는, 스스로의 마음에서 그렇게 이끌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87년 2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 자 암
무문관 후원회원 모집공고

본 대자암은 제1무문관에 12명 스님과 부여 은산면 매화초등학교 폐교 제2무문관에 13명 스님이 2005년 음력 10월 15일에 제2차 3년 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 도인 출현을 염원하는 신도님 제위께서는 아래에 의하여 후원회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원회비 : 월 1만원
◆우 체 국 310623-02-033475
국민은행 454-21-0349-683
예금주 : 문판오(정영스님)

계룡산 대자암 제1무문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1리 전화 041)833-4963
계룡산 대자암 제2무문관
충남 부여군 은산면 가곡1리 전화041)833-4963

수제화로 제작 상표등록 : 614981호
滿 가득할 만 行 행 靴 화
■ 소재특징 : 방수 극세사 원단. 논스립 미끄럼 방지. 특수 우레탄 소재
사계절 단화

지압식 깔창
최고의 선물
종은점
만행 포행시 단정함 유지, 색상에 따라 사부대중의 선택, 발 건강을 위한 3cm 굽 높이로 만들어져 발로 인한 몸 건강에 도움을 주며 특히 지압식 '발바바' 깔창은 특수 항균 실리콘 고무로 만들어져 불교의 예절에 절을 많이 하시는 사부대중님의 발관절에 도움주는 특수 지압식 인솔입니다. 어떠한 신발에도 지압 인솔을 착화하시고 걷는 것만으로도 발바닥을 지압하여 운동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방한용 털신

털 깔창
사계절 단화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키높이 특수제작)
방한용 털신
• 가격 : 6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흑색
■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 011-9000-5715
■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민)
■ 서울 종로구 공평동 143번지 (두산위브 맞은편으로 이전)
전국매장 ※ 보시 하실 분 상담 환영
•부산 : 원광사 051)636-7019 •대구 : 연꽃세상 053)426-7300
•광주 : 불교서원 062)226-3056 / 화신승복 062)228-2870
•대전 : 불교백화점 042)274-3727 •서울 : 부산승복 02)738-8407
•제주 : 김윤경승복 064)724-7999

불교의식(범음범패) 수련생 모집
◆ 수림사에서는 실습을 통하여 불교의식을 여법히 집전할 수 있도록 3개월 속성으로 집중지도합니다.
◆ 포교원 및 법사로서 활동하실 분들 교리와 의식을 익혀 자질을 갖춘 법사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
◆ 기초과정 :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
◆ 시식과정 : 49재 및 천도재 의식.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 교육방법 : 매주 화 · 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접수일시 : 수시접수
◆ 개 강 일 : 2007년 3월 6일
※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불교 수림사 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 011-9769-8868

귀 정 해 년
목화암 행사 안내
황금돼지의 해 대운맞이 100일 기도 입제
◆ 사업이 잘 안되어 고민하는 분 사업성취 비법
◆ 부동산 매매가 잘 안되면? 급성 매매 비법
◆ 공직시험이나 일반시험을 앞둔 수험생 성공비법
◆ 집안에 산소탈로 조상이 누가 된다고 생각하는 분
◆ 우환으로 가정이 불편하거나 일이 잘 안풀리는 분
◆ 자녀들의 혼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
◆ 직장 승진이나 장래 출세를 원하는 분
◆ 청소년 진로 문제나 송사 문제로 고민하는 분
◆ 부부간에 금슬이 안좋아 갈등이 심한 분
◆ 정해년 삼재 소멸기도, 뱀띠 닭띠 소띠
기타 사주, 궁합, 택일, 작명, 성혼, 화합 등 저희 법당을 찾아오시는 분에게는 황금돼지와 몇가지 선물을 증정합니다
귀 목 화 암
02)477-4688/010-7324-5116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1동 236-3번지 청방마트 뒤



불자 세상보기

권 경 희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티백' 같은 수행 프로그램

흔히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가늠할 때 실용성을 기준으로 삼는다. 18세기에만 해도 연암 박지원이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학 운동을 펼 만큼 실용적인 면에서 뒤쳐졌던 우리나라였지만, 현대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그 첨단을 걸을 정도로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전통 문화, 특히 불교와 관련된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예전 동서양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동양의 차 문화와 서양 실용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티 백(tea bag)으로 대별할 수 있다.

동양에서는 차를 문화의 하나로 본다. 그래서 재료부터 엄선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재배했으며, 어떤 상태의 잎사귀를 따서 어떻게 가공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 차를 마실 때 역시 찻물의 온도와 우려내는 방법, 심지어 마시는 태도에까지 세심히 주의를 기울인다. 따라서 차를 마신다는 것을 색다른 맛의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일종의 경건한 의식으로 승격시킨다.

그러나 티백은 정반대다. 차를 종이 백에 담아 따뜻한 물에 담가 우려내기만 하면 된다. 포장된 상태로 대량 생산을 하므로 재료에 관심을 기울일 이유도 없고, 물 온도를 맞추느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간단하고 편리하다.

위와 같은 차이점 때문에 차는 소수의 애호가들에게만 인기가 있고, 티백은 대중에게 널리 애용되고 있다. 사무실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번거로운 차보다는 티백을 선호하고 있다. 차의 은근한 멋보다 티백의 간편성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셈이다.

차-티백과 비슷한 현상이 불교 수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인 참선과 위빠사나 등의 수행이 동양에서는 여전히 차 문화와 같은 양태로 전승되고 있는 반면, 서양에서는 티백과 같이 간편화되어 가고 있다. 서양의 심리학자나 명상가들이 동양에서 불교 수행을 도입해 그들 나름대로 가공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서양 사람들이 개발한 명상 프로그램이다. 불교 수행을 기반에 두고 심리치료를 접목한 프로그램, 불교 수행을 활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프로그램 등 다양하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용이 구조화되어 있고, 운용 지침까지 마련되어 있어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쉽게 적용할 수 있다. 하루 몇 시간, 몇 주, 몇 회를 어떻게 하라고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과 우리는 불교 수행에 접근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 우리는 불교 수행이라 하면 일단 부처님께서 깨달은 수승한 경지에 이르는 길을 따라간다는 경건함에 숙연해진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수행 가운데 자신들이 나름대로 이해한 부분을 아주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불교 수행을 통째로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로 끌어안는 반면, 이들은 부분으로 쪼개어 그 가운데 실용적인 면을 취하고 있다. 그런 다음 차를 티백에 담듯 프로그램으로서 포장하고, 심지어 상품화하여 세상에 널리 보급하고 있다. 그것이 다시 불교의 본거지인 동양에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추세를 보면서 서양인의 철저한 실용 추구 정신에 다시 한 번 경외감이 느껴진다. 한편으로 자괴감도 든다. 원조라 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야 불교 수행의 대중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들은 이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선점을 당한 셈이다. 걱정스러운 면도 있다. 서양인들이 불교 수행을 파편적으로 도입하면서 불교 자체보다는 기법 측면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교는 사라지고 기법만 남는다.

수행의 대중화가 절실한 요즘 서양인의 실용정신을 참조하면서 불교의 근본을 잃지 않는 묘책이 필요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불자의 눈

월간 <해인(海印)>지가 2월호로 지령 300호를 맞았다. 1982년 해인사 강원의 포교부가 학생법회 회보용으로 만든 것이 그 시작이다. 처음부터 포교에 원력을 둔 '포교지'였다. 포교지란 점을 강조하는 이유는 월간 <해인>이 그간 담당해 온 역할이 참으로 컸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도시화에 가속이 붙은 70년대 말부터 부각된 포교의 중요한 코드가 '문서포교'였다. 많지 않은 잡지와 신문 등이 급변하는 사회기류를 따라잡으며 포교를 감당하기가 다소 벅찬 때에 <해인>지가 탄생했던 것이다. 매체가 다양하지 않던 시절에 <해인>지를 통해 큰스님들의 법문이 가정으로 배달되고 젊은 스님들의 기개 넘치는 글들이 청년 불자들의 가슴에 메아리로 남으면서 포교의 저변이 다져졌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교계에서나 사회에서는 <해인>지의 지령 300호를 축하하며 그간 제작에 관여했던 스님들이 교계의 중진으로 자리 잡았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하나의 포교지가 꾸준히 발행됨으로 얻어지는 '이익'이 이렇게 컸다는데 새삼 놀라는 이들도 많다.

월간 '해인' 지령 300호
문서포교의 '오늘과 내일'

<해인>지는 오늘의 불교계에 몇 가지 교훈을 남기고 있다. 첫째는 문서포교를 위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질적 투자와 인적투자가 없이 문서포교는 불가능하다. 특히 인적투자가 중요하다. 정기간행물로서의 포교지가 제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편집과 기획 그리고 좋은 필자와 매체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해인>지가 '스님 문장가'를 다수 배출한 이력은 단연 돋보인다.

또 <해인>지가 포교지답게 군법당이나 교도소 병원 등 소외지역으로 상당수 배포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이다. 불교계의 매체들이 열악한 수익구조를 극복하는 상황에서 소외지역에 부처님 법을 전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가독성을 최대한 살린 편집도 <해인>지가 여타의 사보들에 비해 돋보이는 대목이다.

지금도 다양한 매체들이 '포교의 사명'을 구현하기 위해 척박한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웬만한 사찰이면 정기적으로 사보를 내고 있고 신행단체들도 회보 발간에 비중을 두고 있다. 무엇보다 인터넷을 통한 포교 활동도 그 영역을 폭발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오히려 매체의 홍수 속에서 독자들에게 혹은 네티즌에게 왜곡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교계의 매체포교는 이제 상당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그 변화의 핵심은 '독자 중심'이다. 어떤 독자에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포교라는 절대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방편으로서의 매체는 불자를 더 깊이 끌어들이고 비불자를 법당으로 이끄는 힘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해인>지의 '지령 300호'라는 성과가 오늘날 불교계 문서포교 매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비전을 허심탄회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들었다 — 모골탑(母骨塔)

"첫째 자식을 제어하여 나쁜 짓을 하지 않게 해야 하며, 둘째 착한 행위를 가르쳐 주며, 셋째 학과 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선생경>

부처님은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의 세 가지 자세를 이렇게 말씀했다.

집안에서 살림에 전념하던 40~50대 어머니들이 취업전선에 나서고 있다. 남자 혼자 벌어서는 아이들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얘기냐고? 아니다. 정규교육에 드는 비용이다. 학기별로 400~800만원 드는 대학등록금 때문에 벌어도 벌어도 모자라는 현실이다.

옛날에는 소 팔아 등록금 댄다고 해서 우골탑(牛骨塔)이라 불렀지만 요즘엔 나이든 어머니가 힘든 일을 하며 학비를 댄다 해서 모골탑(母骨塔)이란 말이 생겼다.

배 아파 낳아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놨더니 이젠 좀더 나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 어머니들이 취업전선으로 내몰리고 있다. 일명 '등록금 취업'이다.

"등록금만 덜 올라도 당장 그만두고 싶은" 어머니들이 대다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려 파출부로, 베이비시터로, 심지어 건설현장의 막노동까지 섭렵하고 있다.

배움을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할 기본이라는 부처님 말씀처럼 그 어느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 부모들이 자신을 더 희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심정을 자식들은 알까? 언제까지 그냥 당연히 받아야할 부모님의 은혜이자 의무로 여겨야 하는 것인지 한번쯤 고민할 때다.

이 땅의 자식들이여, 자립의 길을 찾아보자.

■강지연(취재부 기자)

새해 이것만은… — 어린이 포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지스님 인사고과 · 법회 개설 지원 시스템 필요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없이 한국 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조계종에서 어린이포교 전담팀을 구성해 어린이포교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부터 시작된 어린이포교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지만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변화에 발맞추지 못해, 그동안 신심만으로 지탱되어온 어린이포교 관련단체나 활동가들의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어린이포교에 대한 당위성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계획과 실행에 옮기기 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에 그동안 종단에서도 받아들이기 더 힘들지 않았을까?

2006년 11월 '어린이포교 전진대회'로 어린이, 청소년포교의 중요성은 충분히 홍보 · 인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어린이포교가 워낙 관심 밖의 일이었기 때문인지 가시적 홍보성과는 있었지만 그것을 해결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었다. 분위기는 형성되었지만 어린이 · 청소년포교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타종교, 타종단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려는 시기다. 걸음마를 하기 위해서는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면서 바로 걷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올해 해야 할 일은 바로 걷기 위해 많이 넘어지지 않는 연습과 노력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포교 관련 제도 개선은 매우 시급하다. 법령을 개정하여 어린이 포교를 하고 있는 사찰이나 스님은 인사고과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 포교에 더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도움과 힘을 준다. 또한 어린이 법회가 없어 어려움을 토로하는 곳은 개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하지만 어린이 법회를 보고 있는 곳에서 조차 아이들이 없어 힘들어하는 곳이 많아 올해는 무엇보다 활성화에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린이 법회 지도자 양성이 병행돼야 한다. 어린이 법회를 열고 싶지만 지도자를 구하지 못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나 모임을 적극 활성화 시켜 힘든 어린이 법회 지원이나 개설에 도움을 주어 누구나 어린이 법회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두 가지 외에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많다. 불자들 모두가 해야 할 일도 있다. 사찰 신도들이 적극 앞장서서 내 아이부터 절에 보내면 어떨까? 어린 자녀들이 어린이법회로 인하여 변화가 있고 참다운 인간으로 성장해 나간다면 더없이 좋은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가장 강조되고 학교 교육에서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 인성교육이다. 하지만 그 인성교육은 학교에서 모두 할 수 없다. 가정이 기본이 되고 그 외 사회에서 책임져야 할 몫인 것이다. 이런 부분을 어린이 법회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린이 포교에 있어 우리가 할 일은 너무도 많다. 변화하는 시대에 어린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알아 어린이 포교의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미래불교는 밝다. 해맑은 아이들의 웃음과 미소 속에 부처님을 보듯 어린이 포교에서 미래불교를 찾는다. 불자들 모두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주고 보아 준다면 이 아이들이 커서 미래 불교를 이끌어 나가는 주인이 될 것이다.

우리들의 정진이 쉼 없이 되고 있듯 모든 어린이들이 지혜와 자비를 갖춘 불자로 성장하여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모두 함께 힘을 기울여야 하겠다.

최미선(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사무국장)

골반명가
天一氣功
천일기공은 93년도에 창립되어 14년간 수많은 스님들과 불자님들에게 건강법을 전수 해 왔습니다.
소백산 수련원에서 실시하는 「3박4일코스 건강기공강좌」에는 전국각지에서 대덕스님들과 불자님들이 꾸준히 참가하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독일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인정증 획득
만성디스크(탈출,협착,만곡,측만)요통,좌골신경통,관절통,오십견,견비통,팔저림,목디스크,요실금,코골이,무호흡증,수족냉증,위장병,비만,불면증,당뇨,고혈압,갑상선,우울증,초조불안,두통,안짱다리,생리불순,생리통,부인병등을 스스로 치유하는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소주천수련법, 임,독맥소통법, 천지관기법 등 다양한 수련법이 전수됩니다.
※ 수승화강의 원리를 모르고 병치료를 논하지말라
※ 사기(음기)를 배출하지않고 어떻게 병을 고치시렵니까?
※ 전화주시면 -안내서- 보내드립니다.
소백산수련원 (054)637-9810
서울본원 (02)3436-3206
경북 영주시 단산면 구구리(구구초등학교)

고차원세계의 과학
- 그리고 레이키 -
1.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박희준 회장이 새로이 개설한 홈페이지「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혹은「www.spiritualism.co.kr」의 회원이 되시면 고차원세계의 실상을 과학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해 보실수가 있습니다. 저 세상의 참 모습을 입체적으로 다면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홈페이지입니다. 회원이 되십시오. 앞으로 계속 기사를 실을 것입니다.
2. 동서양식 레이키
개인교육 70만원, 단체교육 55만원
단체교육은 매월 1회 토,일요일에 걸쳐서 시행됩니다.
개인교육은 날짜와 시간을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레이키는 에너지 요법 즉 氣치료법의 총아입니다.
레이키는 교육만 받으면 그날부터 능력자가 될 수 있는것이 특징입니다. 저(박희준)는 1997년 부터 우리나라 최초로 레이키 교육을 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입니다.
3. 카루나 레이키
교육비 30만원, 교육기간 1일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음파 에너지를 환부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 박희준 회장 약력
20여년간 건강분야, 불교분야, 정신세계분야의 저술가, 번역가로 활동하여 10여권의 저서와 1백여권의 번역서를 냈습니다. Spiritualism, 윤회전생, 초능력 문제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던 끝에 그 자료들을 인터넷에 공개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www.spiritualism.co.kr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입종 및 교육안내
◇입종 안내 구비서류
●본종 입종신청서 (총무원, 지방종무원 비치) 2통 : 요청시 우편발송 가능.
●주민등록 등본 2통.
●승적증빙서류 (전종시 타 종단 승려증, 주민등록증 사본) 2통.
●사찰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대장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2통.
●여권용 사진 5매.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2통.
●사찰 전경사진(내, 외부)
◇행자(예비승) 모집
●자격 : 신체 건강하고 법적 결격 사유가 없으며, 연령 45세 미만, 학력 고졸이상.
●특전 : 행자 이수 후 승려교육 수행과 겸해서 본사나 말사에 수행 할수 있음.
◇대승불교 전문대학 교육안내
●1학년(사미반) : 초발심자경문, 치문, 기본의식, 범음, 범패(타 종단 스님 가능)
(본 종단은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 있음)
문의 및 접수처 : 대한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총무원
주소 : 부산 금정구 금사동 64-20 / 전화 051)527-5431~2 / 팩스 051)527-7733
경남종무원 055)943-6570 / 중부종무원 043)648-8942 / 제주종무원 064)724-0318~9

자운 스님의 '지계수행' 가슴에 새기고…

도선사 108사찰 순례단 4회차 순례…계율 · 호국정신 배우고 농촌살리기 발원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이 참가자들에게 '경국사'가 새겨진 염주를 나눠주고 있다.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이 '마음으로…'에 낙관을 찍고 있다.


자운 스님 부도탑에서 탑돌이하는 순례단.

'서울의 진산 삼각산 남쪽 기슭, 맑은물 여러 계곡 이루어 흐르고 한 갈래 정릉천으로 뻗어 빽빽한 수림과 만나 산수좋고 풍경 좋은 곳. 이승만 대통령이 참배 후 단청하시는 보경 스님의 인격에 감화돼 참다운 승가의 모범이 이곳에 있다고 칭송한 곳. 1953년 닉슨 미국 부통령이 방한해 한국문화의 참모습이 살아 있다고 극찬한 곳.' 여기까지만 듣고는 어느 사찰일까 고개를 갸우뚱 거릴 수 있다. 하지만 한국불교 계맥을 이어온 자운 스님의 원력이 부도탑에 머무는 사찰이라는 부연 설명을 듣는다면 웬만한 불자들의 입에선 곧바로 '경국사'란 답이 주저없이 나올 것이다.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삼각산 동쪽 기슭에 자리한 경국사. 이곳에서 1월 25일 도선사가 주최하는 '혜자 스님과 함께 떠나는 108사찰 순례기도 법회'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17일 통도사를 시작으로, 해인사, 송광사에 이어 네 번째 순례법회였다.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국사 경내엔 1천5백여 불자들로 발디딜틈 없이 붐볐다. 추위도 단박에 녹일 수 있는 뜨거운 열기 그 자체였다. 순례법회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됐다. 순례단은 우선 '관세음보살' 정근과 순례기도법회 발원문을 낭독하며 속세에서 잠시 풀어졌던 마음을 다잡았다.

예불의식이 끝나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법문이 이어졌다. 한국불교계의 대표적 학승인 지관 스님은 1979년부터 경국사에 주석하시며 활발한 포교활동과 불교학 연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호국도량인 경국사에 온 걸 환영한다고 말문을 연 지관 스님은 "3천명이 넘는 순례단들이 전국 방방곡곡의 사찰을 참배하며 개인의 신심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찰 인근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보살행도 펼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도선사 108사찰 순례는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 큰 불사로 기억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경국사 주지 정산 스님은 처음 찾은 순례객들을 위해 경국사를 소개했다. "경국사는 고려 충숙왕 12년 자정율사가 창건해 청암사란 이름으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충혜왕 1년 증축을 거친 후, 조선 인종 1년 조선왕실의 도움으로 대대적인 중건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다가 명종 5년에 문정왕후가 국가에 경사가 끊이지 않도록 기원하는 사찰이라는 의미에서 경국사로 사명을 바꾸었지요. 당시에는 서울에서 가장 인접한 호국기원 도량이었으며, 임진왜란당시 서산대사와 사명대사가 이곳에 구국승병을 이끌고 와서 총지휘를 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경내가 비좁고 작다고 해서 우리 경국사 얕보지 마세요." 귀를 쫑긋 세우고 설명을 듣던 순례객들이 일제히 폭소를 터트려 경내는 일순간 웃음바다가 됐다.

마이크를 이어받은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경국사는 자정국존의 창건이래 엄격한 계율을 지켜온 고승 대덕의 수행지였습니다. 특히 한국불교의 대표적 율사였던 자운 스님의 부도비가 경내에 있지요. 이제 그 향훈을 느끼기 위해 탑돌이를 시작하겠습니다."라며 순례객들을 경내 입구에 있는 자운 스님의 부도탑으로 안내했다. 혜자 스님을 선두로 한 참가자들의 긴 행렬은 1시간 가량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탑돌이를 했다.

탑돌이가 끝난 불자들에게는 이날 법회 참석 증명서인 낙관을 혜자 스님이 펴낸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책 속 경국사 편에 찍어 주었다. 아울러 경국사 글자가 깨알같이 새겨진 염주알도 하나씩 증정됐다. 네 번째알이 궤어진 염주를 보며 순례객들은 뿌듯해 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정심 보살(60 · 서울 성북동)은 "근처를 지나가다가 몇 번씩 사찰 표지판을 보면서 수많은 절중에 하나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경국사가 이렇게 유서깊은 사력을 가진 사찰인줄 몰랐다"며 "특히 11세기경 중국 요나라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부전 철조관음보살상을 보고 환희심을 느꼈다"고 즐거워했다.

한편 2007년 경국사에서 힘찬 첫발을 내딛은 도선사 108사찰 순례기도단은 2월 28일 논산 관촉사를 찾아간다.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참가자들에게 혜자 스님은 마지막 당부를 잊지 않는다. "우리는 사찰 순례만 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위기에 처한 사찰 인근의 농촌도 꼭 살려야 합니다. 순례법회 2~3일전부터는 시장에 가지 마세요. 사찰 참배하러올 때 장보러간다고 생각하시고 지역 특산물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우리 농산물 많이 사가서 우리 마음의 고향인 농촌도 살립시다. 그게 부처님의 뜻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제히 씩씩한 어조로 "예"하며 합장반배하고 경내를 빠져나갔다. 한달 뒤 지금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는 발원을 가슴속에 담고서.

글=김주일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좋은 인연 좋은 공덕으로 행복한 삶 가꿔 보세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순례단에 '특별법문'



부처님법은 넓고 높으며 미묘해서 한마디로 단정지어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 중에서 좋은 인연 공덕을 짓고 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길 발원합니다.

불자들은 좋은 인연을 만나야 하며 그 후에는 인연을 통해 좋은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설사 나쁜 인연을 만났다 하더라도 인연을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려고 해도 위치와 환경이 좋아야 하듯이 우리 중생들의 삶도 나쁜 인연 공덕앞에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보조국사 지눌 스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틈만나면 "초심자들은 나쁜 환경을 버리고 삼보를 공경하며 신심으로 믿어라. 또한 좋은 인연 공덕을 쌓아 마음을 편안히 해야 모든일이 순탄하게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변 환경이 안좋으면 물이 오염되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주변 환경부터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세요. 그래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행운아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 만큼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일 연탄을 나르는 연탄가게 점원은 온 몸에 연탄가루를 묻히고 살 듯이 여러분들이 매일 불법을 만나게 된다면 연꽃처럼 향기롭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물질이 많다고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현실에 지족할줄 알고 불법에 의지해 이를 실천할 수 있는 마음자세만 돼있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디 동체대비하신 마음으로 108순례를 무사히 회향하시기 바랍니다.

협찬 : 도선사 108사찰순례단

